

시로 읽는 성보순례
봉선홍경사갈비
국보 제7호
고려시대 ▶2면

현대불교

게으름에 빠져
일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송장과 같아
얻은 목숨 헛되어 결과가 없다. 〈정법염처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1월 1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873호 2012년 2월 1일 수요일

연등회 문화재 예고

27일 3년 노력 끝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서
조계종 환영 논평…"세계문화유산 인정 위해 노력"

불교계 대표적 무형문화인 연등회(燃燈會)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월 27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회의를 열고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등회는 앞으로 30일간 지정 예고가 공시되며 이 기간 동안 특별한 결격사유나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중요무형문화재로 확정된다.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소식에 조계종은 대변인 정만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 정만 스님은 "문화재청의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연등회 문화재 지정 예고는 연등회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연등회보존위원회의 전승의지를 인정해준 계기이며 세계에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은 오래전부터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조계종은 이번 지정 예고

불교계 전승의지 인정 등
전통문화 인식 변화 결과

를 불교 무형문화재의 계승과 발전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조계종은 연등회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이어 세계문화유산 지정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까지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 4월 문화재청 조사위원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같은 해 7월 결국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부결됐다. 이후 종단은 연등회 국제학술대회, 특별좌담회 개최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아왔다. 거듭된 노력에도 연등회의 지정이 보류되자 조계종은 정부의 전통문화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연등회는 2000만 불자들의 서원과 함께 2012년 1월 27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산고 끝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자 불교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불교계 내부의 더 많은 관심과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만 스님은 논평에서 "이번 지정 예고를 계기로 연등회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통을 복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연등회는… 연등회(燃燈會)는 번뇌와 무지로 어두운 세상을 지혜와 깨달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 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을 등(燈)을 밝혀 봉축하는 불교전통의식이다. 불가에서는 지혜의 상징인 등불을 부처님 앞에 바치는 연등공양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연등회는 고려시대에 크게 성행했다. 이후 성종 때 유학자들의 강한 반대로 일시 폐지했다가 1010년(현종 1)에 다시 실시됐다.

연등은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의미로 인도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초파일 연등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에 그 기록이 전한다. 연등축제는 해방 후 조계사-종로 4가-을지로-시청-안국동-조계사를 한 바퀴 돌았다. 1996년부터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제등행렬을 비롯한 불교문화마당, 어울림마당, 대동 한마당 등 행사가 추가되면서 종합적인 축제로 발전했다.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은 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기념식을 개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 스님과 108인 여성불자 가운데 80여 명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종단을 외호하고 부처님 정법을 실천하는 신실한 우바이로서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여성불자 108인은 "만남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여성불자 108인의 긍지를 살려 교류 협력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펴겠다"고 선서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범어사 주지 선거 '돈봉투' 의혹 파문

KBS 등 보도…총무원장스님 범어사 찾아 선거 일정 논의

"쇄신 계기 삼자" 한 목소리

2월 27일 예정된 범어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의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KBS와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에 보도돼 조계종이 크게 당혹하고 있다.

KBS와 한국일보는 1월 25일 보도를 통해 부산 범어사 주지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일부 스님들이 투표권을 가진 스님들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16일 범어사 주지 선거 후보들을 불러 금권선거를 금지하는 서약을 받고, 금권선거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호법부 차원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종단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금권 선거 의혹이 알려지자 교계단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및 근본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27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부산 범어사를 찾아 주지 후보 예정자 및 범어사 중앙종회의원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선거일정 조정 등을 논의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퇴휴)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과 종단 선거법 강화를 주장했다.

같은 날,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장 만초)도 성명서를 통해 종단 차원의 엄단과 관련자들이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결사추진본부는 이번 일이 결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범어사 선거 등 종단 내 각종 선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각 종 포털과 뉴스 사이트에 댓글을 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한 누리꾼은 "부처님 제자 행세를 하며 목에 힘주고 가면쓰고 행세하는 자는 모두 승복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국민 지탄 직시…선거법 개정 촉구

교구본사주지協, 'KBS 보도' 강력 대응 주문

범어사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이 종단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행)는 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범어사 돈봉투 의혹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엄단을 촉구하고, 종단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범어사 돈봉투 의혹으로 범어사는 물론 종단과 불교계까지 국민들에게 지탄 받는 현 상황을 직시해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범어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해 총무원이 주지대행을 파견하자는 강경안도 언급됐다. KBS가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성토하는 발언도 나왔다.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범어사 보도를 보고 조계종 탈종까지 생각했다. 이번 기회에 선거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종단은 물론 불교계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집행부에 도움을 줄 것은 주고 꾸짖을 것은 꾸짖자"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디지털로도 성철 스님 만난다

탄신 100주년 행사 풍성

한국 현대불교를 대표하는 선승 성철(1912~1993)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올 한해 다채롭게 펼쳐진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최근 "2012년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이 사회에 끼친 영향 모색과 문화아이콘으로 스님을 새롭게 조명하는 사업 등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은 지난해 4차례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스님의 사상과 수행법을 중심으로 학술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성철 스님의 생애를 정리한 〈성철 큰스님 행장〉, 스님의 법어에 사진을 곁들인 〈본래 눈을 뜨고 보면〉 등 서적들은 2~3월 중 출간을 앞두고 있다. 특히, 스님의 일화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동화도 5월경 선보일 예정이다.

불교중앙박물관에서는 3월 8일~6월 3일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유품, 유필, 사진 등이 전시된다. 서예가이자 전각가인 김양동 화백은 '성철스님의 법어 서화전' 개막을 앞두고 있다. 가을께는 박대성 화백이 성철 스님의 행적지와 초상을 수묵으로 그린 전시회를 개최한다.

백련불교재단은 성철 스님의 사상과 IT기술과의 소통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재단은 스님의 일대기 등을 플래시 애니메이션, 비디오 클립,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 등으로도 만날 수 있다.

성철 스님의 행적지를 돌아보는 순례도 3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개최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873호 CONTENTS

종합 2
조계종 총무원 신년하례
진주 성전암 복원불사 다시 시작

대견사지 중창 3
대견사의 역사와 의미
'폐사지' 왜 중요한가

시방세계 5
한마음과학원 교사직무연수

기획연재 13
2013 대불련 50돌

비구니 지도자를 만나다 15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7호 봉선홍경사사적갈비



봉선홍경사갈비

유재영

왕비의 이빨조차 썩지 않는 불멸의 땅
옛 백제의 천안시 서북구 헹겡이벌
고려국 마지막 유민流民 멈춰선 듯 돌비 하나
구름 두른 머릿돌엔 비룡飛龍이 꿈틀대고
받침돌 당초무늬 덩굴손 뻗은 자리
오른쪽 머리 돌리고 눈 부릅뜬 이무기여
해동공자 최충 글을 백현례 해서체로
천년 세월 두고두고 숨을 쉬듯 정갈한 뜻
산 너머 저 뻐꾸기는 아는지 모르는지……
한때는 임금님도 머물다간 큰 절집
정원은 부패했고 나라는 토탄이다
어쩌다 백성들 원성 여기까지 사무쳤나
대웅전도 아미타불도 다 벗어던졌다
없는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홀로 서 들판에 우뚝 그들 보러 나왔구나
살육과 화염에도 타지 않는 민중의 혼
위례에서 곰나루 흙비 오는 길을 따라
오늘도 망이 · 망소이 그 함성을 듣겠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헹갱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흥리
*망이 · 망소이의 난: 고려 무인 집권 때 굶주린 백성들을 모아 망이 · 망소이가 일으켰던 민란의 하나. 그들에 의해 봉선홍경사갈비가 있던 홍경사가 불탔다.

유재영 시인은… 1948년 충남 천안 출생. 1973년 시와 시조가 추천되어 등단. 시집 〈한 방울의 피〉 〈지상의 중심이 되어〉 〈고욤꽃 떨어지는 소리〉 및 시조집 〈햇빛시간〉 등

"화합으로 일하는 분위기 만들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설날 신년하례서 당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부설기관 신년하례가 1월 26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년하례에서 중앙종무기관과 부설기관 종무원 등에게 "화합을 화두로 용맹정진 하라"는 종정 법전 스님의 신년교시를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스님은 "화합은 부서간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부실장에서부터 국장 차장 팀장 행정관 주임까지 충분히 교감하고 배려 · 논의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소통과 화합으로써 각자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정진해 나가자"고 덕담했다.

이날 신년하례는 한글 삼귀의와 한글 〈반야심경〉 봉독, 부처님 통알(通謁), 원장스님 하례, 부실장 스님 하례, 참석대중 맞절, 새해덕담,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신년하례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종책특보단장 원담 스님,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및 부설기관 종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진각종이 1월 23일부터 3월 11일까지 새해49일 불공을 봉행하는 등 각 종단마다 신년하례를 진행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부설기관 사부대중은 1월26일 신년하례를 통해 화합으로 하나된 한해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비구니 스님, 공사 현장서 폭행

트위터 통해 소개돼 일파만파 확산
누리꾼들 "있을 수 없는 일" 분노

경남의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태고종 비구니 스님이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방이 일고 있다.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은 1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전의 밀양 초고압 송전탑 공사장에는 용역들의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방관하고 있었네요. 송전탑을 반대하는 비구니스님을 집단 성폭행하고 70~80할머니들을 개 부르듯이 '워리워리' 하며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이 언급한 태고종 비구니 스님은 2011년 11월 10일 경남 밀양시 산외면 108번지에서 진행 중인 초고압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감리와 공사업체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주민 9명이 공사 저지를 위해 공사 관계자들과 대치중이었다.

한전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69개의 철탑이 밀양에 세워지자 철탑 인근의 주민과 종교인들이 생존권과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대해 왔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의 법당도 송전탑에서 불과 400m 거리에 인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경찰서는 권영길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알린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밀양경찰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권의원님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고소인(비구니스님)은 성추행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고소 내용이었지 통상적인 성폭행 사건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공사 진행을 위한 인부들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마찰을 빚으면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복면을 쓰고 있던 스님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복면을 벗기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박기범 기자**

지원 스님, 추운 이웃에 외투 보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육지장사 주지)이 추운 겨울을 어렵게 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외투를 보시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1월 17일 안성 칠장사(주지 지강)에 겨울 외투와 목도리 등 23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겨울 점퍼 450벌, 바람막이 재킷 120벌, 신발 150켤레 등 월동용품들로, 육지장사 신도 정혜화 보살과 재원 스님이 후원해 마련됐다.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은 포교원장스님으로부터 전달 받은 물품들을 안성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달했다. 일부는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선물한다. **조동섭 기자**

진주 성전암 복원불사 다시 시작

진주시, 허가문제 원점 재검토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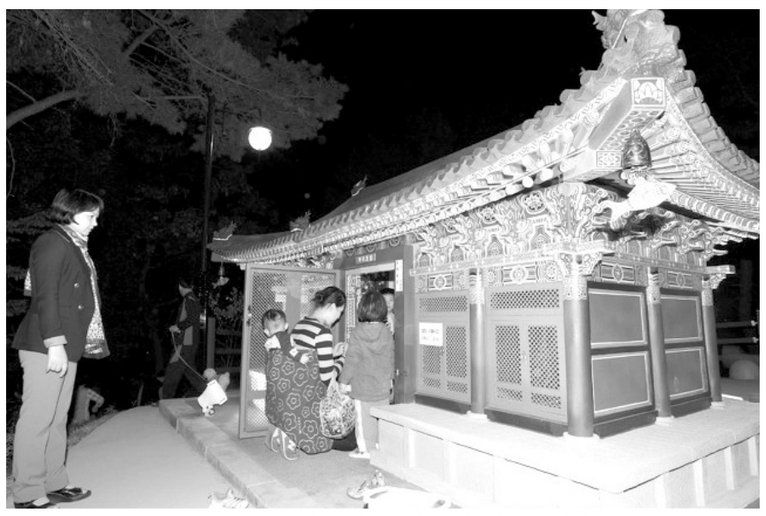
화재로 소실된 전통사찰 성전암의 복원을 불허했던 진주시가 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진주 성전암 주지 성공 스님은 1월 16일 진주시청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허가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도청산지관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성을 풀고 성전암 복원불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성공 스님은 진주시의 복원불사 불허에 항의하며 64일간 시청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날 스님은 "사찰에서 수행하며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수행자가 거리에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달라"며 그동안 농성으로 불편을 겪었을 시민들에게 참회했다.

한편, 성전암은 2010년 5월 방화로 주요 건축물이 소실돼 복원불사를 추진해 왔으나, 진주시의 불허로 2011년 11월 13일부터 지역불교계와 함께 부당함을 호소해 왔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찰

울산 남구가 선암호수공원에 조성한 초미니 절과 교회, 성당 등 3개 종교시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화제다.

울산 남구청(청장 김두겸)은 1월 15일 "최근 초미니 종교시설 3곳에 대한 디자인과 기능에 관한 특허 출원을 위해 세부도면과 사진 등 관련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높이 1.8m, 너비 1.2m, 길이 3m 규모로 2011년 9월 지어진 안민사는 한 사람이 예불을 올릴 수 있는 크기다. 내부에는 공양미 쌀독이 있는데 대박 쌀독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특허 출원과 함께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색적이고 희소가치가 높은 지역 관광자원으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10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 소리과정** : 기본 예불. 도량석. 종성.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 등 전과정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 **작법 · 무용과정**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강 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 초 스 님

- **개강일시** : 2012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 요일** : 화요일 – 작법(무용)과정 : 오후 1시 ~ 오후 3시 / 범패 소리과정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12년 2월 ~ 2012년 3월 5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1–10호 인해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 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동화사-달성군, 대견사 중창 손 잡았다

폐사지 복원에 사찰·지자체 나서
동화사, 중창 비용 및 향후 관리
달성군, 비용 인허가 및 행정지원
일연 스님 22년간 주석한 곳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 집필을 구상했던 신라고찰이었으나 일제강점기 강제 폐사된 대견사의 중창불사가 시작된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성문)와 대구시 달성군청(군수 김문오)이 1200년 전 신라시대 대견사 중창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양측은 1월 20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화사는 중창 소요비용 50억원과 시공 후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달성군청은 국고보조금 및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동화사와 달성군청은 대견사를 역사성과 전통성을 갖춘 국보급 명품 사찰로 중창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대견사는 1200년 전 신라시대 헌덕왕대 창건돼 일제 강점기에 강제 폐사된 사찰로 알려졌다. 특히 보각국사 일연 스님이 고려 고종 4년(1227년)에 초임 주지로 22년간 주석한 곳으로 유명하다. 일연 스님은 대견사에서 참선에 집중하고, 〈삼국유사〉 집필을 구상했다.

대견사지에 현재 남아 있는 삼층석탑은 1988년 복원됐고, 1994년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2년 대견사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펼친 결과 6개동 72평에서 유구 37점이 수습됐다.

동화사와 달성군청은 이런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 대견사를 고려시대 건축양식으로 중창할 계획이다. 또한 폐사 당시 원형을 최대한 복원하면서 대웅전 요사채 종무소 산신각 등을 2013년까지 건립해 개산식을 가질 예정이다.

대견사지가 있는 비슬산(琵瑟山)은 달성군을 대표하는 산으로 주민들이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 명소다. 팔공산이 대구시를 대표하며 많은 대구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비슬산은 달성군민들의 자랑인 것이다.

비슬산은 불교에서 수용된 고대 인도 힌두 신으로 비슈누(VISNU)를 한자어로 음역한 琵瑟怒에서 유래된 말이며, 거문고를 뜻한다는 설이 있으며, 특히, 임금王자가 네 개나 있어, 임금 4명이 배출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비슬산 대견사지 인근에는 참꽃군락지가 100만㎡(30여 만평) 규모로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달성군은 1997년부터 매년 봄 이 곳에서 '참꽃 축제'를 열고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발전시켜 왔다. 분홍빛 참꽃을 보기 위해 봄이며 달성군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참꽃 축제'는 참꽃의 아름다움과 함께 대견사지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달성군 김문오 군수가 양해각서를 들고 환히 웃고 있다.

달성군은 '참꽃 축제'로 유명해진 비슬산의 대견사지를 복원해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성군은 2010년부터 '대견사지 관광명소화 사업'의 기본구상(안)을 확정하고 추진해 왔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에 중창하는 대견사는 일개의 사찰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최첨단 과학 기술과 강정보, 달성보의 수변 경관, 약산온천 관광호텔의 휴양시설, 비슬산의 불교 문화유산 및 비슬산 참꽃 축제 등과 연계해 영남의 대표적 관광·문화·예술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도 "대견사는 일제에 의해 강제 폐사된 민족 수난사의 일부분으로 민족의 정기를 다시 세우고 국운융숭을 기원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국보급의 명품 사찰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인 경일대학교 장석하 교수는 "이번에 중창하는 대견사는 전국 최초로 불교계와 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 폐사지 원형에 준하는 사찰로 중창하게 된 경우다. 조계종 본산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현장'

'폐사지' 왜 중요한가
5400곳 중 국가사적 35곳

폐사지는 불교를 떠나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도 폐사지 답사와 연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화재청(청장 김찬)과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미등)가 2010년 12월 발간한 〈한국사지총람〉에 따르면 전국의 사지는 5393곳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0~2014년까지 전국 폐사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조사 중이다. 이중에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폐사지가 35곳, 시도 기념물이 61곳, 문화재 자료가 7곳이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곳 중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 경상북도 경주의 황룡사지이다. 사적 제6호로 지정된 황룡사지는 진흥왕 14년(553년)에 궁궐을 짓다가 황룡이 나타나 절로 고쳐 짓기 시작해 17년 만에 완성했다고 전해진다. 진평왕 6년(584년) 장육존상을 봉안하기 위한 금당을 짓고, 진덕여왕 12년(643년)에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자장율사의 권유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구층목탑을 짓기 시작했으며 백제 장인 아비지에 의해 645년 완공됐다. 황룡사는 93년에 걸친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큰 절이었으며 황룡사 구층목탑과 장육존상은 신라의 삼보였다. 고려 고종 25년(1238년)에 몽고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흔적만 남았다. 1976년 발굴조사가 시작됐으며 금동불입상 등을 비롯한 많은 유물이 출토됐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금당에 솔거가 그린 벽화가 있었다고 전한다.

사적 제31호이며 국보 제112호로 지정된 감은사지도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하고 있다. 감은사는 신라 30대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뒤 왜구의 침략을 막고자 세우기 시작해 신문왕 2년(682년)에 완성했다. 또한 문무왕의 유지를 받들어 장사한 곳이 절 부근의 대왕암이며,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 했다. 감은사는 황룡사, 사천왕사와 함께 호국사찰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보로 지정된 석탑 2기와 금당지의 유지가 남아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를 통해 강당, 금당, 중문이 일직선상에 배치되고 쌍탑이 금당 앞에 배치되는 통일신라 전형의 가람배치를 밝혀냈다. 이는 삼국통일 직후 조영된 쌍탑가람의 최초의 예로 꼽힌다.

수학여행의 단골코스 중 하나인 경주 보문관광단지에는 사적 제390호인 보문동 사지를 만날 수 있다. 창건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문왕 11년(871년)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에 '普門寺'명문 와편이 확인돼 사명이 밝혀졌다. 서탑지와 금당지가 육안으로 확인되며 쌍탑이 있던 흔적이 육안으로도 확인된다. 근처에 당간지주가 남아 있으며 석등재, 초석, 탑지 등이 남아 있고 통일신라시대의 화강암 석조가 있다.

사적 제168호 원주 거돈사지는 사찰의 창건과 관련된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선종계 사찰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1세기 초엽 고려 현종의 왕사였던 지종(智宗)이 거돈사에서 입적하고 국사 칭호를 추증하면서 이곳에 탑과 비를 세웠다. 중앙부에 자리잡은 금당기단의 남쪽에 보물 제750호로 지정된 신라 전형양식인 삼층석탑이 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사지의 동남쪽 끝에는 보물 제78호로 지정된 원공국사탑비가 잔존한다. 사지 북쪽 끝에는 보물 제190호 원공국사승묘탑의 유허가 있다. 나말여초의 절터로는 보기 드문 일탑식 가람이 특징적이며 고려시대 청자, 막새기와 백자편 등이 출토됐다. 특히 고려청자는 압출양각기법의 양질 청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고려 전기 거돈사의 사격과 사세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중요한 역사 자료·문화 산실
조사된 사지만 5393곳
경주 황룡사지 등 국가 사적 많아
현재도 폐사지 현황 조사 중

사적 제259호 선원사지는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하고 있다. 선원사는 강도(江都) 시대의 실력자 최우(崔瑀)의 원찰로 한때 그 규모를 자랑했던 거찰로 〈고려사〉등에 자주 등장한다.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고려는 도읍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 궁궐을 비롯한 여러 건물뿐만 아니라 대몽항쟁을 위한 국민 총화의 일환으로 선원사를 세웠는데, 당시 송광사와 함께 2대 사찰로 손꼽힐 정도로 중요한 사찰이었다. 사찰에는 금붙이로 만든 불상 500기가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 동국대 조사단에 의해 1996년~2001년까지 발굴됐으며 벽돌, 기와, 치미 등 다양한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충북 청주시에는 사적 제315호 흥덕사지가 있다. 흥덕사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쇄물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1377년)을 찍어낸 사찰이다. 흥덕사는 조선시대 지리지에는 나타나지 않아 조선시대에 들어서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5년 발굴조사에서는 금당지, 서희랑지, 강당지, 부속건물지들이 확인됐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

대견사(大見寺)는…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 구상한 곳으로 유명


비슬산 대견사지에 남아있는 삼층석탑

신라 천년 고찰, 임란때 전소
1900년 중창…1917년 일제 폐사
1988년 대견사지 삼층석탑 복원

대구 달성군 비슬산 해발 1000m 지점에는 절벽 끝에 세워진 삼층석탑과 주춧돌만 남아 있는 넓은 공터가 있다. 〈삼국유사〉를 저술한 보각국사 일연 스님이 22년간 주석한 대견사터이다.

대견사 원래 명칭은 보당암(寶幢庵)으로 신라 흥덕왕 때인 810년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사찰에 대한 자세한 연혁은 알 수 없으나 〈태종실록〉 태종 16년(1416년) 2월 조와 〈세종실록〉 세종5년 (1423년) 11월 조에 대견사의 장육관음석상이 땀을 흘렸다고 조정에 보고된 기록이 남아 있다.

구전에 따르면 당나라 문종(826~840)이 절을 지을 곳을 찾던 중 세수를 하려고 떠놓은 물에 아름다운 경관이 나타났다. 그곳이 절을 지을 곳이라 생각한 문종은 사신을 파견해 물속에 비친 곳을 찾게 했다. 중국에서 찾지 못하자 신라로 사람을 보냈고, 그렇게 찾아낸 곳이 보당암이었다. 이처럼 '대국에서 보였던 절터'라고 해 대견사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대견사는 고려 고종 4년(1227년) 일연 스님이 22세 나이로 승과 선불장에 장원급제해 주지로 부임한 절이다. 스님은 이곳에서 22년간 머무르면서 간화선에 몰두했고, 〈삼국유사〉를 구상한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때 전소됐다가 1900년 중창했으나 1909년 다시 폐허화됐다. 1912년 동화사 말사로 편입돼 번창하다가 1917년 일제가 강제 폐사 시켰다.

사지는 절벽에 평탄지를 닦아 사찰을 조성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기단 석축렬과 대좌로 추정되는 연화대석이 남아 있다. 2004년 영남문화재연구원 시굴조사 결과 추정 건물지 6동, 적심 등을 확인했다. 대견사지 삼층석탑(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2호)은 높은 벼랑 끝에 건립돼 있으며 이중기간에 3층 탑신을 올렸다. 자연암반을 지대석으로 삼고 있으며 통일 신라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8년에 사지 내에 무너져 있던 것을 복원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1600년의 역사성을 지닌 한국 전통 불교 의식은 한국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전개하는 見機而作形 의식이 정착되어 점차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고 올바른 어산 법맥을 통한 스승의 가르침 없이 행해지는 수많은 소리와 작법이 존재하여 전통 불교 의식 전수에 장애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의 인가를 받아 대한불교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원명스님을 중심으로 전통 불교 의례를 보존·전승하고 올바른 水陸齋儀를 재현하여 불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 여법한 불전 예식 봉행과 재 의식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시대적 요구와 종단 5대 결사에 부흥하여 의식·의례의 한글화 작업 및 재현 연구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교수사

■ 학장 : 동주원명스님
(어산·수륙작법·수륙무차평등재·천지명양수륙재)
· 대한불교 조계종 어산어장
· 재단법인 보리동산 이사장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조교

■ 학감 : 정오스님 (상주권공·수류무차평등재·한글의식)
· 대한불교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 대한불교 조계종 한글의례실무위원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교수 : 현준스님 (불교무용)
· 대한불교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 대한불교 조계종 구족계단 예식교수사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교수 : 도경스님 (불교무용)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 동방대학원대학 불교문예전공 박사과정

■ 외래교수 : 혜일명조스님
(의식장단·의식이론·한글의식·수륙재연구)
·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 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음악학전공 철학박사
· 불찬범음연구소 소장

교육내용

학과목	교육내용
상주권공 1년차	할향·등게·삼정례·합장게·개게·헌좌게·참회게·가지게·축원·회향성·
상주권공 2년차	시련·대령·관욕·신중작법·시식
불교의식장단 1년차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굿거리·법고·동당쇠·천수바라
불교의식장단 2년차	사다라니·관욕·내림게·화의재·재의식 공통 반주·무용 공통 반주
불교무용 1년차	복청게·도량게·요잡·관욕·다게·천수바라
불교무용 2년차	사다라니·향화게·긔경·명발·내림게·회심곡
불교의식연구 1년차	현행 불교 의식의 전개·천도재·영산재·예수재·수륙재·상단시련·중단시련·하단시련
불교의식연구 2년차	풍백우사단작법·찬청가람신작법·당산천왕단작법·당산용왕단작법·예적단작법·범왕단작법·제석단작법·사천왕작법·성황단작법
한글불교의식 1년차	예불의례·반야심경·발원문·도량석·종성·천수경
한글불교의식 2년차	시련·대령·관욕·신중작법·삼보통청·관음청·지장청·불공·시식
수륙작법 1년차	수륙무차평등재·천지명양수륙재
수륙작법 2년차	자기문·지반문·예수작법·영산작법

모집인원 및 편제

과정	모집인원	편제
전문과정	00명	2년제
연구과정	00명	2년제
기능과정		1년제

전형일정

구분	날짜	장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1. 12. 26(월) ~ 2012. 2. 25(토) 17:00	·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 및 접수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	2012. 2. 27(월) 14:00	· 본교 강당 및 강의실
합격자 발표	2012. 3. 2(금) 14:00	· 본교 홈페이지 · 개별통지
합격자 등록	2012. 3. 2(금) ~ 2012. 3. 4(일) 17:00	· 납부계좌 : 전통의례전승원 (실명입금 후 연락요망)
입학식	2012. 3. 6(화) 14:00	

지원자격

1. 전문과정의 입학자격은 대한불교 조계종단의 비구, 비구니로 한다.
※은사스님을 시봉할 목적으로 기본 교육 과정에 입학하지 않은 사미, 사미니의 경우 한 학기의 청강을 허락할 수 있다.
2.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 학교 전문과정 졸업자 ② 타학교 불교의식 과정 졸업자
③ 불교 의식 및 문화 관련 학과 사회 대학 졸업자
3. 기능과정의 입학은 본 학교 연구과정 졸업자에 한한다.
(단, 개방형과정 신설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재가불자의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4. 타 종단 스님도 청강할 수 있으며 수료 후 학장스님의 수료증을 수여함.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입학 원서 2. 승적 증명서 3. 수행 이력서 4. 자기 소개서
5. 이전 과정 졸업증명서 6. 추천서(기본교육과정 학장의 추천서)
7. 연구과정 지원자의 경우, 불교 의식 관련 교육 기관의 졸업 증명서

전형료 60,000원

특 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전문과정 22학점, 연구과정 24학점으로 하며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먼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와 졸업 평가(논문 혹은 고사)에 합격한 자로 한정한다.

1.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이 발급하는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졸업장을 학교장의 명의로 수여한다.
2. 연구과정 졸업자는 실기(논문) 평가 후 교무회의를 거쳐 어산어장스님이 이수증을 수여하고 어산법맥을 전수(전강)한다.
3. 재학 중 성적우수자에게는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4. 졸업자에겐 대한불교 조계종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장 동주 원명 홈페이지주소 : 주소창에서 kbtca.or.kr / 전화 02)2658-3200 / 팩스 02)2063-3344

일 주 문



현성 스님, 정월 불우이웃돕기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1월 1일 안양교도소 재소자 2500명에게 떡국 대중공양을 베풀고 서대문구 불우이웃에게 쌀 50포대를 보시했다.



제5회 저소득층 장학금 전달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월 30일 KBS한국방송과 함께 고운사에서 제5회 저소득층 장학금 전달 및 문화탐방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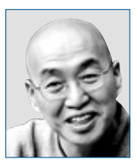
정범 스님, 보현의집 원장으로

서울 옥천암 주지 정범 스님은 구랍 19일 노숙인 보금자리 보현의집 원장으로 부임했다.



일감 스님 8번째 내비둬 콘서트

김제 금산사 템플스테이 원장 일감 스님은 2월 25~26일 금산사 내비둬 콘서트와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정토회 미주강연 희망세상 만들기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2월 3일 미국 LA에서 '2012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미주강연-희망세상만들기'를 개최한다.



대불련, 겨울 템플스테이

최경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2월 9~12일 충주 석종사에서 겨울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힘 닿는데 까지 계속 뛸겁니다"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 베트남 500㎞ 완주



'달리는 스님'으로 유명한 진오 스님(앞)이 '베트남에 108개 화장실 지어주기' 기금마련을 위해 베트남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 한국-베트남 관계개선을 위한 저의 마라톤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해 울트라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온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이 1월 6~13일 베트남에서 진행한 500㎞ 마라톤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시골 초등학교 108개 화장실 지어주는 '자비의 해우소 신축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것.

진오 스님은 8일간 김영화·황철수·정정하 씨 등 대한울트라연맹 회원 6명과 함께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60~88㎞를 달려 베트남 탱화성(300㎞)과 경상북도 자매결연 도시인 타이응웬성(200㎞) 등 500㎞ 구간을 완주했다.

진오 스님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 절반이 사라진 베트남 이주노동자 토안(28) 씨의 뇌 복원 수술에 필요한 후원금 마련과 이주노동자들에게 생명의 헬멧 보내기 등을 위해 마라톤 도전을 했다. 지난해 4번의 울트라 마라톤 등 모두 10차례의 마라톤을 완주해 '달리는 스님'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 마라톤을 위해 진오 스님은 토안의 고향인 탱화성을 찾아 달렸고, 토안의 모교인 찌오판 초등학교에 화장실 1호를 신축했다.

진오 스님이 화장실을 짓는 이유는 2012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직 응어리 진 베트남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감정을 풀기 위한 이유가 크다.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의 만행을 기록한 증오비(憎惡碑)가 베트남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앙금을 풀어보고자 근심을 해소 한다는 뜻에서 해우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모르는 척 덮어버리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진 빚이 너무 크거든요."

진오 스님의 500㎞ 마라톤은 베트남에서도 화제가 됐다. 현지 방송사에서 진오 스님과 울트라마라톤 회원의 마라톤을 촬영했으며 타이응웬성과 탱화성 경찰의 호위 덕분에 진오 스님과 회원들은 무사히 완주를 할 수 있었다.

진오 스님은 "마라톤을 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화장실을 짓는 데 한화 200만원의 비용이 들어 2억 원이 넘는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힘 닿는데 까지 마라톤 모금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오 스님은 2021년까지 10년간 108개의 화장실을 신축하기로 발원하고 지원 대상 마을을 찾아 108㎞를 달릴 예정이다. 오는 8월에 베트남을 찾아 108㎞를 뛸 예정이며 9월에는 독일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700㎞ 울트라 마라톤 완주를 시도할 계획이다.

후원계좌: 농협 301-0088-4874-71 (예금주: 꿈을 이루는 사람들)

(054)458- 0755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복장 의례 되살릴 터"

복장장구 최초 복원한 김명환 유상아트 대표



"불상 조성 시 사리나 다라니 등을 넣는 복장물은 성보에 생명을 불어 넣는 일입니다. 65개 복장품목을 비롯해 복장의식을 복원하는 것은 불교 전통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될 것입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시작돼 불교의례로 자리 잡았지만 현대에 들어서 각 사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던 복장물 장구가 3년간의 연구과정을 거쳐 복원·규격화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의 불교 무형문화재 조사와 의례 연구 로드맵 일환으로 복장물 실태조사가 진행될 가운데 발표된 성과다.

유상아트(대표 김명환)는 최근 최태성 중앙승가대 교수, 중앙승가대 박사과정의 세림 스님과 함께 금강산 유점사본 〈조상경〉(1824)을 근거로 복장물 의례절차와 장엄구를 복원해 '불복장 장엄구 세트'를 개발했다.

불복장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담은 사리함이나 불경을 비롯한 각종 전적, 다라니, 의복, 그리고 불상을 조성한 사람들의 기원을 담은 발원문 등이 들어간다. 복장에 관한 경전인 〈조상경〉에는 불상 등에 복장을 넣는 취지와 함께 복장에 들어갈 물품과 그 크기와 개수, 넣는 방법까지 자세히 밝혀 놓고 있는데 청·황·적·백·흑의 오색실이나 오색번, 오향과 오약, 오곡 등을 넣어 봉안해야 한다. 복장물 중 하나인 후령통에 담기는 물품을 제외하고서만도 65개에 달한다.

45년간 황동, 청동 주물로 유기, 범종, 대장경 동판 등을 제작해온 김 대표는 최 교수의 추천으로 제25회 불교미술대전에 출품한 후령통이 입선하며 본격적인 불복장 장구 규격화에 나섰다. 유상아트는 특허 출원 하는 한편 연구진과 함께 2011년 9월 중앙승가대에서 복장의식 복원 시연을 펼치기도 했다.

유상아트 복장장엄구세트에는 ▷각 13종의 물목을 담는 오보병 5개 ▷오보병을 담는 후령통 ▷오방경 ▷팔엽연화 ▷양면원경 ▷사리함이 금장으로 구성돼있다.

김 대표는 "복장장엄은 색을 규정한 오방색부터 현재 경전에 일치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 또 경전에 나타난 물목을 구하기 힘들어 의례의식에 맞추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한 상품을 넘어 복장장엄구세트가 불복장의례 복원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www.yoosang.co.kr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유상아트가 개발한 복장 장엄구 세트

법현 스님,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는 한국음악과 교수 법현 스님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됐다고 밝혔다.

법현 스님은 ABI 미국인명정보(2012년), IBC 영국캠브리지국제인명센터(2011-2012년), 미국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2012)에 모두 등재됐다.

법현 스님은 현재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불교음악연구소장, 코리아나예술단장, 태고종 문화종무특보, 세계문화예술콘텐츠교류연맹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법현 스님은 불교음악과 무용관련 4권의 저서와 43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50여 개국에서의 불교문화 공연을 해왔다. 2000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악보로 꼽히는 불교 음악 악보인 각필악보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으며, 2003년 영산재학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법현 스님은 "한국 불교를 불교문화예술로 세계화시키고자 한 노력을 인정 받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월 16일 준공된 동국대 경주 캠퍼스 커팅식. 신기숙사는 지상 9층 규모로 342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기숙사 및 사라림 준공

재학생 2000여명까지 수용

동국대 경주캠퍼스 기숙사 및 비구니 학인스님들의 수행관 공사가 마무리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는 1월 16일 '신기숙사 및 사라림' 준공식을 교내 백상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 동국대 이사 성타 스님(경주 불국사), 최양식 경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비구니 학인스님들 수행관인 사라림은 면적 316.24㎡(96평), 연면적 1373.45㎡(416평)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6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신기숙사는 면적 1050.63㎡(318평)에 연면적 7203.22㎡(2179평)로 지상 9층 규모로 171실(2인 1실)로 구성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이날 두 시설의 준공식으로 재학생의 23%인 2000여 명의 기숙사 생활이 가능케 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신라는 화랑을 육성하여 삼국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불교가 우리 지도이념이 되려면 젊은 불자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1,500년전 신라는 화랑도를 설치하여 젊은이들에게 군사훈련과 함께 불교를 가르쳤습니다. 화랑들은 훗날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젊은 세대들이 불자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전국 군부대의 1,600개 종교시설 중 군법당은 410곳에 불과하며, 군승법사는 13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국 350개 대학 중 불교학생회가 조직된 대학은 144개에 불과하고, 여기서 불교활동을 하는 대학생은 2,000여명에 불과합니다.이에 본회는 젊은 불자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불을 설립하고, 이번에 젊은 불자 육성 발원법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대학에 학생불자와 불교동아리가 꽃 피어야 합니다.
군승법사 없는 군법당에도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져야 합니다.

젊은불자육성 발원대법회

일시 : 2012년 2월 18일 오후 3시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공연장

[주요 프로그램]

주제발표:왜 젊은불자에게 기대하는가?
젊은불자 육성사업 실적보고
젊은불자 육성사업 증진계획 보고
대학생 불자들의 국악연주와 율동
만해시 낭송 "당신을 보았습니다" 외
대불련 동문들의 성악, 춤, 연주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 문의 (02) 720-1963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사단법인 대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4-1번지 한국수입업협회빌딩 4층
E-mail : cogenlee@hanmail.net
전화번호 : 02)720-1963 팩스 : 02)3483-0772

“한마음 대화법 알고 나니 아이들 달라보여요”

최근 사회적으로 왕따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학교폭력 · 왕따 문제로 학생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자 교육당국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시급히 나서고 있다.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과 함께 각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문제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한마음과학원(원장 대행)은 1월 9~13일 겨울방학을 맞아 안양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에서 교사들을 위한 직무연수 ‘교실의 행복-한나무인성교육 교사연수’(이하 교실의 행복)를 실시했다. ‘교실의 행복’은 인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학생지도 및 학급운영방법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사연수에서는 ‘마음’을 주제로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내가 먼저 행복해지자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생각이요.” “사랑이요.”

강연자의 질문에 교사들은 어린이들 마냥 신나서 대답한다. 강연자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까 노심초사하는 교사들의 모습은 여느 학구파 학생들보다 더 열성적이었다.

“마음은 마음 내기에 따라 다르며, 마음은 쓰는 대로 나옵니다. 선생님들께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아이들도 함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김인옥(본원초) 교사가 직접 교육현장에서 적용했던 마음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자, 한마음과학원 ‘교실의 행복’에 참가한 13명의 교사들 눈빛이 진지하게 바뀌었다.

김 교사는 “자신이 갖고 있던 마음가짐에서 벗어나게 되면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된다. 나를 열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소통을 할 수 있다”며 “교사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인성은 결국 마음 씀씀이에서 비롯된다. 5일간 매일 6시간씩 진행된 ‘교실의 행복’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내고, 활용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이다.

‘교실의 행복’은 ▷문제아는 없다 ▷다르게 세상보기 ▷문제관점에서 벗어나기 ▷생명으로 가득한 나 ▷나 다르게 보기 ▷내가 행복해야 교실이 행복하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공생의 신 ▷운명을 바꾸는 마음의 힘 ▷마음의 원리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한마음 대화법 ▷서로를 살리는 공생의 힘 ▷변화하는 나 ▷행복한 교실 만들기 등 주제강의를 비롯해 수업시연, 인성교육실습, 그룹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강연에는 교육 · 과학 · 사회복지 · 인문학 전문가들이 나서며, 인성교육실습 시간을 통해서는 현직의 교사들이 직접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용시켰던 인성교육 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은 교사가 학생지도를 할 때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연출해 토론, 교육연극 등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사들은 강연자가 제시한 상황에 맞춰 자신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한마음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실의 행복’에 참가한 교사들의 모습

교사가 먼저 마음 열어야
학생들도 신뢰 갖고 마음 열어
현직 교사들 정보공유 통해
행복한 교실 만들기에 활용

인성교육실습인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한마음 대화법’에서는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 거짓말을 일삼는 아이들의 사례를 들며,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의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로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혼나는 것이 두려워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거짓말 일삼는다. 이때 이런 아이들의 본질적인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결국 인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문미향(수리고) 교사는 “교사가 아상에 사로잡히면 학생의 진심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한마음과학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의 권위만 내세워 학생들의 문제를 바로보지 못하는 오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실의 행복’은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방안 등을 동료교사들과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정규열 한마음과학원 팀원은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진과의 피드백이 굉장히 잘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정규열 씨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사들은 하루의 프로그램을 마치면 과제를 받은 후, 다음 날 그룹토의 시간을 통해 과제를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 간 정보공유가 많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한마음과학원의 ‘교실의 행복’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승인을 받은 교사연수프로그램으로 2004년부터 진행된 ‘한나무 인성교육’이 모태이다.

‘교실의 행복’은 교사인 내가 먼저 행복해야 우리 교실이 행복해진다는 모토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스스로에게 갖춰진 내면의 힘을 자각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제로 ‘교실의 행복’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 교사 자신부터 삶과 마음을 돌아보길 권유하고 있다.

정규열 씨는 “교사들이 진실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학생들도 자연스레 선생님의 말을 긍정하게 된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대수용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미향 교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나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게 됐다. 한마음과학에서 실시하는 ‘교실의 행복’은 마음이란 주제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설명하고 있어 신뢰성을 지닌다”라며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른 선생님들께도 추천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교사는 “현대의 청소년들은 오로지 경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때문에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내 자신부터 바뀌어 아이들의 지친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한마음과학원은 ‘교실의 행복’ 프로그램을 공교육 현장에서 더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급 ·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정규열 씨는 “현재 대안학교 등에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인성교육은 소통하며 치유하는 것”

김영래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부정적 마음갖고 있으면
그 마음에 지배돼 버려
좋지 않은 기억 빨리 털어내고
자신부터 먼저 마음을 열어야

“현재 교육현실의 위기가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004년부터 한마음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로 참여해 온 김영래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현재의 교육현실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래 교수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의 문화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흡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성세대는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지위를 통해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느냐에 관심을 더 많이 두었다. 이런 기성세대의 사고방식들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유착된 것”이라며 “아이들이 왕따나 학교폭력을 일삼는 것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지위적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중 ·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 왕따를 당해본 유경험자 80% 이상이다”며 “초등학교 당시 자신의 당했던 분노가 폭발돼, 일종의 생존전략으로 타 학생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 교수는 이번 교수직무연수 프로그램에서 ‘운명을 바꾸는 마음의 힘’을 주제로 강연했다. 우리가 마음의 부정적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에 지배된다. 김영래 교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격형성이 자연스레 형성됐다 생각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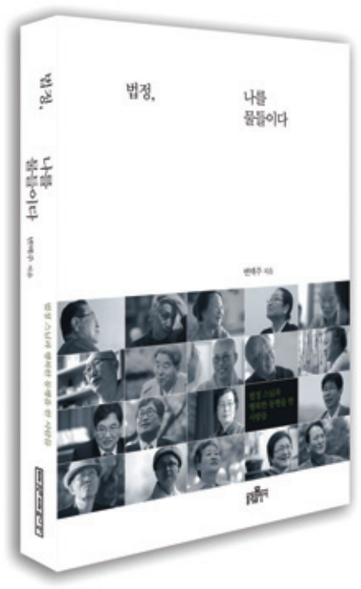
김영래 교수는 자신도 유년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유년시절부터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던 김 교수는 자연스레 선생님들의 예쁨을 받으며 동시에 친구들의 시기를 사게 된 것이다.

김영래 교수는 “당시 집단 괴롭힘을 당했을 때 굉장히 괴로웠다.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고 점차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 삶의 일부에 당시 안 좋았던 기억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됐다”며 “한마음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면서 내 자신이 가장 많이 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치유와 소통이다. 나를 신뢰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상대로 나를 신뢰할 수 없다.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도 자신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다.

김영래 교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참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지금 청소년들은 자존감도 낮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며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는 어려서부터 안 좋았던 기억이 많이 응어리 졌기 때문이다. 좋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털어버려야 소통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 교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교사들이 대체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드러내 기분이 좋다. 하지만 현재 교육이 불교적인 장소에서 이뤄져 이를 꺼려하는 교사들도 많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스님과
행복한 동행을 한
사람들

법정, 나를 물들이다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 와 있느냐?”

꽃은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 그곳에다 모두 내맡긴다.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변택주 지음 | 352면 | 15,000원



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화해

〈화〉 이후 9년, 틱낫한 스님
마음 치유 이야기의 결정판!

“당신 안의 아이와 화해하라.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틱낫한 지음 | 진우기 옮김 | 240면 | 13,000원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 www.facebook.com / bulkwang 불광출판사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15분 명상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언제 어디서나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본격 생활명상 입문서! 숨 쉬고 걷고 울고
화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상이 곧 명상

잭 콘필드 지음 | 추선희 옮김 | 156면 | 12,000원



도법 스님의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의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날마다 좋은 날 만드는 10가지 방법
3만 리를 걸으며 8만 명의 사람을 만나
도법 스님이 깨달은 생활을 위한 지혜

도법 지음 | 280면 | 13,800원



무비 스님이 전하는 이 시대 희망의 메시지

당신은 부처님

“마음이 부처라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 몸이 부처다.
깨치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 부처인 시대가 왔다.
지금 부처로 살지 않고 어느 세월에 부처로 살겠는가?”

무비 스님 지음 | 168면 | 9,000원

문화재 지정 넘어 사회적 확산 고민해야

불교 연등회가 1월 27일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 됐다. 유형문화재에 이어 무형문화재 분야에서도 한국불교의 문화적 가치가 인정받은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지정 여부가 불교 무형문화 발전의 필수조건은 아니라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문화재 지정 예고로 연등회의 지속적 발전 방안마련이 더욱 중요해졌다.

의식 · 제례 소홀 무형문화발전 저해
조계종, 올해 안 로드맵 수립 계획

무형문화유산은 우리 사회의 정신문화 발전과 생활 속 불교 확산에 기여한다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대표적 불교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의 국가문화재 지정은 그동안 불교계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문화재청은 지난 해 7월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을 보류한 뒤 몇 차례 관련 회의를 열었으나 해를 넘기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정부의 전통문화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결국 불교계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라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연등회를 비롯한 불교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불교계 관심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불교 무형문화유산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태고종 영산재가 유일했다. 유형문화재의 60% 이상이 불교문화유산인 것과 대조적이다.

불교계에서는 이런 대조적 현상이 수행 중심의 풍토에서 빚어진 무형 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정부의 불교 몰이해, 종교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평가 기준 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국불교는 간화선을 통한 수행이 중심이 되면서 의식과 제례 등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 왔다. 불화를 그리거나 바라춤 등을 추는 스님을 비하하며 수행자의 본분에 어긋난다고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종단 내 큰스님들이 비구 · 대처 분쟁 등 고비 때마다 수행을 강조하면서 불교계의 의식은 점차 쇠퇴해 갔다.

한 스님은 "과거에는 바라춤을 배우기 위해 익히고 있으면 선방 스님들이 무당이나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며 무형문화에 무관심했던 풍토를 지적했다.불교계 내부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무관심과 근본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문화재청은 2010년 4월 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인정을 위한 조사 · 평가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표준화하고, 계량화된 평가를 토대로 문화재 지정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11년 1월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에 관한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그동안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 내용과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신설된 규정은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에 따라 조사 항목이 사전에 설정돼 있다. 예를 들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단체종목의 무형문화재일 경우 23개 조사 항목과 분야별 (음악, 무용, 공예, 민속) 실기능력을 조사받아야 한다. 주관적 평가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인 것이다.

문화재청은 "조사 항목을 사전에 확정하고 평가 결과를 계량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평가결과와 관련된 민원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계량화된 평가 기준에 종교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불교 무형문화유산의 무형문화재 등록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미등 스님은 "불교에서는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일상의 모든 행동이 수행이다. 이런 특성이 반영된 것이 불교무형문화다. 일반 무형문화와는 분명히 다름에도 획일화된 평가 매뉴얼로 무형문화재를 지정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종교적 특성이 반영된 평가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이런 매뉴얼이 개발되지 않으면 불교무형문화의 문화재 등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미등 스님은 무형문화재 등록이 불교무형문화 발전과 육성을 위한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문화콘텐츠 계발을 통해 일반 사회 곳곳에 불교무형문화의 정신을 투영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스님은 "불사를 위한 문화재는 바람직하지 않다. 삶 속에서 불교가 숨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열장 속에 갇혀 있는 문화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계종도 불교무형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 종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무형문화재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재가 유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굴 및 연구 활동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불복장 의식 등 종목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계종 문화부 박상준 팀장은 "불교 문화재 전반의 계승, 발전, 발굴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안에 무형문화재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불교 DNA확산 중요"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미등 스님



"문화는 사상을 일반인들의 삶 속에 넣는 작업입니다. 문화재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교 DNA를 사람들의 삶 속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등 스님(사진)은 불교무형문화를 발전시키는 최종 목표가 문화재 지정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불교무형문화가 사회 곳곳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님은 그 예로 〈심청전〉, 〈별주부전〉을 꼽았다. 이 두 작품은 불교적 사상이 강하게 반영된 작품들이다. 그만큼 과거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불교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성서 판소리가 생겨날 만큼 사회 전반에 기독교적 색채가 강하다. 박동진 명창의 '예수전'은 한국 판소리 최초의 성서 판소리로 기록돼 있다.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음악과 미술은 서양의 기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많다. 중국이 아리랑을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했지만 우리는 내 고장의 아리랑조차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미등 스님은 "불교무형문화의 쇠퇴와 함께 불교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문화콘텐츠 개발과 학술 연구를 통해 일반인들의 삶 속에 불교무형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문화재 지정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문화재청 후속 지원 필수"

영산재 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



영산재 보존회 회장인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사진)은 영산재 등 불교계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영산재 보유자가 부족해 계승 및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문화재 지정보다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일운 스님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니 문화재청의 계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영산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 밖에도 전승회관 건립, 관광콘텐츠 계발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있다. 영산재를 생명력을 갖춘 불교무형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일운 스님은 불교무형문화의 문화재 지정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는 각 종단이 협력하고 공유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등회는 조계종, 영산재는 천태종으로 구분하지 말고 불교 전체의 무형문화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님은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전에 외국에 자주 나가서 공연을 하고 학술대회를 한 것이 주요했다며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을 준비해야하는 연등회에 이런 노력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운 스님은 "문화재 및 세계문화유산 지정 후에도 보존 및 발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길이다. 불교문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불교 무형문화재 세계적 문화 예술로

해외 공연, 학술대회 통해 홍보
계승 보존 · 발굴 · 재창조해야

영산재는 불교계 유일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이면서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연등회의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로 불교 무형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계문화유산까지 등재된 영산재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된 영산재는 학술 세미나 및 다양한 공연을 통해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렸다. 그 결과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1968년 전국 무형문화재 실태를 연구하던 서울대학교 연구진은 3일 동안 직접 봉원사(주지 일운)에 머물면서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연구진은 영산재의 힘찬 소리와 고저음이 뚜렷한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영산재는 또 국내외 학자를 초청한 학술세미나에도 적극적이었다. 연구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이론 체계와 학술적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에 전파됐다.

일운 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만족하지 않고 영산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면 영산재를 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영산재의 문화콘텐츠 개발의 인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미 해외 공연을 통해 세계인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자산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이다.

김영렬 前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외래교수는 자신의 저서 〈영산재의 문화콘텐츠 만들기〉에서 "현대적 재해석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재창조를 통해 공연 영역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산재 원형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토대 위에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세계적인 문화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운 스님은 "우리만의 문화재로 그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영산재와 불교문화의 의미를 세계인들과 공유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천 의 선 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 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염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말기암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가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함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묻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의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요.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

관리 인력 확충·재난예측 지도 제작

문화재청 2012년 신년계획…국보 등 597개소에 1000명 배치

문화재 현장관리 인력이 대폭 늘어나 국가지정문화재의 재난예방 관리가 강화된다. 또, 문화재 훼손 요인 및 관리상태를 과학적인 지표로 분석 정리해 재난피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문화재 재난위험지도가 개발된다. 이 지도가 개발되면 재난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예방관리대책 마련으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월 12일 신년기자간담회와 2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재난예방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597개소에 1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국보 ·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가 있는 121개소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362명 안전경비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게 된다.

안전 경비인력 배치사업은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국보 ·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했다. 문화재청은 방화관리 자격증 소지자, 문화재 안전경비 경력자, 문화재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선 채용한다. 또, 산간오지나 폐사지 등과 같이 문화재 관리가 취약한 476개소에도 638명의 특별관리 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재난피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문화재 재난위험지도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안전기준과는 "최근 홍수 태풍 화재 지진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무분별한 토지개발, 급격한 도시화 등 인위적 재난 유형과 범위가 복잡 ·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사전 위험예측을 통한 예방관리방안 마련의 하나로 문화재 재난위험지도 개발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재난위험지도는 각종 재난정보와 문화재 관리상태, 속성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위험을 지수화해 개별 문화재 재난위험 정도와 관리상태를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지도상에 시각화한 것으로, 계기별 재난예방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2015년까지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발생통계, 발생가능정보, 실시간 기상정보, 지형 및 산림환경, 문화재 관리상태 등을 분석한 재난위험지도를 개발하고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 · 보완하여 문화재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탈리아는 1990년대 초반부터 문화재 재난위험지도 제작에 착수했다. 현재 지정문화재는 물론 문화재 수장시설(박물관, 미술관)까지도 각종 위험정보와 문화재 상태를 나타낸 문화재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문화재보호 및 재난예방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 중이다.

한편, 문화재청 2012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예비문화재 인증을 통해 미래에 가치 있는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보호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승이 단절돼 가는 무형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 유적 재평가와 정비 · 활용 사업 등도 추진된다.

88올림픽 굴렁쇠도 문화재로

김찬 문화재청장은 "올해부터 '(가칭)예비문화재' 인증제를 도입해, 만든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첨단 산업기술 분야나 각종 국제경기대회 우승 관련 스포츠 유물 중 미래에 가치가 있을 문화재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8년 7월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박세리가 사용했던 골프클럽,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사용한 굴렁쇠, 2002년 한 · 일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붉은악마가 사용한 대형 태극기 등 국민적 주목을 받은 스포츠 유물도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예비문화재 인증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근 · 현대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자치단체별 기초조사도 실시한다.



서산 보원사지 전경. 문화재청은 폐사지에도 인력을 배치해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중요문화재 24시간 상시 인력배치
2015년까지 위험지수화한 지도 완성
중국의 무형문화재 선점 대응 위한
무형문화재 법률제정·지원 강화키로

무형문화재 육성 법률 제정 추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정에 따라 회원국인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체계 정비의 의견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이 자국의 무형문화유산법 제정을 통해 아리랑, 씨름, 농악무, 그네뛰기 및 널뛰기, 전통혼례 등을 중국 국가대표목록으로 발표하면서 무형무산유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현행 무형문화재 지정체계를 정비하고 전승단절 위기 해소를 위한 전수교육 활성화 등을 포함한 무형문화재 보존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무형문화유산 관련 법률은 문화재보호법에 포함돼 있지만 무형문화재 보존을 강화키 위해 별도로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제정이 완료되면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도 변경된다.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전수교육조교는 전승교수로 바뀐다.

현재 무형문화유산 범위도 유네스코협약을 반영해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이나 농경 ·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전통 놀이 · 축제 및 기예 · 무예 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생활여건을 개선을 위해 무형문화유산 전승자 창업과 전통공예 브랜드화 사업, 전통공예품 유통망 구축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공연 · 전시 등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국제교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 공원된다

문화재청은 현재 보존 조치된 유적의 체계적 관리와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해소를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 유적 재평가 및 정비 · 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이제까지 서울 풍납동 유적이나 서울 종로 육의전빌딩(舊 영동빌딩) 신축부지 유적 등은 비지정 문화재이지만 보존조치 돼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도 관리 · 활용안 없이 방치돼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2013년까지 15개 시 · 도 300여 건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재평가와 관리주체를 선정해 보존조치 유적을 정비 ·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찬 문화재청장은 "원형보존이 필요한 유적은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보존조치 유적 가운데 이전 복원하는 경우에도 거점 지역별로 문화재 체험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Zen' 아닌 'Seon'으로

장은화 씨, '선문화연구' 제11집서 주장

세계적으로 선(禪)은 일본식 발음 젠(ZEN)으로 알려져 있다. 스즈키 다이세츠(1870~1966)가 선의 일본식 발음 '젠'과 이를 불교와 합성시킨 '선불교(ZenBuddhism)'를 100여 년 전 서구에 소개한 것이 최초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몇몇 학자를 중심으로 한국선만큼은 'ZEN'이 아닌 'Seon'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드물었다.

이런 가운데 장은화 씨(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가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 최근 펴낸 '선문화연구' 제11집에서 기고논문 '한국불교용어의 로마자표기에 대하여'를 통해 'Zen'이 아닌 'Seon'으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 눈길을 끈다.

장 씨는 "대중적 인지도를 고려해 일본어 젠(Zen)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서양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중국선은 '찬(Chan)', 한국선 '선(Son)', 일본선은 젠(Zen), 미국선은 '아메리칸 젠(American Zen)'으로 확연히 구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은화 씨는 한국의 선을 Seon으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를 ▷선의 로마자표기는 Seon이라는 점과 ▷젠과 선의 함의가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어의 선을 Zen으로 표기한다면 한글의 선 관련 용어는 '선사-젠지' '선승-젠소' '참선-산젠' 등 일본 선의 용어로 표기해야 해서 합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선이 미국에서 'Zen'으로 표기된다면 젠이 일반화되지 않은 유럽, 아프리카 등지서도 한국선은 젠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장은화 씨는 "선과 젠의 함의가 다르기 때문에 젠으로 통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사회의 선은 스즈키 다이세츠에 의해 전파됐으나 전통 일본선이 아닌 불교 모더니즘적인 성향을 강화하고 개인의 영성체험에 치중하고 있는 점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장 씨는 "젠은 종교성이 배제되면서 크리스찬 젠(Christian Zen), 카톨릭 젠(Catholic Zen)이 되기도 한다"며 "종교성이 배제되고 정체성이 희박해지고 미국화한 젠에 한국선을 담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장은화 씨는 간화선 표기도 한국 · 중국 · 일본선의 특징에 따라 구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씨는 "중국의 'Kanhua Chan'이나 일본의 'Kanna Zen'이 문헌 속의 선인데 비해 한국의 간화선(Ganhwaseon)은 800여 년 역사를 지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전통이다"라고 말했다.



선을 소재로한 단편영화 포스터. 선을 'Zen'이라 표기하고 있을만큼 이미 일본식 표현이 세계화돼 있다.

선禪은 日(Zen) · 中(Chan)
한국어로는 'Seon'이라 표기

한국불교 독창성 살리려면
영문표기부터 바로해야

장은화 씨는 "한국에서의 간화선은 간화와 선으로 분리하지 않고 한 단어로 표기했다는 점, 간화선이 단일한 선수행으로 긴 역사를 갖고 현재의 고유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문자 표기를 해야 한다"며 한국 간화선의 적절한 로마자 표기로 'Ganhwaseon'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 씨는 화두선 역시 'hwadu seon'으로 일본의 공안선(koan Zen)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문화연구〉 제11집에는 선학원 설립 90주년을 기념해 2011년 '승가노후복지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2차 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 됐던 논문 4편이 게재됐다.

기획논문의 타이틀로 게재된 이들 논문은 ▷한국노인복지정책의 구조와 개선방안(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 ▷종교별 성직자 노후복지 비교 분석(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장) ▷불교종단 교역자 수행생활 기초보장에 관한 고찰(이혜숙 동국대 외래교수) ▷승가 노후복지 운영의 사례검토(이용권 서호노인복지관장) 등이다.

또, 투고논문으로 ▷떼비자숫따에 나타난 종교관의 재정립(최경아 동국대 외래교수) ▷선조 · 광해군시대 문인사대부의 불승과의 시적 교류(김상일 동국대 교수) ▷월암당 정대 대종사의 이사무애적 삶 연구(탄탄 스님) 등이 게재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극단적 과정 없이도 깨달을 수 있어"

임승택 교수, 불교평론 논단서 강조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단이 열렸다.

불교평론(주간 홍사성)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소장 허우성)는 공동으로 1월 19일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린 논단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임 교수는 주제발제를 통해 한국불교계에 확산돼 있는 깨달음에 대한 오해를 부추기는 주장들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점차적으로 무르익는 깨달음을 가르쳤음을 강조했다.

임승택 교수는 "초기불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에 관련한 경직된 태도들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과정을 걸치지 않더라도 깨달음에 접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정월에 특히 필요한 물건입니다. 아직 장만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大 할인을 연장 합니다."

一. '효사비결' 육임 종합 CD프로그램 할인가격 300만원 / 교환 50만원 정가 650만원
육임 당면사 판단과 육임 일생사 판단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첫 화면 좌 우측에 배치하여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10년에 걸쳐 7번째 진화된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의 최종결정판입니다. 최근 이것으로 교환 또는 구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말에 대한 채출근거까지 달아 놓아 최고의 명품이 틀림없습니다.

참고 말씀 "육임 당면사 판단에서는 방문(전화)자의 내외 비밀 속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지적해 낼 수 있고, 귀신 부정 산소탈 침범여부가 명쾌하며, 해소방법 또한 백미입니다. 육임 일생사 운명판단 역시 방문(전화)자의 인생 전반 사항을 위 당면사와 함께 한 화면에 좌우로 배치하여 한눈에 보이게 끔 해 놓았을 뿐 아니라 '상대가 내 말을 신뢰하고 있는지', '고집이 있는지', '설득해야 할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대상인지', '창대에 대한 수법이 제례의식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까지 떠 있습니다. 방문(전화)자가 물어오는 사항도 해당인의 띠별로 '되고' '안되고'를 확정시켜 놓아 판단의 정확도를 보장시켰습니다. 믿고 써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二. '군자수첩' 육임전문 CD프로그램 할인가격 80만원 정가 103만원
육임만의 정수를 뽑아 첫 화면에 배치 했습니다. 특히 정치인 경제인과의 상담이 많은 분들께서는 매우 긴요하게 쓰일 것이며 효과 역시 보장됩니다. 위 '효사비결'의 육임 핵심부분을 모았으므로 비교적 싸게 장만하여 크게 쓰실수 있습니다.

三. '육임 1년신수비결' 2011 증보판 할인가격 20만원 / 교환 10만원 정가 25만원
각월별 길흉변수가 바깥일과 집안일로 구분되어 종전 것 보다 훨씬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달의 길흉까지 밝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이 신수비결은 집안 각 식구의 기도 제목으로도 활용됩니다.

四. 평소 '효사활인천역용 육임 각 활용서'들을 눈여겨 봐 오신것이 있으시면 주문하십시오. 30% 할인 가격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고복자 효 사 배상

육임나라 주식회사 www.yukimnara.co.kr | 한국육임학회 www.tatotemple.net | 역망 www.cfi.kr

주문전화 02) 738-8680 / 8683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주) 서울 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육임컨텐츠개발전문 육임나라 주식회사

지역민들의 따뜻한 등불이 되겠습니다

전국 불교 복지단체들 정성 모아
어르신들과 떡국 나누며 자비 전해
장학금 · 선물전달 판소리공연 등
'새해맞이 사랑나눔' 행사 풍성

전국 각 지역의 불교계 복지관들이 임진년 설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열고 이웃 사랑 실천에 나섰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1월 19일 복지관 2층 용호문화센터에서 '새해맞이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저소득 가정 · 독거노인 · 장애인 가족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흥겨운 판소리 공연, 장학금 전달식, 설맞이 떡국거리 전달 등 따뜻한 행사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무성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종철 남구청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용호복지관 후원회 '따뜻한 동행'과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용호복지관은 '새해맞이 사랑 나눔' 행사에서 용호동 지역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정 등 총 400세대에 설맞이 떡국거리를 선물로 증정하고 청소년 33명에게 희망 장학금도 전달했다.

이춘성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따뜻한 설날을 맞이해 뜻 깊게 생각한다. 사랑의 떡국거리와 희망 장학금을 마련해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복지관은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속초시 노인복지관(관장 묘근)도 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떡국 나눔 및 위문품 전달식'을 20일 마련했다.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함께 떡국을 나누면서 모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다. 복지관은 또 속초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내복, 라면, 떡국떡 등을 전달했다.

속초 복지관은 이에 앞서 5일과 12일에도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에너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조손가정 및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난방유를 지원한 바 있다.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떡국과 위문품을 나누는 모습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양양군 노인복지관도 6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과 선물을 19일 전달했다.

복지관 1층 경로식당과 강당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도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신년 인사를 전했다. 정념 스님은 어르신들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양양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새해맞이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유대관계 형성과 소외감 해소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지역단신

통도사, 우희종 교수 초청 강연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도명)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에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를 초청해 '通하는 강연회'를 2월 5일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마련한다. 우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비폭력을 위한 지혜'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할 예정이다. (055)382-7182

고운사, 각성 스님 초청 금강경 특강

경북 고운사(주지 호성)가 각성 스님을 초청해 금강경 특강을 마련한다. 금강경은 선종의 소의경전으로서 가장 많이 독송하고 있는 경전이다. 이번 특강은 2월 13~17일 오후 2시 고운사 선체험관에서 진행된다. 사부대중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054)833-2324

수덕사 새해맞이 울력 산중 대청소

임진년 설을 앞두고 수덕사(주지 지운) 스님들이 산중 대청소에 나섰다. 1월 20일 스님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날을 맞기 위해 빗자루를 들었다. 스님들은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비옷을 입고 겨우내 쌓인 낙엽과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청소했다.

'참 나를 찾는 여행' 월정사 산사학교

평창중학교(교장 장도일) 학생들이 1월 16~17일 1박 2일간 월정사 산사학교에 입교했다.

평창중 학생들은 산사학교에서 발우공양을 통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학생들은 또 노인요양원 자원봉사를 체험하면서 나눔의 소중함과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

이 밖에도 부모은중경을 사경하고, 탁본체험, 북아트 활동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한국 설 우리도 즐거워요" 자비도량인 양산 영축산 영축사(주지 각문)는 설날 전날인 1월 22일 네팔 근로자를 초청해 설날 어울림 공양을 개최했다. 영축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해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네팔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고향의 향수를 달래어 주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마곡사 중학생 '맞춤형' 템플스테이

자기주도학습, 독서와 토론 구성
불교 청소년들의 잠재력 향상 기대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혜)가 중학생에게 특화된 'Hi-gh Buddha! Templestay!'를 마련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예비 중학교 1학년~3학년까지 30명을 대상으로 2월 13~ 19일 6박 7일간 실시된다. 프로그램은 불교문화체험, 글로벌 리더 학습, 글로벌 리더 특강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 과정을 마곡사 스님들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한다.

불교문화체험은 '스님께 듣는 부처님 이야기', '발우공양을 통한 자연주의 식습관 기르기', '108배를 통한 인내심 기르기' 등이 교육된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지역과 불교 발전 기원

군산 · 대구 · 부산 등
신년하례법회 봉행

지역 사회 발전과 불교의 번성을 기원하는 신년 하례법회가 지역 곳곳에서 펼쳐졌다.

군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허양)는 임진년 새해 사부대중이 함께 덕담을 나누는 신년하례법회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 그랜드 홀에서 여러 스님들과 기관장, 2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1월 27일 봉행했다.

군산사암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신도연합회에서 주관한 이 날 신년하례법회는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과 주지 법희 스님, 동국사 종명 스님과 종걸 스님, 성흥사 송월 스님, 관음사 도천 스님, 혜원사 혜등 스님, 정안사 정안 스님, 수도사 무진 스님 등 군산사암연합회 스님들이 다수 참석했다. 또한 문동신 군산시장, 강봉균 국회의원, 김용화 전북도의회 의장, 고석강 군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법회에서는 동국사 김대영 불자가 발원문을 낭독하고 매일 매일이 행복하고 좋은 날이 이어지는 군산시민과 위정자가 되기를 발원했다. 또한 새만금 중심인 군산시민이 화평하며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가피와 정진의 힘으로 신명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대구에서는 지역 종교계 대표들이 신년하례회를 갖고 화합을 다졌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대구종교인평화회의가 주관해 26일 대구 반월당 보현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하례회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을 비롯해 천주교와 천도교, 향교, 원불교, 기독교 등 지역 6개 종교계 지도자들과 김범일 대구시장, 우동기 대구교육감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문 스님은 이 자리에서 환영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종교계가 작은 차이를 뛰어 넘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6대 종교 지도들은 신년 하례회에 앞서 우동기 대구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종교계가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도 19일 각 종단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를 개최했다. 한불총은 올해는 군소종단이 연합해 미래 불교를 정착시키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승려상 정착에 협력키로 했다.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도 부산불교신년하례대법회를 6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컨벤션에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 스님들과 신도 및 지역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손문철 대구지사장
이재진 부산지사장



부산의 한국불교총연합회는 1월 19일 각 종교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영어로 만나는 부처님 말씀

한국불교대
'금강경 영어로 배우자' 개설

대승불교경전의 진수인 금강경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됐다.

대구에 위치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국제포교사 우성연 법사가 진행하는 금강경 영어강좌를 1월 28~ 3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한다.

한국불교대학은 뜻이 간략하고 명료한 영어경전을 한자와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불자나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강좌를 들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2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월봉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2년 3월 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2년 3월 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자혜불교대학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53)581-0232 / 053)581-0233
054)974-2605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0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2월중
◆ 개강일시 : 2012년 2월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보고 듣는 이것 무엇인가” 절망감 느끼면 좋은 징조

인경 스님의 〈수심결〉 특강 ③

영성에 기초한 명상상담

명상상담

인간의 영적인 특성을 보조국사는 공적(空寂)과 영지(靈知)로서 해명한다. 텅 비움, 고요함, 신령스러움, 분명한 앎과 같은 영역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탐욕, 성남, 어리석음과 같은 세속적인 삶의 양식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혹은 이런 영성에 이르는 방법과 과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보조국사는 불성, 영성, 본성을 체득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필경 무엇인가?’ 라는 공안을 화두로 제시한다. 그 과정으로서 구체적인 문답의 방법을 제시한다. 이것을 필자는 영성에 기초한 ‘명상상담’ 이라고 부른다.

명상은 많은 종류가 있다. 초기불교의 위빠사나가 있고, 유식불교의 영상관법, 그리고 선불교의 간화선이 그것이다. 특히 간화선은 불성을 자각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식과 스승과 제자의 문답을 강조한다. 오늘날 의미로 말하면 이것은 상담이다. 일반적인 상담이 사회에 적응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명상상담은 사회적인 적응도 적응이지만 오히려 불성, 영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점을 강조할 목적으로 여기서는 명상상담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명상상담 과정	〈修心訣〉의 科目
문제(화두)파악	序文. 心何遠覓 問 1. 入道因緣公案
문제회피(저항)	問 2. 頓悟漸修大意 問 3. 頓悟漸修無妨害詳說
회광반조	問 4. 自心一念廻光 問 5. 空寂靈知
영성체험(깨달음)	問 6. 入道一門 --- 返聞汝聞性
사후점검	問 7. 漸修要義, 無修而修 問 8. 定慧等持 問 9. 自性定慧與 隨相定慧結論

상담은 내담자와 치료자와의 상호작용으로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명상도 마찬가지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상담적인 요소를 가진다. 〈수심결〉은 공적과 영지를 경험하는 영성체험에 도달하는 방법과 그 과정으로서 명상상담의 모형을 제공해 주는 좋은 자료이다. 물론 〈수심결〉에서 보여주는 문답은 실제로 일어난 상담의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글쓰기의 전략의 일부일 수도 있다. 필자는 한 개인과의 일관된 문답은 아닐지라도, 실제로 이런 문답과 명상상담이 당시에 존재했다고 본다. 그래서 〈수심결〉 전체를 이런 명상상담의 과정이라는 시각에서 읽고 재편집하고자 한다.

수심결의 구성

〈수심결〉은 서문과 함께 9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문답을 명상상담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 전체적으로 '문제파악 → 회피 → 회광반조 → 깨달음 → 사후점검'이라는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수심결〉의 서문은 '마음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心何遠覓]'하는 점이 핵심이다. 이것은 중심과제를 파악하는 말이다. 첫 번째 질문은 '도에 들어가는 공안'을 언급한 점에서 〈문제제기〉에 해당된다. 제2단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신통변화(神通變化)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돈오점수(頓悟漸修)에 의한 논리적인 해명 부분이다. 이것은 〈회피〉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한 것은 불성, 영성, 본성에 대한 직접적이지 않는 신통변화의 문제를 내담자가 제기한 것으로 상담에서 자기 문제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고 저항과 회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제3단계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질문은 마음의 본성을 자각하는 직접적인 직면으로서 〈회광반조(一念廻光)〉가 여기에 해당하고, 제4단계 여섯 번째의 문답은 직접적으로 공적영지(空寂靈知)의 영성을 체험하는 단계인 관계로 깨달음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마지막 제5단계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점수(漸修)의 과정으로 정혜등지(定慧等持)를 다루는 〈사후점검〉 과정으로 해석했다.

화두제시

첫 번째 단계는 화두의 제시로서 문제파악의 단계이다. 일반적인 상담에서 이것은 면접단계로 내담자의 주된 문제를 파악하고 그 증상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영성과 관련된 내담자의 과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질문자는 C로, 질문에 대답하는 보조국사의 응답을 T로 표시한다.

C: 이미 불성이 몸 안에 있다면 범부를 떠나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어째서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T:그대의 몸 안에 있지만 그대가 스스로



대구 동화사 보조국사 진영



명상상담연구원에서 진행된 영성요가의 일부분. 영상요가 등 명상은 모양과 형상은 고유한 특징이 아님을 깨닫는 과정이다.

보지 못한 것이다. 그대는 하루 가운데[十二時]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며,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알며, 성내기도 하고 혹은 기뻐하기도 한다. 이것은 필경 무슨 물건인가[竟是何物]? 이 물질적인 몸은 흙·물·불·바람[地水火風] 등 4가지의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요소들은 그 기질이 완고하고 감정이 없다. 어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겠는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見聞覺知] 것이 필연적으로 바로 너의 불성이다.

보조국사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를 찾아야한다고 강조하고, 부처란 바로 현재의 이 마음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내담자인 질문자가 '현재의 이 마음이 부처라면 왜 나는 이것을 알지를 못하는가?'라고 질문한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보조국사는 배가 고프고 갈증을 알고, 춥고 더움을 아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필경에 어떤 물건인가?'를 묻는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고 대답한다.

이 문장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는 배가 고프고 갈증을 느끼고 춥고 더움을 아는 세속적인 마음과 다른 하나는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자체라는 영적 측면으로 구별된다. 배가 고픔을 아는 것은 모든 중생이 갖추어진 한결같은 일상의 마음

〈수심결〉은 명상상담의 과정
9개 질문과 대답 5단계 정리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불성이고 영성이고 법성이다

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러나 ‘배 고프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을 아는 이차적인 앎은 오직 인간에게 부여된 고유한 영적인 능력이다. 전자가 알아차림이라면 후자는 알아차림의 알아차림이다.

문제는 이들의 상호관계이다. 전자는 생존과 관련되고 후자는 영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마음이 그대로 불성이라는 말한 점이다. 이 마음을 떠나서는 별도의 부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경험이 그대로 불성, 혹은 영성이란 말이다. 이점은 이상의 심리현상과 영성을 서로 다르지 않는 동일한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분명하게 구분돼야 혼돈을 방지할 수가 있다. 보고 듣는 것 자체와 대상에 대해서 보고 듣는 작용과 보고 듣는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대승불교에서는 체상용(體相用)으로 구분한다. 체(體)는 바탕 자체를 말한다. 보고 듣는 인식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이고 배경이고 알아차림 그 자체이다. 용(用)은 인연되는 대상에 따라서 작용하는 운영의 측면이라면, 상(相)은 그 결과로서 인식된 내용으로서 모양과 형상을 말한다. 이들은 서로 구분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함께 작동한다. 좁은 의미로는 보고 듣는 것 자체는 특별하게 본성, 영성이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로 바탕, 작용, 모양은 모두 영성에 해당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간화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불성, 영성을 체득하는 방법으로 '필경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활용한다. 이것이 간화선의 방법이다. 바탕 자체는 내용이 아닌 관계로 모양이나 형상으로 포착할 수 없기에 다만 질문을 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이 고유한 특징, 화두로서 의심이다. 국사는 '이 공안(公案)에서 이해하고 깨닫는 바가 있다면, 옛 성인과 손을 함께 잡고 갈 것이다'고 말한다. 이것은 곧 본성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간화선의 방법이다.

불성이나 영성이 경험내용이라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그것을 경험하도록 돕는 발문이 화두이다. 이들은 서로 구별된다. 보고, 듣고, 느끼고, 분명하게 아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바탕 자체를 자각하도록 돕는 명상의 방법적인 과정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분명하게 아는 이것이 그대로 불성이고, 영성이고, 법성이라는데 여전히 쉽지가 않다. 일상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한다. 이것은 일상의 평범한 세속적인 경험이다. 별도로 특별하거나 경이로움이나 내적인 평화와 깨어있음이 결여돼 있다. 이것이 불성이고 영성이라고 하는데,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다. 여기서 내담자는 심각한 갈등과 당혹감이 생겨난다. 잘못하면 여기서 포기할지도 모른다. “필경 보고 듣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 절망감은 오히려 좋은 징조이다.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여는 창조적 긴장인 까닭이다.



명상상담연구원장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2년 2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2년 3월 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2년 2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2년 3월 9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출강 및 통신 2012학년도 제 21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1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2학년도 제21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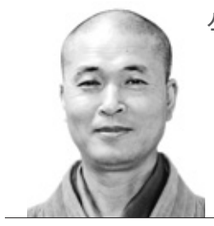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2년 2월 24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 국 불 교 법 사 대 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말에 속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하늘과 땅을 초월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곧 알려주게나."

問 超過乾坤底人如何
師云 待有與麼人即報來

하늘도 벗어나고 땅도 벗어난 사람은 하늘의 재앙을 받지도 않고 땅의 재앙도 받지 않는다.

하늘의 재앙이란 무엇일까? 번개, 눈비, 바람, 기후 등일 것이다. 땅의 재앙이란 무엇일까? 지진 홍수 불 질병 사고 등에서 생긴 재앙일 것이다. 이런 재앙은 지구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하늘도 벗어나고 땅도 벗어나 이런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불교는 형이상주의를 찾거나, 도피적이고 은둔적인 종교가 아니다. 또 다음 생을 기대하는 종교도 아니다. 현재 이 현실 위에서 편안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보고, 공평한 인생,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불교는 매우 미래 지향적이고 진실하다. 따라서 불교를 신행하면 매우 합리적이며 급진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도 덜 보수적이다.

전생을 보고 미래를 알아맞히고 병을 고쳐주는 신통과 불교와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 것은 방편으로 중생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지는 몰라도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수단과 목적을 잘 구분해야 한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가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삼문(三門)과 불전(佛殿)이야."

問 如何是伽藍
師云 三門佛殿

삼문은 일주문 해탈문 누각문(樓閣門)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원의 겹겹의 문을 그냥 3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불전은 부처님 전각을 말한다. 가람은 사찰, 사원을 가람이라고 한다.

가람은 삼문과 불전이다. 그 이상으로 해석하고 신비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가람에 들어가면 그냥 편안해져라.

사원에 들어가면 그 자체를 즐겨라. 맑은 공기, 조용함, 굴러가는 낙엽, 글 읽는 스님, 풍광, 맡은 바 일을 하는 막부들을 그냥 보면서 도량을 거닐어라. 심오함도 잊은 채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보면 그대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처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가람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다. 가람은 그렇게 부처가 기거하는 곳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불생불멸(不生不滅)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본래 생이 아니며 현재 또한 멸함이 없다."

問 如何是不生不滅
師云 本自不生今亦無滅

태어나고 죽으려면 그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이 몸은 지수화풍(地水火風) 자연의 원소가 모여서 뭉쳐진 것이다. 때가 되면 흩어진다. 자연의 원소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반복할 뿐인데 도대체 무엇이 태어나고 없어진다는 말인가?

자연을 두고 무엇을 '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없고 대자연만 있다. 그래서 불생불멸(不生不滅)이다. 자연은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지 끝이 아니다. 끝은 없다. 끝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러하니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본래 태어남도 없었고 죽음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사람 마음 국가 단체 가족 등이 다 원래 생긴 적이 없었고 멸할 것도 없다. 세상의 언어에 속지 말라. 언어는 표현이다. 사실이 아니다. 언어의 뜻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이 된다. 자유로워져라. 그대들이 알고 있는 언어의 뜻에서 벗어나라.

누가 죽었다고 해도 죽음으로 보지 말라. 태어났다 해도 태어난 것으로 보지 말라. 부귀함을 보아도 부귀함으로 보지 말고 가난을 보아도 가난함으로 보지 말라. 매사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무심으로 그냥 보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멸망으로 보지 말라. 본래 지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④

진리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는 다른 사람을 알아본다 〈테라가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늘을 향해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땅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늘을 향해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서있는 사람들이지만, 땅을 향해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꾸로 선 사람들이다.

이 두 부류의, 서로 상반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어떻게 부를까? '거꾸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 부른다.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야말로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꾸로 서있는 사람'은 아니다. 땅을 향해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거꾸로 서있는 사람'임은 물론이다.

어떻든 서로 마찬가지인데 그 입장이 다를 뿐이라는 상대주의(相對主義)나 어느 누가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不可知論)은 올바른 견해라고 볼 수 없다. 올바로 진리를 보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올바로 서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거꾸로 서 있는 사람들인지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사슴들이 뛰어놀던 동산에서 펼쳐진 최초의 법회에 동참했던 붓다의 다섯 제자들 중에 '밥파'라는 비구가 있었다. 그 밥파 비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원로 비구들의 시를 모은 〈장로게(Theragatha)〉에 보면, 그의 통찰력이 빛나는 시 한 수를 만나게 된다.

"진리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는 다른 사람을 알아보며, 또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도 알아본다. 그러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는 진리를 보는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또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다."(박용길 옮김, 〈비구의 고백, 비구니의 고백〉, 민족사, 36쪽)

진리를 보는 자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 것이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는 그렇지 못한 우리 중생들이다. 밥파 비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 상반되는 세계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진리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는 다른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법화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이 진리를 안다"고 했던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또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에서 든 비유처럼 땅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서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곧 〈반야심경〉의 '전도몽상(顚倒夢想)'이 생각나지 않는가. 〈반야심경〉에서 "전도된 몽상을 멀리할 수 있다면 곧 열반이라" 했으니, 밥파비구의 시는 우리에게 불교가 지혜의 길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진리를 보는 자, 즉 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낮'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 즉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밤'이다. 진리를 보는 자에게 '밤'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낮'이 된다. 30년 전에 들은 성철 스님의 법문 한마디가 가끔 나를 위로해 준다. "불교는 세상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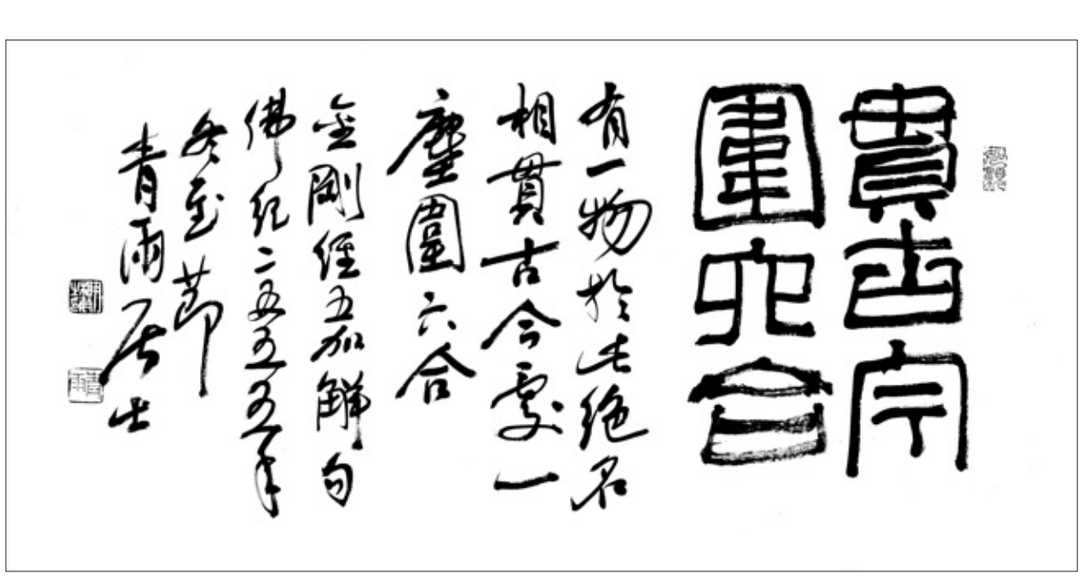
밥파 비구의 노래나 성철 스님의 법문은 공히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택하라 강요한다. 진리를 보는 자들이 걷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걷는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화두(話頭)라 해도 좋으리라.

문제는 진리를 보는 자들이 걷는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걷는 길이 오히려 가시밭길이 아니라 탄탄대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진리를 보는 자들이 걷는 길은 왜 탄탄대로가 아닐까? 아쉬운 일이라고? 그러나 생각해 보라. 이 세속에서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온갖 욕망을 다 충족시키는 삶을 살면서 그 위에 진리까지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욕심인가! 그래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 금강경 오가해

고금을 꿰뚫다



有一物於此 絶名相**貫古今** 處一塵**圍六合**(유일물어차 절명상**관고금** 처일진**위육합**)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 이름과 형상이 없으나 고금을 꿰뚫고 있으며 하나의 먼지 속에 있으나 동서남북과 상하를 모두 에워싸고 있다. 〈금강경 오가해〉 함허기화(1376~1433)

絶: 끊을 절
貫: 꿸 관, 당길 말
塵: 티끌 진
圍: 에워쌀 위, 나라 국
六合: 동서남북 상하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영남 범음범패 전문 교육

전통사찰 안정사 영산재 교육원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1) 초급반 : 사물(요령,목탁,태징,법고)다루는 법. 도량석,쇳송,각단예불,의식
2) 중급반 : 상주권공, 신중작법, 대령관욕, 천도재(49재), 각종의식
3) 작법반 : 오공양작법, 다게작법, 요잡작법, 천수바라, 요잡바라, 관욕바라, 사다라니바라
4) 고급반 : 운심게, 삼귀의작법(초급,중급 수료자에 한함)

▣ 개강일시 : 2012년 2월 7일(화요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6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장(상시 모집)

* 본원은 종파를 초월한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 수여, 승려 후보생도 수강 할 수 있으며 승려수계득도, 포교원 지도 편의도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수강 할 수있습니다.

전통사찰 안정사 강원

(사)안정사 영산재 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54-3
055)649-6711 팩스 055) 649-6712 HP : 011-874-6775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굴뚝 조화가 사찰 조형미 돋보이게 해

굴뚝(하)

봉정사 영산암은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을 촬영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진 곳이다. 몇몇 건축가와 조경가들이 영산암의 공간성이나 경관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은 글이나 영상을 접해서인지 건축이나 조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영산암이 왜 아름다운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견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조경가인 필자의 눈으로 보면, 영산암은 건물과 마당이 연주하는 절묘한 하모니, 휴먼스케일을 유지하고 있는 안마당 크기, 마당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와 배롱나무의 힘찬 생명력, 누각인 우화루와 요사채인 송암당의 누마루너머로 연결되는 시각의 흐름, 오랫동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위의 묵묵함도 인상적이지만, 마당 한구석에서 자기를 낮추고 세월이 가는 소리를 듣고 있는 투박한 형태의 굴뚝이 가장 마음에 든다. 바로 이 굴뚝으로 인해서 영산암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당을 가진 절집으로 평가된다.

키다리굴뚝은 난쟁이굴뚝과 마찬가지로 와편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굴뚝의 특성상 진흙을 사용해 틈새가 없도록 해야 하므로 와편을 몇 단 놓고 그 사이에 진흙을 채워 넣어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난쟁이굴뚝과 마찬가지로 진흙과 와편의 놓기 비율이나 형태에 따라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미감이 달라진다. 와편 말고도 굴뚝을 만드는 다른 재료로 벽돌이나 납작한 돌을 벽돌처럼 다듬은 모전이 있으나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굴뚝은 흔치 않다. 키다리굴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주 마곡사의 굴뚝, 여주 신륵사의 굴뚝, 김천 직지사의 굴뚝, 대구 파계사의 굴뚝, 지리산 국사암의 굴뚝, 지리산 칠불암의 굴뚝, 서울 봉은사의 굴뚝 등 너무나 많다.

마곡사 굴뚝은 하부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게 만든 특이한 형태의 굴뚝이다. 이 굴뚝은 하부에 자연석을 서너단 놓아 기초를 튼튼히 한 후 위로 올라가면서 와편을 켜켜이 쌓고 그 사이에 진흙을 채워 넣었다. 형태도 특이하지만 굴뚝 중간에 두 차례나 반복해 수키와 등이 보이도록 박아 넣어 독특한 양식의 문양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처리로 인하여 마곡사 굴뚝은 생각없이 밋밋하게 와편과 진흙을 섞어서 쌓아 올린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어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해준다.

신륵사 적묵당 벽면에 붙여서 만든 굴뚝 역시 특이한 디자인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 굴뚝의 형태는 도자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치 벌집이 벽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준다. 굴뚝의 상세를 보면, 진흙으로 몸체를 만들고 그 위에 평기와를 잘라서 아래서부터 붙여 올렸다. 이 굴뚝은 지붕하부에 설치해 굴뚝으로서의 기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디자인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성을 살린 의미 있는 형태미를 만들어내고 있어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보는이 즐겁게 하는 다양한 굴뚝
지역성 살린 형태미 만들어
부정적 이미지 강했던 소각로
경관 고려해 불교 상징성 강화

지리산 국사암 법당 후면부에 설치한 굴뚝은 암키와 · 수키와를 지붕 잇듯이 이어 마치 탑의 옥개석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이 굴뚝은 마치 5층탑과 같은 형태미를 가진다. 더구나 굴뚝몸체에도 와편을 층마다 서로 엇갈리게 박아 넣어 다양한 무늬를 만들었는데, 발상도 재미있고 정성 또한 많이 들어간 작품으로 평가된다.

서울 봉은사 마당에 설치한 굴뚝은 전벽돌을 재료로 사용하고 석회반죽으로 줄눈을 넣었다. 일반적으로 전통사찰의 굴뚝에서는 와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이 경우는 가까이 있는 건물과의 조화를 위해서 전벽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굴뚝 몸체 상부에는 자경전 십장생굴뚝과 같은 기법으로 화면을 만들어 색깔 있는 조형전을 구워 연잎 · 연꽃 · 새를 문양으로 만들어 넣었는데, 사찰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구성을 보여준다. 굴뚝 상부에는 연가를 제대로 만들어 놓아 완성도를 높였다. 이것 역시 일반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양평 용문사에는 전통찻집을 지으면서 새로 굴뚝을 만들어 세웠다. 이 굴뚝에서는 우리네 절집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굴뚝과는 또 다른 형태미를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최근 들어 사찰을 경영하는 스님들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예전에는 소홀하게 다뤘던 사찰내의 여러 가지 요소에 그 사찰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의미 있는 경관을 만드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굴뚝은 특히 사찰에서 눈이 많이 가는 수직적 경관요소이므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해 만들 경우 아름다운 사찰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굴뚝은 아니지만 굴뚝과 같은 디자인 감각을 볼 수 있는 것이 명부전이나 지장전 가까이에 조성해놓은 소각로이다. 소각로는 재를 지내고 나서 망자가 생전에 입었던 옷이나 소지했던 물건을 태우는 곳으로 언뜻 생각하기에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조형물이다. 예전에는 절 마당에서 물건을 소각해 화재위험이 많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았다. 최근에는 많은 절에서 소각로를 만들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사찰에 어울리도록 불교적 상징성을 가미해 만든 소각로는 사찰에서 중요한 경관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사찰에 만들어놓은 소각로의 대표적 사례로는 양평 용문사 · 남양주 봉영사 · 여주 신륵사 · 부천 석왕사 · 서울 화계사 소각로 등이다.

소각로는 굴뚝과는 달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키를 높여 노출되는 시각량을 늘리지 않고 낮게 만들어 노출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소각로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봉영사 소각로와 같이 절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고 높이도 높게 하여 오가는 이들에게 잘 보이도록 만든 것도 있다. 이를 보면 소각로도 얼마든지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조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소각로를 부정적인 경관요소로 볼 것이 아니라 사찰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의 조형요소로 생각해 적극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소각로는 조형성도 우수해야 하겠지만 그것의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까지도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고 바닥에서 물건을 태우거나 소각로가 있어도 그것을 기능적으로만 생각하여 조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여러 사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사찰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소각로와 같은 작은 조형물도 세밀하게 점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양평 용문사 소각로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소각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형물은 아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사찰에서도 소각로를 볼 수 있는데, 중국 소관의 대감선사에 설치해 놓은 소각로는 최근 우리나라에 조성하는 소각로와 디자인적으로 많이 닮아있다. 문화라는 것은 서로 교류하는 것이므로 중국사찰의 소각로가 우리나라 사찰의 소각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찰의 소각로가 중국사찰의 소각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고급스러운 사찰문화를 만들어 가게 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구 파계사 키다리굴뚝

하부가 넓고 상부가 좁은 것이 특징인 공주 마곡사 굴뚝

벌집이 벽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모양의 여주 신륵사 굴뚝


양평 용문사 소각로


부천 석왕사 소각로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대원공덕성취케하는 상서로운 팔길상다라니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이루게하는
제불보살 자비손과 제천선신 옹호, 대천세계 항마조복, 문수보살 멸정업, 보현보살 멸죄, 관세음보살 멸업장, 선망부모 왕생정토, 해원결, 보시주은, 친족화합, 몸 속의 모든 병고소멸, 제병퇴치, 재물은 부족함없이 마음대로 얻어지는 여의주인 팔길상다라니 액자를 걸어두는 곳에는 모든 공덕성취, 일체공덕 회향, 사대강건 육근청정이 절로 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팔길상(八吉祥)다라니는 티벳불교와 밀교에서 소중히 여기는 여덟가지 상서로운 문양으로서 법륜, 법라, 일산, 산개, 금어, 보병, 연화, 인연의 문양고리를 합쳐 만들어진 부처님의 장엄 법구입니다.

사찰 불법력 성황원활 기원할 때 • 불사 신도번창을 발원할 때
사업, 장사 성공을 기원할 때 • 재물운, 금전운이 좋아지길 바랄 때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랄 때 • 부부가 화목, 가정이 평안하길 원할 때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길 원할 때 • 환자가 속쾌차, 완치되기를 바랄 때
새 사업을 시작할 때 • 집터나 가게터가 산란하고 뒤숭숭할 때

사이즈 | 가로 26cm×세로 33cm×두께 3cm, 제조원 | 티벳, 수입처 | 룽다원, 가격 | 180,000원(사찰스님 20% 할인)

입금계좌 농협 302-4233-7099-41 전화 010-4233-7099

좀마니 반메훔 & 연꽃 윤장대 & 마니차



이제 입춘일부터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돌려 주십시요!
사업재수운, 금전재물운을 불러들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머리를 총명하게 돌려줍니다

팔만대장경전을 넣어둔 책장을 의미하는 윤장대, 또는 법륜대라고도 하는 이 법구는 한번 돌릴 때마다 경문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쌓이고, 업장소멸이 되어,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머무는 장소의 나쁜 운을 몰아내고 좋은 호운으로 바꿔주는 신비한 힘을 지닌 이 윤장대는 사업장이나 사무실, 영업장소, 기수련원, 가정의 거실, 학생공부방에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윤장대는 1.5V소형건전지 내장하여 돌리고, 연꽃 마니차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으면 태양열로도 돌며, 건전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앞에 놓으면 자동으로 돌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과 출입왕래재수가 원할해져서 원하는 일이 소원성취 됩니다.
[사찰에 신도 개인인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윤장대 사이즈 | 높이 17×둘레 12cm / 가격 | 98,000원
마니차 사이즈 | 높이 15×둘레 10cm / 가격 | 68,000원(사찰스님20%할인)
제조원 | 티벳 / 수입처 | 룽다원

입금계좌 농협 302-4233-7099-41
전화 010-4233-7099

“명리 구하지 마라” 천 년 유훈 겨울바람 속에서 듣다



하나의 문을 여는 도량
운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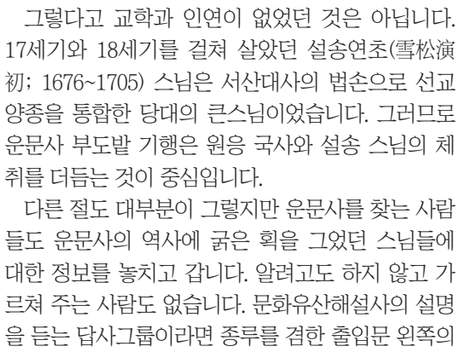
우리나라 비구니 사찰 가운데 규모가 큰 강원으로 유명한 운문사(雲門寺)는 선종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찰입니다. 고려시대 원응 국사(圓應國師) 학일(學一; 1052~1144) 스님이 만년에 후학을 지도하면서 구산서문 최초의 선문인 가지산문의 중심이 장흥 보림사 중심의 전라도에서 가지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로 옮겨 온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가지산문의 초조인 도의 국사가 은둔했던 설악산 진전사에서 출가한 일연 스님도 운문사에서 만년 4년을 머물렀는데 이때 〈삼국유사〉 집필을 준비 했다는 설과 탈고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학과 인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7세기와 18세기를 걸쳐 살았던 설송연초(雪松演初; 1676~1705) 스님은 서산대사의 법손으로 선교 양종을 통합한 당대의 큰스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운문사 부도밭 기행은 원응 국사와 설송 스님의 체취를 더듬는 것이 중심입니다.

다른 절도 대부분이 그렇지만 운문사를 찾는 사람들도 운문사의 역사에 굵은 획을 그었던 스님들에 대한 정보를 놓치고 갑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답사그룹이라면 종루를 겸한 출입문 왼쪽의 비각 앞에서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각은 세 채가 나란히 서 있는데 첫 번째는 운문사 사적비입니다. 가운데 큰 비각 안에 원응국사비가 모셔져 있는데 귀부나 이수는 없고 세 조각으로 부서져 마멸이 심한 빗돌만 보호 장치로 고정시켰습니다. 비신의 높이는 23.3cm, 너비는 90.9cm이며 보물 제316호입니다.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있으니 들어갈 수는 없고, 앞에서 카메라의 줌을 당겨서 들여다보면 ‘원응국사비명’이라고 두 줄로 굵게 쓴 제액글씨가 선명합니다.

원응국사비의 비문은 금강거사(金剛居士)라는 호를 썼던 문신 윤언이(尹彦頤 ?~1149)가 지었습니다. 글씨는 당시의 왕사였던 탄연 스님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문의 내용은 27년 동안이나 임금의 곁에서 존경 받으며 법문을 설했던 원응 국사의 도력과 인품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석의 뒷면에는 229명에 이르는 문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국사의 가문이 얼마나 번성했는가를 알게 합니다. 원응 국사의 부도는 전해지지 않으므로 유적으로는 이 비가 유일한 셈입니다.



비구니사찰 중 큰 강원으로 유명한 운문사 원응국사 비명

국사께서는 세수와 양치를 하시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가부좌로 단정히 앉아 향을 사루고 축원한 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도력을 기르는데 전력할 것이고 명리를 탐구하지 말라”고 하시고 (결락) “진성은 본래 원명하여 확연히 시방에 두루 하며, 시방이 혼일(渾一)한 동체이고 출몰(出沒)이 본시 동광(同光)이라”는 임종게를 설하자마자 거의 입적상태에 있었다.

비문의 후반부에는 1144년 10월 21일 원응 국사가 입적하기 전 게송을 읊는 상황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숙한 시간에 제자들 가운데 ‘오늘은 세속에서도 좋지 않게 여기는 날인데 오늘 입적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는 이가 있었나 봅니다. 국사는 그 말을 듣고 선적(禪寂)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산중에서 수도하는 분상(分上)에는 세(歲)도 없고 일(日)도 없거늘, (결락) 어찌 기일(忌日)이 따로 있겠는가? 오늘이 만약 기일이라면 내가 〈섬자경(賧子經)〉 중에 설한 일체묘보살(一切妙菩薩)의 본생담에 의하여 연명을 제석천왕께 청하리라.”

원응 국사는 스스로 입적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임종게까지 남겼는데, 제자들의 염려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물론 비문에는 원응 국사가 다시 소생해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가 그 다음 달 보름날에 새로운 임종게를 읊고 입적하는 기적 같은 일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사는 둘이 아니어서 도력이 높은 수행자는 생멸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원응 국사가 이야기한 〈섬자경〉은 〈불설보살섬자경(佛說菩薩賧子經)〉으로 육도집경(六度集經)의 제5권의 제3 인욕도무극장(忍辱度無極章) 중 섬자장(賧子章). 서진(西晋) 시대(A.D. 265~316)에 한역된 것입니다.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온라인상에 제공하는 경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이 비라륵국에 있을 때였다.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도를 구할 때에 계행(戒行)을 갖추고 정진하여 지혜를 닦고 방편으로 많은 공덕을 쌓았음을 모든 비구들에게 설하자, 아난이 부처님에게 전생의 일을 설해 줄 것을 청했다. 이에 부처님이 설했다.

먼 옛날 도솔천(兜率天)에 일체묘(一切妙)라는 이름의 보살이 있었다. 그는 시방 세계에 효순한 이가 있는가를 천안(天眼)으로 관찰하다가 가이국(迦夷國)의 한 장자를 보게됐다. 장자는 자식이 없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부부가 모두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들어가 무상(無上) 지혜를 구하고자했다. 이를 본 보살은 소경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이름을 섬(賧)이라했다. 섬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자비심이 많았다.



한 줌 햇살만으로도 포근한 운문사 부도밭. 설송 스님의 부도를 비롯한 9기의 부도가 나란히 서있다.

비구니 사찰로는 규모 큰 운문사
원응국사 머물며 가지산문 선풍 전파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 집필 · 탈고해
이천보 집안 5대 이어 서산문중 비문 써

섬은 나이가 10세에 이르자 부모에게 원래 세웠던 원(願)대로 함께 산에 들어가 정진하자고 권했다. 섬은 가산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보시하고 부모와 함께 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부모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심으로 봉양했다. 산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날 무렵에 섬은 사슴 가죽옷을 입고 물을 길어 오기 위해 샘에 갔다가 마침 사냥을 나온 가리국 왕이 사슴으로 오인하여 쏜 화살에 맞았다.

왕이 사람 소리에 놀라 가보니 섬이 쓰러져 있었다. 도인을 쏜 것을 알게 된 왕은 놀라고 두려워서 참회하고 백방으로 그를 구하고자했다. 그러나 섬은 자신의 수명이 숙세의 죄로 인한 것이므로 죽는 것은 당연하나 자신이 죽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부모들이 누구를 의지하여 불도를 닦겠는가라고 걱정하면서, 왕에게 부모의 안위를 당부하고 죽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섬의 시신 앞에서 슬피 울며 하늘과 땅에게 섬의 지극한 효성을 안다면 섬을 살려 달라고 빌었다. 제2 도리천의 왕, 석(釋)이 이 광경을 보고 내려와 신기한 약으로 죽은 섬을 다시 살렸다. 모두들 기뻐하는 가운데 왕이 섬에게 용서를 빌자, 섬은 왕에게 앞으로 5계(戒)를 받들어 살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설하고 전생의 인연을 밝힌 다음에, 정진의 도결(道決)을 이룬 것은 부모의 자비로 비롯된 것이므로 효도로써 도를 배울 것을 아난에게 당부하자, 모든 이들이 부처님께 공경했다.

생사의 인연이란 자신의 업연에 따르기도 하지만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 새로운 삶을 얻는 기연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운문사 부도밭은 절 아래로 다시 내려와 내원암 가는 길을 따라 호젓한 산길을 500m 쯤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설송 스님의 부도를 비롯한 9기의 부도가 일렬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남붕(南鵬) 스님의 표지석이 부도를 대신 하는 듯 서 있습니다. 남붕 스님은 설송 스님과 함께 밀양 표충사 중창불사를 주도했던 스님입니다. 겨울 전나무 숲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지만, 부도밭은 한 줌 햇살만으로도 족한 듯 포근하고 양명합니다.

부도 마다 앞에 표지석을 세우거나 탑신에 주인의 법호를 새기고 있지만 그 행적이 남아 있는 스님은 설송 스님 뿐입니다. 운문사 도량에 서 있는 설송 스님의 비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그 내용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설송 스님의 비문에는 아주 재미난 사연이 기록돼 있습니다. 비문을 지은 사람은 조선 영조 때의 문신 이천보(李天輔, 1698~1761)인데 그의 집안이 대대로 서산대사 문중의 큰스님들 비문을 지은 것입니다. 즉 이천보의 5대조는 서산 휴정 대사의 비문을 지었고, 고조부는 언기 대사의 비문을, 종증조는 의심 대사 비문을, 종조부는 설제 대사 비문을 지었고 자신은 설송 대사의 비문을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5대가 서산대사 계열의 법손들의 생애를 줄줄이 기록했으니 참으로 놀라운 기연(奇緣)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천보가 지은 비문에 따르면 설송 스님은 선과 교에 매우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산 대사 이래 선과 교로 나뉘어졌던 문도들의 가풍을 설송 스님이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천보는 이를 멋진 비명으로 남겼습니다.

선정이 바로 지혜요
지혜는 바로 선정이니
선종과 교종 따지지 마라.
통하면 동정이 따로 없어
달이 물속에 박히듯이
동서를 나누어 비출 뿐
오직 대사의 심법은
두 문을 하나로 만들었네.

오늘도 운문사는 하나의 문입니다. 선도 교도 염불도 하나로 융합해 하나의 도량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구름의 문이 열리어 우주에 자비광명이 넘쳐흐를 그날에도 운문사는 하나의 문일 것입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민중불교 운동으로 반독재 민주화에 기여



87년 조계사 집회에 참가하는 스님들을 연행하는 전경들



1987년 고문으로 사망한 故 박종철군의 49재가 경찰에 의해 저지되자 길거리에서 49재를 진행하는 지선 스님 모습.







①, ② 1989년 10월 27일 동국대 도서관 앞에서 정토구현전국승가회 등 7개 단체가 10·27법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③ 민불련 현판식에서 종교탄압을 일삼는 군사정권을 질타하는 백기완 서민통의장

③ 1980년대 – 민중불교운동으로 대변

1970년대 청년불자들을 중심으로 불교중흥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이 실천됐다. 198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민중불교운동이 출현하는 밑거름이 됐다.

1980년대 대불련 활동은 '민중불교'를 표방하며 진행됐다. 민중불교운동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0·27법난으로 본격화됐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을 겪으면서 형성된 불자들의 각성은 민중불교운동을 급속히 성장시켰다.

1970년대 대불련 이념이 민족주체성의 확립이었다면 1980년대 대불련 이념은 '반외세 자주화'였다.

민중불교 태동기였던 1970년대 후반기 불교계에서는 불교 야학, 근로자 법회 등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는 불교 개혁에 대한 대중의 실천으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그 필요성을 공감한 학생과 청년 불자, 소장스님들이 민중불교운동에 나섰다. 이 때 나타난 구체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가 사원화(寺院化) 운동이었다.

사원화 운동은 사찰을 사회운동 근거지로 심포지엄과 야학 등을 통해 불교가 지역 사회, 사람들과 소통하도록 하는 노력이었다.

사원화 운동이 한창일 무렵 대불련은 그 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음에도 내부에서 변화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았다.

1980년대 초 대불련의 지방조직을 통해 서울·수원·원주·청주·전주·부산 등에서 운영되던 야학 활동이 그 예이다. 대불련은 '사회적 사원화'를 목표로 '불교야학 연합회'가 구성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사원화 운동은 제5공화국에 의해 지도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직접적 탄압을 받게 되면서 하향기를 맞는다. 사원화 운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 이후 가장 탁월했던 실천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원화 운동은 1981년 7월 13~16일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불교계 현안문제와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전국청년승가육화대회로 이어진다. 대회에서는 소장파를 주축으로 종단개혁을 위한 선림회, 교림회도 조직했다.

대불련은 1982년 자행된 '10·27법난과이에 대한 규탄·항의'로 변화의 전기를 맞는다. 1982년 개최된 화랑대회는 '한국불교 1600년 대회'로 개칭돼 진행됐다. 이 행사 이후 대불련의 운동 방향은 민중불교운동의 전파로 급격히 탈바꿈했다.

1983년 7월 17일 학인 스님, 청년불자 등 불교개혁 세력 2000여 명은 부산 범어사에서 전국청년불교도연합대회를 열고 청년불교도연합을 결성했다.

1984년 대불련은 10·27법난 규탄 성명을 시작으로 1986년 범불교도 차원의 '10·27법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항의시위 등을 전개했다.

1985년 이후 대불련은 '민중불교운동연합'을 창립하고 '해인사 승려대회'와 같은 불교운동에 동참하는 등 학생운동으로서 공개적인 활동에 나섰다.

민불련 창립은 불교권내의 사회변혁운동 세력이 하나로 합쳐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주도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창립 1년이 채 못돼 지도부가 구속·수배돼 활동이 정체됐다. 대불련 활동은 1986~1987년 '민주헌법쟁취 불교운동본부', 1988년 '민족자주통일 불교운동협의회' 활동의 근간이 됐다.

불교야학·근로자 법회 활발
사찰을 사회운동 근거지로한
'사원화 운동' 높이 평가 받아
학인 스님들도 개혁활동에 힘보태

민불련을 대체할 만한 '정토구현승가회'가 설립된 것도 이즈음이다. 정토구현승가회는 1986년 6월 전국의 승려 221명을 발기인으로 창립돼 재가자 위주의 민중불교 운동을 재가와 출가의 연합을 거쳐 출가승으로 바꾼 의미를 지닌다.

정토구현승가회는 1988년 6월까지 40여 회의 시국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회현실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표명을 촉구하고 대승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정토구현승가회의 활동은 1986년 9월 7일 2000여 승려가 모여 불교 자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천명한 '해인사 승려대회'로 이어졌다. 이 대회를 통해 불교계는 불교관계 악법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불교자주화 운동과 사회민주화 운동이 둘이 아니며 함께 가야 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해인사 승려대회는 최초로 불교 자주를 선포한 사건으로 현대 불교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이다. 대회에서는 논의조차 금기시 돼오던 10·27법난을 폭거로 규정하고, 정권과 불교계 수뇌부의 유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1988년 10월 27일 동국대에서는 '법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단을 위한 불교도 실천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외부적인 활동의 변화와 함께 1980년대 대불련은 내부적으로도 큰 변화를 맞았다. 창립 초기부터 종단 유력 인사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활동을 펴온 대불련은 1980년대에 이르러 후원이 끊기는 위기에 처한다.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덕산 이한상 거사의 도미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단절은 대불련 활동의 또 다른 돌파구가 모색돼야 함을 알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구도부 활동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



대불련 창립은 조계종단의 재정비와 보살불교, 기복불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포교의 다각화와 맞물려 있었다. 당시 종단을 주도한 청담·성철·탄허·광덕 스님 등은 불교 중흥의 주역으로 대학생 불자들을 인식했다. 스님들과 대학생 불자들의 현실인식으로 탄생한 것이 대불련 구도부다. 대불련 구도부는 대불련을 이끌던 핵심 학생들이 단순한 불교신행에 머무르지 않고 구도를 실행에 옮긴 조직체였다. 봉은사에 개설된 대학생 수도원은 1965년 9월부터 7년간 50여 학생들이 사찰에서 먹고 자며 수도하고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했다.

이에앞서 1965년 5월 구도부는 도선사에서 보현행원을 중심으로 법회를 열었다. 당시 구도부 일원으로 법회에 참가한 김선근 교수는 "일요일마다 오전 9시 도선사에서 청담 스님을 법사로 보현행원 법회를 열었다. 1주에 한번 씩 도선사에서 보현행원품 독경, 108참회, 운력 등을 했고 미래 서원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4차 대불련 수련대회 이후 13명의 구도부원들은 전국사찰의 선지식을 친견하는 구도행각에 나섰다. 이들이 새로운 구도의 길로 택한것은 대학생 수도원 입소였다.

1965년 9월 12일 대학생 4명과 지도교수 1명이 봉은사 사찰에 마련된 대학생수도원에 최초로 입소했다. 당시 4명의 학생은 김기중(경희대 3년), 이진두(서울대 3년), 이용부(동국대 2년), 김선근(동국대 1년)으로 동국대 박성배 교수가 이들의 지도를 맡았다.

이들이 봉은사에 입소한 이유는 머리로 생각하는 불교가 아닌 가슴과 발로 행하는 실천불교를 위해서 였다.

김선근 교수는 당시의 활동이 지금의 김선근을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김 교수는 김천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성동고교를 다니며 종로 대각사 룸비니학생회 활동을 했다.

당시 룸비니회 총재였던 청담 스님과의 인연이 이때 맺어진다. 청담 스님은 김선근 교수를 불교의 길로 이끌었다. 김선근 교수는 1965년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했고 동시에 대불련 구도부에 들어갔다.

김선근 교수는 "1965년 구도순례 이후 대불련 선배들이 봉은사 수도원 생활을 함께 하자고 했다. 당시 봉은사 주지였던 광덕 스님의 배려로 스님들과함께 새벽부터 용맹정진했다. 광덕 스님의 솔선 수범하는 모습에 크게 감명받았다"고 회고했다.

김 교수는 1967년 대불련 회장을 맡아 군승제도의 추진을 이끌었다. 김선근 교수는 국방부에 군승제도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대불련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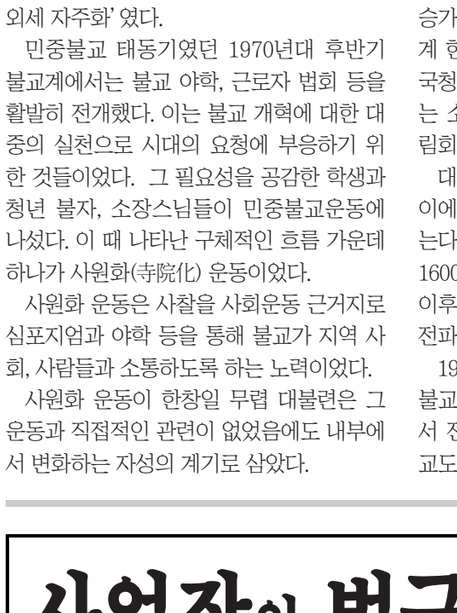
김선근 교수는 이때의 정진력에서 1994년 인도 네루대학 교환교수, 인도철학회 창립 등 인생의 분기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변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었다"며 "대불련 출신 중 교수·언론계·법조인·경제인 모임·교육계 모임을 모아 상생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톱니바퀴처럼 서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근 교수는 "불공 중에 최고 불공은 사람의 마음을 키워 부처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라며 불자들의 대불련을 향한 지원을 당부했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뭘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티베트스님 중국경찰 고문으로 사망

유혈사태 계속되자 티베트 망명정부 "국제사회가 개입해 달라"

중국의 티베트 지배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의 시위에 중국정부가 무력진압에 나선데 이어 최근 중국 경찰의 고문으로 스님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혈사태가 계속되자 티베트 망명정부는 "유엔이 나서달라"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다.

말레이시아의 부디스트채널은 "티베트인 출팀 가쵸 스님이 중국 경찰에 의해 칭하이 감옥에 6개월 동안 구금됐고, 구금기간 행해진 고문과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고 1월 23일 전했다.

부디스트채널은 "중국 당국은 하이난현에서 2011년 7월 한 수도승을 체포했다. 베이징에 거주한 작가 워즈가 이 스님을 구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구명 활동을 펼쳤지만 스님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스님은 1월 22일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출팀 가쵸 스님은 2006년 달라이라마의 불교 의식에 참가했다가 중국 경찰로부터 지명수배됐다. 스님은 2008년 3월 티베트 자유 등을 요구한 평화집회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스님의 사망과 관련해 "감옥 밖에서 발생한 포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

또, AFP통신은 중국 무장경찰이 설 연휴인 23일 종교탄압에 항의하는 티베트 스님들을 향해 발포해 1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스님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26일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쓰촨성 사이에 있는 간쯔티베트 자치주에서 23일에 이어 24일에도 반중 시위가 발생했다. 중국 치안부대는 시위대에게 발포했으며 중국 관영언론도 발포 사실을 보도했다.


2010년 10월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사상교육과 무력진압에 항의하다 중국군인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롭상 상가이 티베트 망명정부 총리는 "유혈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개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미국도 빅토리아 놀란드 국무부 대변인이 24일 티베트 유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명상, 기도의 본질 일깨우다

캐나다 서해안 명상캠프 늘어…기독교계 성찰의 계기로

명상은 불교의 수행 방편이고 기도는 기독교의 신앙 방편이다. 그런데 기독교계 사회에서 명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기성 교단이 이에 대응해야 한다면, 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캐나다 온라인 매체 타임스콜로니스트(www.timescolonist.com)는 1월 14일 '기도보다는 명상이 캐나다 서해안 지역민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잡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캐나다 서해안 지역이 명상과 기도의 대중적 관심을 가늠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에서 '명상에 대한 관심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울증과 신경증의 발병과 치유 과정'을 추적해 온 정신치료사((psychotherapists)들이 "두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보다는 불교적 명상으로 치유에 더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명상캠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상캠프의 수적 증가가 불교 교세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타임스콜로니스트에 따르면, "뉴 에이지(New Age) 성향이 강한 캐나다 서해안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명상이 종교적 수행으로서 선택되기보다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는 정신적인 여정으로써 선택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 즉, '불교 개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풀이했다.

반면 타임스콜로니스트는 "명상캠프 참가자들 중에는 고학력의 부유한 지도층이 많다"고 전제하고, "기독교계가 명상캠프에 쏠리는 대중적 관심의 단초를 살피며 명상과 기도를 비교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자기성찰의 계기를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해, 기도에 대한 기독교계의 변화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로부터 "전 세계인들이 삶의 영적 차원을 각성하고, 내적 평화를 찾으며, 기쁨과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도운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에크하르트 툴레(Eckhart Tolle, 밴쿠버 거주)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편안한 자세로 바라보는 명상은, 지금의 기도 방식으로는 얻기 힘든 영적 경험을 준다"며 "지금의 기도는 신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할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토마스 멀튼(Thomas Merton)의 관상기도(centering prayer)의 미덕이 절실하다"고 말해, 타임스콜로니스트의 보도를 뒷받침했다.

20세기 기독교 에큐메니칼리즘(ecumenicalism)의 선구자인 토마스 멀튼은 반평생 선불교 · 도교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깨달음의 목표가 결국 기독교와 같다고 이해함으로써 20세기 뉴에이지 흐름에 크게 기여했다. 뉴에이지란 기성종교(개신교, 가톨릭 등)의 획일적인 예배 · 찬양 · 믿음에서 벗어나 영적 깨달음을 토대로 자아를 발견하자는 서양 종교계의 혁신운동이다.


캐나다 서해안 지역민들 사이에 불교명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당 기독교계는 자성적 성찰로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사진은 '기도의 본래의 방법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밴쿠버 성공회의 대성당엘렌 클락-킹(Rev. Ellen Clark-King) 부주교

한편 타임스콜로니스트는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 불교 명상에 대한 캐나다 서해안 지역 기독교계의 반응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밴쿠버 성공회의 대성당 부주교 엘렌 클락-킹(Rev. Ellen Clark-King)은 "불교의 명상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묵상과 관조라는 기도 본래의 가치를 그리워하는 기독교도의 이탈된 선택"이라고 풀이하고, "명상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 서해안 지역민들은 여전히 '잠정적 기독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캐나다 기독교계는 찬양 · 고백 · 중재를 강조하고 있는 지금의 기도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엘렌 클락-킹 부주교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로 '무엇을 경험하든지 자신을 열고 감싸 안아라', 두 번째 단계로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기꺼이 받아드려라', 마지막으로 '공포, 노염, 불행조차 반갑게 맞아라'"고 역설했다. 불교 명상의 대중적 관심에 직면한 기독교계가 지금의 기도의 방식을 성찰하고 대중들에게 다가설 비상구를 찾고 있다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태국 스님 1127명 재난 지역 순례법회

1월 2~25일 23일간 6개 지역 365km 걸어

지난해 사상 초유의 홍수 재난을 겪었던 태국에서 1127명의 스님들이 23일간 '재난지역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태국의 온라인 매체 아시아뉴스잇(www.asianews.it)은 "빠툼타이(Pathumthani), 아유타야(Ayudhaya), 수판부리(Supanburi), 나 콘 파 톰 (Nakhon Pathom), 논타부리(Nonthaburi), 방콕(Bangkok) 등 재난 지역의 주요 사찰을 방문하는 365km 여정의 '재난지역 순례법회'가 1월 25일 성료됐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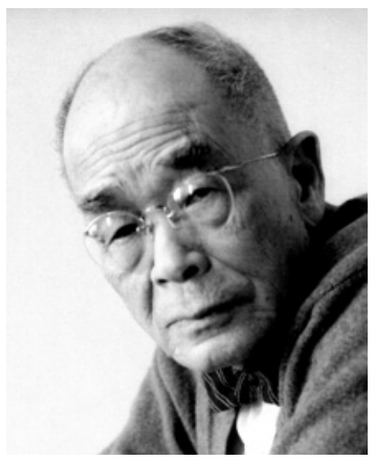
지난 1월 2일 담마까야사(Dhammakaya Temple)에서 시작돼, 25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붓다몬돈사(Buddhamondhon Temple)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이번 '재난지역 순례법회'에서 천여 명의 스님들은 23일간 도보(徒步)로 이동하며 재난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해당 지역 주요 사찰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재난지역 순례법회'의 대단원은, 복구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붓다몬돈사 순례였다. 홍수 재난으로 경내 · 외 모두 침수돼 부처님 생애를 표현한 높이 16m 불상과 경전을 새긴 1418개의 대리석 비석 등이 수해를 입었던 이곳에서, 스님들은 홍수 재난 직후 태국 불교계 안팎에서 조성된 1300만 달러의 복구지원금을 전달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선禪을 'Zen'으로 만들다

세계의 불교학자(4)

스즈키 다이세쓰 前 오타니(大谷) 교수



영어로 선(禪)은 '젠(Zen)'으로 알려져 있다. 서양 사람들은 '젠'이라는 용어를 통해 불교와 동양의 신비를 떠올린다고 한다. 그들에게 '젠'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단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일본어로 선을 뜻하는 젠은 서구인의 의식 속에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언어로 자리 잡았다.

'젠'을 영어의 고유명사로 정착시킨 사람은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학자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 1870~1966)교수이다. 서양에 선불교 개념조차 없던 시절, 스즈키 교수는 미국으로 건너가 선을 젠으로 번역해 서양인들에게 소개했다. 젠은 선의 일본어 발음이다. 일본에서는 선을 젠(ぜん), 선종(禪宗)을 젠슈(ぜんしゅう)로 발음한다. 일본인인 그가 선사상의 바탕조차 없는 서양에 선을 소개하기 위해 자국어의 '젠'을 그대로 차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선을 전통으로 계승하고 있는 한국불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스즈키 교수는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1870년 이시카와 현(石川縣) 가네자와(金澤)에서 태어난 스즈키 교수는 21세 때 동경으로 올라와 도쿄전문학교(現 와세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배우며 엔가쿠사(圓覺寺)의 임제종(臨濟宗) 승려 이마키타 코센(今北洪川) 지도하에 참선에 몰두했다. 스승 이마키타의 입적 후에는 그의 후계자 샤쿠 소엔(釋宗演)의 밑에서 선을 수행했다. 그렇게 참선수행에 정진하던 스즈키 교수는 소엔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다이세쓰(大拙)라는 법명을 얻었다. 그의 본명은 원래 데이타로(貞太郎)였으나 이때부터 다이세쓰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스즈키 교수의 스승 샤쿠 소엔은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종교대회에 참가하는 등, 일본불교와 선사상을 서구에 알리는 데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소엔의 후원으로 스즈키 교수는 27세인 1897년 미국으로 건너가 일리노이주 라살시에 있는 오픈 코트 출판사(The Open Court Publishing Company)의 편집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이때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영어로 번역하고, 〈대승불교개론〉을 출판해 일약 신진 불교학자로서 서구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1909년, 12년의 미국생활을 접고 39세의 나이로 귀국 했다. 그 해 10월 도쿄대학 강사와 학습원대학 강사가 됐고, 나중에 학습원대학 교수로 승진했다. 그 뒤 1921년 교토(京都)에 있는 오타니(大谷)대학 교수가 됐고, 영문지 〈이스턴 붓디스트(The Eastern Buddhist)〉를 창간, 불교사상을 해외에 소개했다. 1950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하와이대 · 예일대 · 하버드대 · 프린스턴 대학 등에서 불교사상을 강연했다.

스즈키 교수는 1966년 96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왕성한 연구 활동을 통해 영문 저서 30여 권, 일본어 저서 120여 권을 남겼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서로는 〈선과 일본문화(Zen and Japanese Culture)〉, 〈Essays in Zen Buddhism〉

임제종 승려에게 참선 지도 받고
영문저서 30여권 통해 선불교 알려
에리히 프롬 등 서구 심리학자들
불교사상 통한 연구 학문 교류

등이 있고, 일본에서는 이와나미(岩破) 출판사에서 출판된 총 30권으로 이루어진 〈스즈끼다이세쓰전집(鈴木大拙全集)〉이 있다.

오늘날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이나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 등 서양의 대표적 심리학자들이 불교 사상을 언급하는 저변에는 선불교를 서구에 알리는 데 일생을 바친 스즈키 다이세쓰 교수의 노력 때문이다. 특히 스즈키 교수는 융과 두터운 친분을 맺고 폭넓게 학문 교류를 했고, 융의 초대로 동서양 연구자들이 모여 종교학 · 심층심리학 · 신비주의 등을 논의하는 에라노스(Eranos) 회의에 출석하기도 했다.

스즈키 교수의 영향을 받은 융은 "선은 서양 철학이 말하지 않는 것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 융의 표현이 옳고 그름을 떠나 당시 서양 지식인들에게 선을 알리고 회자시킨 점은 스즈키 다이세쓰 교수의 가장 큰 업적이다. **주성원 기자**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컷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미 얀 마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 : 2월 23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920,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 3월 출발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양곤 | 바간 | 헤오 | 짜익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 인 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 ~ 6일 (요금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서울 금강불교대학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초발심자경문 불교학개론, 근본불교 불교문화사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입학원서1부(5,000원) 반명함판사진 3매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무 료
	2학년		한국천태종사 밀교사상, 천태수행론 금강경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법화경, 포교방법론 천태사교의, 유마경 중관사상, 천태정토 불교의식, 유식사상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지원서 1부 반명함판사진 3매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 25만원)

원서접수

원 서 교 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 접수 : 2011년 11월 21일 ~ 2012년 2월 17일 18시까지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 면접 : 2012년 2월 19일(일) 오전 11시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우면AP,관문사에서 하차)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주변 돌아보고 이웃 돕고 끌어안아야 사회 발전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

서울에서 차로 꼬박 5시간 거리에 청도 운문사가 있다. 바위산에 둘러싸인 운문사는 천년 넘게 수행자를 키워낸 성지이다. 운문사에서 42년째 살고 있는 일진 스님(운문사 주지)은 "운문사는 의보(依報)와 정보(正報)가 아름답게 조화된 도량이다. 시간과 공간, 사람이 조화를 이뤄낸 최고의 사찰이다"라고 말했다.

운문사는 1958년 비구니 전문강원이 개설된 이래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했다. 일진 스님은 1970년 학인으로 운문사에 처음 발을 들였다. 이후 강사로 활동하면서 후배 학인스님들을 교육시켰다. 1월 14일 종교와젠더연구소 옥복연 소장이 현대 비구니 교육의 중심역할을 한 일진 스님을 만나 대담했다.

정리= 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스님께서는 1978년부터 운문사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 학인스님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다. 과거와 다르게 요즘 학인스님들은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크다. 얼마 전 방학을 앞두고 강사 · 학인스님들이 토론시간을 가졌다. 당시 학인스님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강사스님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요즘 학인스님들은 예의가 바르면서도 직설적이고 단순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운문사를 비구니 사관학교라고 이야기 합니다.

"운문사는 굉장히 규율이 엄격하고 절제있게 사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운문사에서 42년째 생활
운문사 승가대 강사에 자부심
한국 비구니어서 감사하고 행복
수행자가 맘 놓고 수행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규율이 조금 허술하다면 스님들이 더 잘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다. 현대에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규칙들로 대중들의 내면적 자유나 여유로움을 뺏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때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학인스님들이 초심자들이고 걸음은 어떻게 걷고, 말은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먹는 지 등을 가르치는 도량이다 보니 서로가 불편해도 조금씩 감수하며 산다."

운문사 출신 스님들은 선후배 관계가 좋고, 대외적 활동에서도 반듯한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소임은 운문사 주지이나 본업은 강사다. 운문사 강원은 1780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다. 운문사를 나온 스님들이 자기 분야에서 타인의 신뢰를 얻고 공부를 하니 기분이 좋다. 이곳에서 생활할 때는 많이들 힘들었을 텐데…. 그들이 졸업하고 나서 도반들과 선후배들끼리 결속력 있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

지난 해 교육원 산하 교육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스님께서도 교육제도나 커리큘럼의 현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세대의 스님들이 원서강독에 대해 큰 부담을 갖는 건 사실이다. 완전한 교육개혁은 완벽한 지도 · 관리에 있다. 제도만 바뀌는 것은 완전한 교육개혁은 아니다. 인연에 따라 경전을 영어로 볼 수 있고, 한문으로도 볼 수 있고, 한글로도 볼 수 있다. 다만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스님은 현대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압니다. 대만과 일본에서 중국불교와 일본불교를 공부하셨는데, 일본과 중국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위상과 활동은 어떻습니까.

"1980년대 후반 대만학회에 참석하고 많이 놀랐다. 당시 불광산사 성운 대사는 스님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시했다. 대만 스님들은 비구와 비구니를 떠나 철저히 능력제로 활동하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대만 비구니스님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다.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버스비도 대신 내준다. 사회적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사회학자는 "수행자와 어린이가 보호받는 사회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했다. 대만이 그런 나라이다. 일본 비구니스님들은 생각보다 사회적인 위상이 저조했다. 오히려 대처승의 부인의 위치가 더 높은 듯 보였다. 일본은 남성우월주의가 짙어 많이 안타까웠다.

여러 번 생각해도 나는 한국 비구니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 한 때는 비구니가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이 커지다 보니 꼭 그런것 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만의 비구니스님들 소원이 한국에서 안거를 지내는 것이다. 대만 비구니스님들은 전문직 노동자처럼 노동이 많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수당시대의 중국불교의 모습이 남아 안거제도를 시행하는데, 대만 비구니스님들은 한국의 하안거와 동안거 문화를 굉장히 부러워했다. 수행자가 수행을 맘 놓고 할 수 있는 것도 복인 것 같다."

동국대 재학시절 '여성은 불가에서 열등한가' 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셔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말 여성은 불가에서 열등한 존재입니까.

"당시 승가대학(강원)은 6년제였다. 〈화엄경〉 공부를 앞두고 승가대학 4학년을 마친 뒤, 동국대에 입학했다. 동국대에 입학하고 3학년이 되니 생각이 많아졌다. 그래서 사형들과 함께 오대산 적멸보궁에 기도를 하러갔다. 그때 오대산 선방에서 수행하던 비구스님들이 있었다. 스님들 중 한 분이 비구니인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비구니가 백날 그래봐라' 라고 소리쳤다.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에 김동화 박사님이 쓴 초기불교에 관련 서적과 여성불교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부처님 당시 교단에서의 여성출가자의 상황과 위치, 분위기를 파악하고 싶었다. 그리고 노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다. 역사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노스님들로부터 과거의 여성불자의 역할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당시 논문을 쓰면서 느낀 것은 여성이 무조건 열등하고 남성이 우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성의 강함은 특성이지 우열의 기준이 아니다. 부처님은 벌레마저도 소중히 여기시던 분이셨다. 여성 수행자도 함부로 대하시진 않으셨다. 다만 여성은 여성만이 지닌 섬세함이 있다. 논문을 통해서 "여성의 자비로움과 섬세함, 남성의 강직함을 서로 조화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여성(비구니)과 남성(비구)이 조화를 이뤄 종단의 양 날개가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종단으로 거듭날 것이다. 한국 종단에서 비구스님들이 중심을 이루는 것은 계율 구조로 편안하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구조가 아닌 진리이다. 여성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필요한 곳에 회향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비구니의 참종권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구니회장 명우 스님께서도 선거 공약에서 비구니위상의 확보와 종회의원 증원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해 7월 종헌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에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비구니종회의원 의석수 개선방안' 도 제안하셨는데 비구스님의 참종권 확대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의 강함은 특성이지 우열아냐
여성의 섬세함과 남성의 강직함이
서로 조화해야 종단 발전해
자리이타 정신으로 자비사상 실천

"이번 종회에 참여해 많은 것을 느꼈다.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비구니스님들의 역할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비구니스님들은 열심히 배워야 하고, 비구스님들은 열심히 지도하고 이끌어줘야 한다. 무조건 종족만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다. 비구니스님들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제 몫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비구니의 역할은 강화된다. 억지로 투쟁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구니스님의 지위는 곧 불교계 재가여성의 지위와 연관되기 때문에 재가여성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명성 스님은 비구니와 우바이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단은 종헌에서 사부대중에 의한 종단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남성과 여성, 출가자와 재가자를 이분화해 차별하는 듯 보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진 스님은 … 1970년 재석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1971년 벽암회상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8년 월화회상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8년 운문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한 이후, 운문승가대학 중강과 교무를 역임했으며,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명성 스님으로부터 전강하고 강사로 취임했다. 1988년 대만 불학연구소에서 중국불교를 연구했으며, 1994년 일본 경도불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6년 운문승가대학 강사에 재임했다. 이후 2002년 운문승가대학 학감 취임, 2003년 조계종 교재 편찬위원, 2004년 단계 단니 갈마위원, 2005년 불교여성개발원 특별 자문위원, 2007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운문사 주지에 재직 중이다.

"조선시대는 불교와 여성들이 억압받던 시기이다. 여성들은 그 속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 당시 조선시대에 사찰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여성들이다. 여성들은 불교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했고 행복을 찾았다. 명성 스님의 말씀처럼 비구니스님과 여성 불자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여성의 장점은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이들까지도 포옹할 수 있는 마음을 발휘해야 한다. 현대는 다문화세대다. 요즘 내가 가장 관심 갖는 분야이고 공부해야할 분야이다. 비구니를 포함해 여성들은 할 일이 많다. 누가 어떤 지위와 역할을 주기 전에 알아서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군포교, 다문화포교 등 사회 구석구석에는 여성의 섬세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그렇게 점차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활동하다 보면 지위는 향상될 것이다."

무엇이 참 나의 모습이고 무엇이 허상의 나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 불자들에게 여성리더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끔 불교대학에 강의를 나가면 여성불자뿐이다. 남성들 대부분은 그 시간에 직장에 있어 강의에 참여할 수 없다. 나도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성은 복을 많이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출산 · 가족부양 등 모든 주도권은 여성이 갖고있다. 제대로 된 정치인도 여성이 잘 길러내야 한다. 앞으로 급변화 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모성애' 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한다. 모성애에 근본을 두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엄마' 는 본성이다. 이것에 입각해 살면 힘들어 할 일이 없다. 또한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자리이타는 보살정신이다.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끌어안아야 사회가 발전한다. 자기자신을 이롭게 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이다. 불자라면 자리이타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자비사상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고음질 무선마이크

• DX-707 스텐드 마이크



◆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일반형)
◇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작은 것으로 기꺼워 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소설가 문순태 선생

소설가 문순태 선생(72)이 사는 마을 이름이 '생오지生奧地' 이다. 생오지란 두메 가운데서도 아주 깊은 두메산골을 가리킨다. 선생은 대학교수 정년을 맞아 연구실에 그득했던 책을 어쩌야 할 지 고민하다가 고향 나들이 길에 만난 빈 카페를 샀다. "여기다 책을 두면 되겠다. 싶어서 샀는데 며칠 와서 자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엔 집사람은 오지 않으려고 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침마다 산을 한 바퀴 돌고 내려와서 아침을 먹으면 밥맛도 좋고 닭을 키워서 달걀을 먹고 채소도 심어서 먹으니까 돈 들 일도 별로 없고 조용하고 좋아요. 이젠 집사람은 아예 광주를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집필실에 들어서서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이 두툼한 우리말 사전이었다. 뭘 모르는 나그네가 소설가도 사전을 보느냐고 물었더니, 선생은 사전이 없으면 글을 쓰지 못한다고 했다. 늘 사전을 떠들어 보는데 요즘엔 쓰지 않는 친근하고 살가운 토박이말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고 아깝단다. "한때 가장 부러운 이가

"컬러텔레비전과 냉장고,
둘 다 사지 말고 하나는 남겨두라"
신혼부부에 '주례사' 하던 스님

우리 풀이름, 꽃이름, 나무이름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땀을 흘려 발로 뛰어 찾은 자료만이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선생은 사람들이 흔히 형용사나 부사에만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쓰지 않는 도타운 토박이말 가운데는 명사도 아주 많다고 한다. 잘 쓰이지 않는 토박이말을 작가들이 많이 쓰면 쓰임새가 높아져서 언젠가는 표준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는 문순태 선생. "제가 쓴 장편소설 〈타오르는 강〉이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책이 생각보다 잘 나가지 않아 걱정을 했더니 황석영이가 '형, 표준말로 다 바꿔버려, 그러면 많이 팔릴 거야' 그러더라고요. 고민 많이 했어요. 법정 스님이 〈타오르는 강〉을 다 읽으셨다기에 스님! 석영이가 여기 나오는 토박이말을 다 표준말로 바꾸라는데요. 그랬더니 토박이말은 그 고장 사람들 넋인데 더 살려 써야지 무슨 소리냐고 펄쩍뛰셨어요."

선생은 생오지로 옮겨온 뒤 창작집 〈생오지 뜸부기〉를 내고, 사진과 어우러지는 전쟁체험기 〈나를 울린 한국전쟁 100장면〉,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을 그린 소설 〈알 수 없는 내일〉, 에세이집 〈생오지 가는 길〉과 〈그리움은 뒤에서 온다〉를 내며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산 한 바퀴 돌고 와서 개와 닭 모이를 주고 나서 9시부터 12시까지 글을 써요. 요즘은 소쇄원瀟灑園을 소재로 장



소설가 문순태 선생은 우리가 쓰지 않는 도타운 토박이말로 작품을 쓰기로 유명하다. 잘 쓰이지 않는 토박이 말을 작가들이 많이 쓰면 쓰임새가 높아져 언젠가는 표준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때문이다.

편 하나 쓰고 있는데, 초고를 600매 쯤 썼습니다. 소쇄원을 조성한 양산보梁山甫라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15살 때 서울로 가서 조광조 선생 제자가 된 양산보는 인생 좌표인 스승이 능주로 유배와서 사약을 받자, 시신을 수습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둔하면서 소쇄원을 만든다. 소쇄원은 송순 김인후 유희춘 기대승 김성원 백광훈 고경명 임억령 정철 같은 선비들이 이곳에서 시를 쓰고 담론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막상 소쇄원 주인 양산보는 붓을 꺾었다. 양산보는 소쇄원 안에 봉황이 날아들기를 기다리는 대봉대待鳳臺란 초정草亭을 짓고 벽오동을 심었다. "옛 선비들은 나무 하나를 심는데도 뜻을 부여했어요. 형제가 우애 있기를 바랄 때는 앵두나무, 큰 학자가 나오기를 바랄 때는 회화나무를 심고, 은행나무 한 그루, 오동나무 한 그루, 매화나무 한 그루, 심을 때마다 저마다 다른 뜻을 기렸어요." 양산보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봉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스스로를 비우고 시 한 편 쓰지 않고 봉황을 품을 둥지만 튼실하게 가꾸었다. 대나무 열매를 먹고 오동나무 가지에만 앉는다는 봉황은 본디 봉鳳이었다. 그런데 뒤에 수컷(鳳)과 암컷(凰)으로 나뉘었다. 예서 가리키는 봉황은 암수 한 몸이었던 봉鳳새였을 게다. 너와

작은꽃이 품은 우주 보려면 낮아져야
"토박이 말 그 고장 사람들 넋이니
더 살려 쓰라고 스님께서 당부"

내가 갈등 없이 한 몸(鳳)이 되어 힘껏 날아오르는 후천개벽을 꿈꾸었을 양산보 생각에 잠시 넋 놓고 앉았다가, 법정 스님과 인연을 물었다.

"제가 전남매일신문사라고 야당성향을 띤 신문사엘 다녔어요. 그때는 기자들이 신문 행간에 의미를 담아내려고 애를 쓸 때가 아닙니까. 유신시대, 닫힌 사회니까 할 일도 별로 없고, 써봤자 제대로 된 글도 쓸 수 없어서 법정 스님한테 자주 놀러갔어요. 스님이 불일암에 계신지는 송광사 아래 광천지서에 전화를 걸어 물어봐요. 그때는 스님 움직임 하나하나 낱낱이 독재정권 촉수가 훑고 있을 때니까. 80년도 봄에 '봄이 오네' 라는 시리즈를 했어요. '봄' 이 상징하는 뜻을 담아. 맨 먼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법정 스님을 모셨지요."

그 뒤 선생은 80년 8월, 기자들을 무더기로 해직시킬 때 가장 먼저 잘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향신문사에서 나오는 월간지에서 법정 스님 인터뷰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직장을 잃어 한 푼이 아쉬웠던 선생은 스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부탁했다. 스님은 무슨 인터뷰냐고 그냥 놀다가 가라고 했지만, 그다지 거슬려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조금 있으니까 법정 스님 글을 너무 좋아해서 벌교에서 신혼여행을 송광사로 왔다는 신혼부부가 올라왔다. 법정 스님은 "그러면 내가 주례사 한 마디 하지"하면서 새색시한테 "컬러텔레비전은 샀소?" 운을 뗐다. 그때는 컬러텔레비전이 막 나올 때여서 웬만한 집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할 때였다.

"신랑이 '아뇨. 아직 못 샀는데요.' 그러니까 '살 거지요?' 하고 물으세요. 신랑이 '사주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는 샀소?' 또 이렇게 물어요. '냉장고도 사야지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러면 둘 다 사지 말고 하나는 남겨두라' 면서 '컬러텔레비전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나면 다음에는 또 뭣이 사고 싶겄소?' 계속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면서 '둘이 갖고 싶을 때 하나는 늘 남겨두라' 고 그러셨어요. 참 뜻 깊은 말씀이잖아요."

그 밖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슬기 몇 가지를 짚어주신 스님은 내려가는 신혼부부 등에 다 대고, 송광사 입구 초가집에 사는 노부부한테 꼭 들려서 몇 말씀 듣고 가라고 일렀다. "거긴 왜 들르라고 하셨느냐고 물으니까 가난한 노부부가 가진 것은 없지만 도타운 정을 나누며 오순도순 산다는 거예요. 당신 천마디 말씀보다 거기서 한 시간 머물다 가야 좋을 듯해서 그랬노라고….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화두처럼 던지는 이런저런 말씀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내려오는데 뛰어내려오면 말씀이 다 흐트러질까봐 조심조심 내려와서 기억이 사라질세라 송광사 아래 찻집에 앉아서 하나하나 떠올리며 꼼꼼히 적었어요."

말씀 끝에 법정 스님이 외환위기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 저녁마다 향을 사르고 천지신명에게 열심히 기도를 올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그러기를 여러 달.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옥황상제께서 그대 기도에 감동하셔서 내게 그대 소원을 들어오라 하셨으니 소원을 일러보라!" 느닷없는 소리에 어리둥절해 하던 선비는 "소원이랄 것도 없고, 그저 몸이나 가리고 제때 밥걱정 하지 않고 한가롭게 산천을 누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말했다. 그 말에 옥황상제 사신은 "아니, 그것은 하늘나라 신선이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인데 어찌 그대가 누리기를 바라는가. 부자가 되거나 귀해지기를 바란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참으로 들어주기 어려운 소원일세"라고 했다는데. 작은 것으로 기꺼워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다.

"스님은 장에 가는 걸 좋아하세요. '장에 가서 시골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겐 충전이야.' 그러세요. 같이 가보면 뭘 사지는 않고, 늘 어떻게 사느냐, 벌이는 얼마나 되느냐? 물어요. 장바닥에서 나물 같은 걸 뜯어다 파는 분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빈 마음을 지닌 가난한 이들 말간 모습을 좋아하고 아주 부러워하셨어요. 스님은 그 둘레 오일장을 다 꿰고 계셨어요. 순천, 승주, 주암…."

그 무렵 불일암은 달맞이꽃이 한창이고 대낮에도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귀촉도가 서럽게 울어댔다. "스님, 저는 귀촉도가 밤에만 우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는 낮에도 우네요. 하고 말씀을 건넸더니 스님이 '어젯밤에 귀촉도가 어찌나 서럽게 울어 쌌던지 잠을 통 못 잤어.' 그러세요. '귀촉도가 왜 스님을 잠 못 들게 했을까요?' 여쭸더니 당신이 전생에 누군가를 잠들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스님은 전생에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나는 전생에도 중이었을 것 같아. 어렸을 적에 스님이 탁발을 하러 오면 반가워서 졸래졸래 따라다니다가, 마을을 떠날 때는 동구 밖까지 따라가서 스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넋 놓고 바라보았다니까.' 그러셨어요. 전생에 스님이었다고 확고하게 믿고 계시더군요."

"큰 절까지 내려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상추쌈으로 요기를 때우더라고"하면서 스님이 차려주는 공양을 받기도 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상추와 생된장에 생오이 몇 조각과 된장에 버무린 취나물뿐. 간단한 '무소유' 밥상이었다. "그런데 스님, 불일암에는 왜 상좌가 없습니까. 허드렛일은 상좌스님한테 시켜야지요." 선생은 스님이 손수 차려 주는 밥상 앞에서 민망해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다. "상좌, 필요 없어. 아랫사람 하나 거두는 게 지옥 한 칸 끼고 사는 일이나 다름없거든.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한사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면 충분히 한 끼 때울 수가 있겠지? 돼지는 입이 맨 앞에 있지만 사람 입은 얼굴 맨 아래에 있거든. 사람은 먼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그다음이 먹는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먹기 위해 사는 듯이 먹는 것을 너무 앞세워."

법정 스님은 문순태 선생에게 시사時事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그런데 빠지지 말고 자연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뒤에 신문사 그만두고 에세이집을 묶을 때 신문에 썼던 칼럼들을 모아서 책을 내려고 했어요. '이거 쓰다가 잡혀가면 어쩌지?' 하면서 가슴조이며 썼던 칼럼들인데, 뒤에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제야 '아!' 알아들었어요. 생선은 썩기 쉽고 썩은 생선을 먹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감동이 밀려들더군요.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나무나 풀, 새들 이야기가 생명력이 있어요." 작은 꽃이나 풀잎 하나도 결코 하찮지 않다. 스님은 사람들이 본디 마음자리를 찾아 세상 ·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달아, 눈에 띠지 않는 작은 꽃 하나에 정성을 쏟게 했다. 맑고 향기롭게 '살림'.

"아랫사람 하나 거두는 게 지옥 한 칸 끼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사時事는 의미가 없으니 자연에 많은 관심을 가지라"

"이런 시골에 있으면 자연스레 낮아져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추나 채소를 심을 때 여기 분들이 제게 유치원생이라고 그래요. 저는 번번이 실패를 하거든요. 제가 한없이 낮아짐을 느껴요. 자연 속에서 낮아지고 사람들 속에서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질 수 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너무 행복해요." 이 때 선생 에세이 〈그리움은 뒤에서 온다〉를 읽었을 때 느꼈던 감동이 되살아난다.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순순하고 질박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담백함.

"글에서 사치를 부리고 깨달음을 드러낸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소설에는 지식인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지식인 눈은 굴절되어서 순수하지 못하죠. 외려 세상이 무지렁이라고 일컫는 이들이 훨씬 순수해요. 보면 본 대로, 느끼면 느낀 대로, 얼마나 깨끗해요. 있는 그대로 모습, 그 순결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법정 스님이 시장에 가셔서 순수한 그 사람들 이야기와 생각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느낄 뿐이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진 않잖아요. 낮아지면 세상이 더 잘 보여요." 말간 순수 앞에서 낮아짐이 깨달음이고 즐거운 도道다.

"제가 광주 살 때는 세상을 다 끌어안을 것 같은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로 내려와 보니 광대수염나물이라고도 하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작은 보랏빛 꽃이 있어요. 코딱지만큼 작다고 해서 코딱지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군락을 이루고 피는 모습이 정겹게 다가오더군요. 우주에서 내려다보기보다 그 작은 꽃이 품은 우주를 봐야 하거든요. 낮아져야 나를 낮춰야 보여요." 티끌 속 우주다.

"〈생오지 뜸부기〉라는 중편 소설도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세상' 이야기에요. 지식인이 도시에서 평생을 살다가 퇴직을 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미 사라져 버린 뜸부기를 찾아다니는 이야기지요. 뜸부기는 70년대에 다 사라졌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뜸부기는 거의 쇠물닭이에요. 뜸부기가 잃어버린 작지만 소중한 것들 상징이죠.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많은 것들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참새도 줄어들고, 아지랑이도 없고. 연자방아, 물레방아 따위는 말할 것도 없이 제비를 닮은 명매기(귀제비)는 있는데 제비는 없더라고요. 제비집이 아예 없어요. 소리풍경 세상을 새삼스럽게 다가왔어요. 자연이 지닌 원음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1월 9일자 법정 스님과 만난 사람들 홍쌍리 선생 편 '밀양에 대학생이' 는 '마을에 대학생이' 로 바로 잡습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인생은 발견이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삭풍(朔風)이 발가벗고 있는 나무를 흔들고 간다. 그래도 매화가지에는 꽃망울이 삐주룩 삐주룩 내밀고 있는 자태를 보고 있노라면 계절의 순환을 느끼게 된다. 침엽수들도 생기를 잃고 가지가 나부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봄이 신속하게 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상한 일이다. 저 나무들은 옷을 훌훌 벗어 버리고도 동(凍)장군과 어찌 맞설 수 있단 말인가. 그 원리는 간단하다.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시키지 않고 내면에 축적시켰다는데 있다. 만약 그 에너지를 발산시켜 모두 소진되었다면 존재의 의미는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에너지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쓰는 용도와 시기가 있다. 용도와 시기를 아랑곳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쓰다 보면 생태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개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흔히 쓰는 말이, '밖에서 너무 싸다니지 말고 속히 집에 돌아오라' 고 당부한다. 자식에게 에너지를 밖에 발산하지 말라는 뜻이 함축된 당부의 말이다. 더불어 집에서 내면에 에너지를 축적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내면이 부실한 사람은 부실한 건축물에 비유될 수 있다. 욕망의 이기심이 발동하다 보면 기초공사가 부실해지고 건축자재도 정품을 쓰지 않고 정량 배합도 등한하게 된다. 길을 걷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있다. 보도블록이 흔들리거나 이가 빠진 경우이다. 누군가가 손길 한 번 덜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내면세계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 에너지가 꽉 차지 않으면 인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작은 것이 큰 것이라는 말이 이런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인간의 내면세계에 채울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 막연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확장해 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세포들 사이에는 빈 공간들이 무수히 많다. 사실 우리 몸의 99퍼센트가 공간이다. 그러니 내면에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것이 공간 때문에 신경 쓸 일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보기도 전에 걱정을 앞세운다. 그 걱정은 상식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더욱 짙어지기 마련이다.

인간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발견이 아닐까 한다. 주변의 일상사에 눈을 뜨기는 쉽지만 각자의 내면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안 살림에 충실하기보다 바깥 살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성인의 삶의 모습을 보라. 한결같이 내면세계를 살피고 성숙시켰다. 석존이 6년 동안이나 깊은 명상에 들었던 것도 내면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정진이었다. 보리달마가 9년이나 면벽하고 있었던 것도 같은 이치이다. 역대 조사들의 면면을 보아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일상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확장해 가다 보면 일상에서 소홀히 여기고 지나쳤던 일들이 꽃잎에 맺힌 영롱한 물방울 마냥 투명하게 정신세계에 자리 잡게 된다. 그 영롱함은 고갈을 모르고 한 발짝씩 걸음을 내디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정과 친숙, 화해와 자비의 출렁 다리를 놓기도 한다. 우리의 에너지는 연소되어 흩어지는 굴뚝의 연기처럼 하찮은 것이 아니다.

눈이 시릴 만큼 명백한 사실도 부정한다. 자기 눈으로 관찰한 것들 까지도 부정하는 세상이다. 무엇 때문일까. 눈앞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화학약품이 든 사료를 먹고 자란 고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빤히 보면서도 자신이 보는 것을 부정하기 일 수다. 이러한 행위는 전적으로 이윤 동기에 있다.

발가벗은 나무 삭풍에 견딤은 에너지 밖으로 발산않고 수렴한 까닭 욕망 발동하면 내면 부실은 자명 성취보다 발견에 집중해야 행복

티베트 경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행운의 신은 수 없이 당신을 찾아오지만 당신은 그 자리에 없다."

신은 당신의 문을 수 없이 두드리지만 주인은 그 자리에 없다. 왜일까? 그것은 우리가 방랑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 놓고 밖으로 떠돌아다니기 때문이다. 몸을 떠나 다른 곳을 떠도는 나그네를 찾을 길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내집에 든 신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대책 없이 떠도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길은 발견 또 발견이다. 발견은 평소 그냥 스쳐버린 것들을 챙기는 것이다. 발견은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묘약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긴요한 처방전이기도 하다.

우리는 왜 새순이 돋는 나뭇가지에만 눈길이 가는 것일까. 어떤 타성에 젖어서 일 것이다. 나목의 가지에도 눈길을 주자. 그 가지에는 뿌리까지 내려가는 수액의 통로가 있다. 그 통로에는 인간의 이기심이 발동하지 않는 한 동맥경화가 없다.

※경전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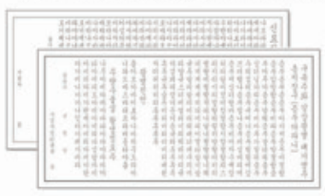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사경지※

반야심경 탑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종 류 : 한문,한글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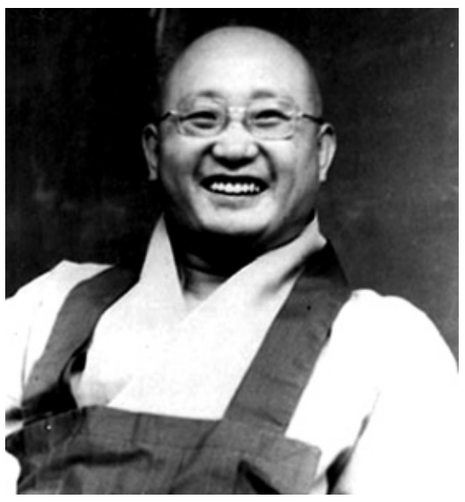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32개 국 120여 홍법원 5만 '숭산제자'의 고향

한국불교 세계화의 산실 화계사

조선 중종 17년 신월 선사 창건
흥선대원군 시주해 원찰 삼던 사찰
김옥균 · 무불 스님 등 개화파와 인연
숭산 스님 '世界一花' 피워낸 큰 스승


서울 수유리 화계사 전경. 사찰 규모는 작지만 화계사 스님들의 원력만큼은 세계를 누빌 정도로 컸다. 숭산 스님의 원력에 힘입어 1991년 국제선원 등이 들어서고 눈푸른 납자들이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찾는 곳이 됐다.


세계적인 선사 숭산행원 스님은 화계사를 한국불교 세계화의 산실로 일궈낸 주역이다.

요즘 출가수행자로서 해외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다. 유학지도 일본을 넘어 유럽과 미국으로 넓어졌다. 낯설고 물 설은 것은 물론이고 말도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스님들이 먼 이국땅에서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 학업을 마치고 그곳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며 한국불교를 알리는 첨병역할을 한다.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유학승들의 이런 노력이 있기 전까지 일본을 제외한 외국인 가운데 한국불교에 대해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국력이 약했던 탓에 그 나라 문화 역시 보잘것 없는 것으로 보는 편견도 있었다. 지금 우리가 개발도상국 문화를 보는 시각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불교는 해외에서 상종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수행의 올곧음이 살아있고, 오랜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불교문화의 우수함이 해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호평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동양문화라고 낮게 보는 편견 속에서 한국불교를 알려온 결과이다. 세계적으로 신장한 국력이 보태지면서 이젠 세계인이 우리의 불교를 배우러 오고 있다.

훌륭한 결과는 쓰라린 아픔을 담고 있는 법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을 자신의 숙명처럼 처음 걸어가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불교를 배우러 오고, 한국의 불교문화를 보고 찬탄할 것이다. 그런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토대를 만든 선구자에 대한 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울의 많은 사찰 가운데 일찍부터 세계화에 눈뜬 곳이 있다. 강북구 수유리 화계사이다. 이곳 역시 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다. 중종 17년(1522) 신월 선사가 창건할 때 서평군(西平君) 이공(李公)의 도움이 컸다. 중창 때에는 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군의 도움이 있었다. 근대에 들어서 1880년 11월 완화군(完和君) 이헌공(李獻公)의 명복을 빌기 위해 상궁 천씨(千氏) 등이 화계사에 불량(佛糧)을 시주하는가 하면, 대왕대비 조씨(趙氏)는 익종(翼宗)과 헌종(憲宗)의 명복을 빌기 위해 화계사 명부전에 불량토를 헌납했다. 대비는 이후 1883년 12월 관음전에 불량을 시주하는 관심이 많았다. 이런 왕실과의 인연은 1866년 불전과 승방 건물들을 중수할 때 흥선대원군이 크게 시주해 원찰로 삼을 정도였다.

여느 사찰처럼 제법 역사성을 간직한 화계사이지만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화계사에는 국제선원이 있어 눈푸른 납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이곳은 1991년 개원 이래 세계 각국에서 구도자들이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몰려오고 있다. 한국의 선을 체험하려는 수행자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았지만 수행과정은 녹녹하지 않다. 엄격한 선방규율에 의거하여 하안거 및 동안거를 지내야 한다. 한국불교를 알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매주 일요일 영어 참선법회 법문이나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 수행한 외국인 승려 가운데 한국사찰의 조실과 주지를 맡아 한국인에게 참선을 지도하는 스님들도 있다. 진정한 한국불교의 세계화라 말할 수 있다.

화계사는 일찍부터 세계화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 많았다. 근대 이곳에 머물며 개화의식에 투철했던 수행자가 무불(無不)이다. 본명이 탁정식(卓挺埴)으로 아버지가 참판을 지낸 양반가의 자제였으나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국운을 떨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불문(佛門)에 들어왔다. 백담사에서 출가해 강사를 지냈지만 일찍부터 개화된 문물을 알고자 화계사로 왔다. 이곳에서 운명적으로 개화파 김옥균을 만나 활동하게 되었다.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문물을 배우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았던 그는 넓은 세계를 알기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가 첫 번째 일본에 간 것은 같은 승려이면서 개화파였던 이동인이 일본의 변모된 사회와 국제정세를 파악할 때 그를 돕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일본행도 이동인이 한미수호조약(韓美修好條約) 체결을 알선하기 위해 청국공사 하여장(何如璋)을 만나러 갈 때 동행했다. 1880년 11월 5일 원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임무를 마쳤지만 귀국하지 않고 신호(神戶)에서 영국 영사의 한국어 교사가 됐다. 동경으로 옮겨서는 영국 공사에게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 주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양문물과 정세에 대해 알려고 노력했다.

세 번째는 신사유람단 13명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을 마치고 동경에 머물며 동경 외국어학교 교사로 취직했다. 1882년 4월 김옥균이 일본에 오자 일본의 실정을 들려주었다. 임오군란으로 김옥균이 귀국하면서 울릉도 목재운반을 부탁하자 배를 구입해 신호항(神戶港)에 왔으나 급병으로 1884년 유명을 달리했다.

화계사가 진정 한국불교 세계화의 산실이 된 것은 숭산행원 스님에 이르러서이다. 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출생해 1947년 10월 마곡사에서 출가했다. 1949년 1월 25일 고봉 스님으로부터 법을 전수 받고 숭산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1958 화계사 주지가 된 이래 불교정화운동 참여, 대한불교신문사(現 불교신문) 초대사장, 총무원 총무부장, 동국학원 이사 등 교계 안팎의 중요한 소임을 맡았다.

숭산 스님이 1966년 일본에 홍법원을 개원한 이후 한국불교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 시작은 작은 데서 비롯됐다. 종단 소임을 맡아 중구 초동 동국대 기숙사를 허물고 새집을 지으려 할 때 지하실에서 4000여 구의 일본군 유골이 발견됐다. 그곳이 일본 서본원사의 별원이었던 까닭에 전몰장병의 유해가 안치됐던 것이다. 화계사로 옮겨다 놓은 유골이 일본으로 반환되고, 이 일을 계기로 일본에 건너간 숭산은 재일교포들이 일본불교를 믿는 것에 몹시 안타까워했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어 일본포교를 결심했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힘들었지만 일본인 신도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동경에 홍법원을 개원할 수 있었다. 이곳은 일본에 사는 재일교포의 거점이 됐고, 일본에 유학한 한국학생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이곳이 번창하자 숭산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 인연은 그로 하여금 다른 나라로 가게 하는 인연을 만들었다. 그것이 1968년부터 절을 짓기 시작해 2년 뒤에 개원한 홍콩 홍법원이다.

숭산의 한국불교 세계화는 미국에서 절정을 이뤘다. 홍콩 홍법원이 마무리되자 미국포교를 제안 받았다. 1972년 봄 초청장과 비행기 표를 받은 숭산은 잠시 머물 생각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곳의 문화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미국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미국에 도착해 조그만 아파트를 얻고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참선을 지도했다. 영어를 하지 못한 선사는 통역을 통해 선을 설명했다. 그러는 사이 참선을 배우러 찾아오는 신자가 늘어 아파트를 옮겼다. 공간이 넓어지고 미국인들에게 불교를 잘 전달하는 통역자가 생기면서 아파트가 메어지도록 사람들이 몰려왔다.

좋은 일이 많아지면 싫거나 어려운 일도 많아지는 법이다. 미국은 한국의 신앙풍토와 달라 시주하는 신도가 없었다. 당연히 재정은 어렵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숭산 자신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세탁소에 나가 돈을 벌었다. 미국인 신도들도 낮에 일하고 저녁에 참선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참선하고 일터로 나갔다. 그러는 가운데 참선을 지도하고, 금요일 밤에 정기법회를 하면서 1972년 9월 뉴욕에 홍법원을 세웠다.

미국에 한국불교를 알린 숭산의 발길이 향한 곳은 유럽이었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수많은 곳에 도량을 건설하고 한국불교를 알렸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브라질 등 남미까지 전 세계 32개국 120여 개의 홍법원을 개설하고 5만여 벽안의 납자와 제자들을 두었다. 가히 세계를 포교한 분이라 할 수 있다.

1991년부터 화계사에 국제선원을 두고 한국으로 세계의 수행자를 불러들였다. 숭산이 이처럼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만공 스님으로부터 전해진 세계일화(世界一花)의 서원 때문이다. 그 뜻을 이루었으니 숭산은 진정 꽃을 든 남자이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람들이여, 깨달음의 지혜는 너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까닭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 육조단경 -

다라니 수지자는

광명의 깃발
신통의 창고!



법공양시 특별 할인!

다라니 수행
신묘장구대다라니경 강설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컬러 | 344쪽
2012년 1월 25일 발행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불자들이 가장 애송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그 첫 수행지침서이자 '긍정의 힘' 사용설명서

수행중에 '아공(我空)'을 체험한 덕양선원(cafe.daum.net/zeol) 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으로 창조력, 삼매력, 자비심, 용맹심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본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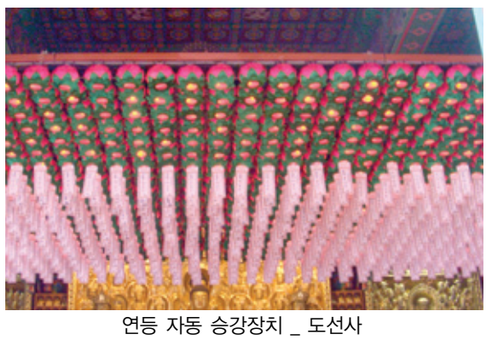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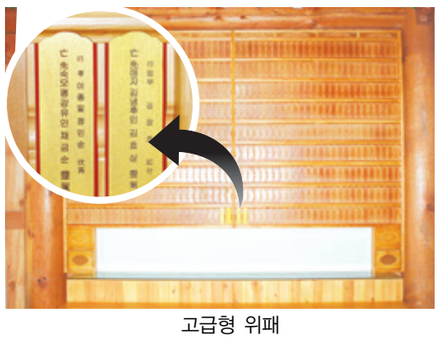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동정녀로부터 태어난 스님

수태고지(受胎告知)


산드로 보티첼리의 수태고지(1489年)

이태리 피렌체 출신의 화가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가 1489년에 그린 이 그림은 신의 계시(啓示)를 맡은 천사인 가브리엘(Gabriel)이 동정녀(童貞女) 마리아에게 처녀로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그림이다. 기록에 의하면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이라 한다.

많은 서양의 화가들이 즐겨 그린 이 주제는 성모(聖母) 마리아가 구교인 카톨릭에서 예수와 같은 신성(神聖)을 지닌 신앙의 대상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지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무염시태(無染始胎), 즉 마리아가 남성과의 성적인 교류 없이 원죄가 없는 순결한 임신으로 예수를 낳았기에 예수의 신성성(神聖性)을 함께 보증하는 사실(史實)을 그린 그림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신의 아들로서의 신성함을 지닌 데에는, 성모 마리아의 동정녀로서의 순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곧 예수는 온갖 악덕을 지닌 채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아들이 아닌, 완벽한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

진각국사 · 선각국사 탄생설화
동정녀 마리아 · 예수 설화와 비슷

주어 신(神)으로서의 예수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그림인 것이다.

한국불교사에도 동정녀(童貞女)에게서 태어난 큰스님들이 많다. 야사(野史)라고 하기에는 실증적인 지역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많은 기록들이 있어서 큰스님들의 거룩함을 다시 되돌아보게끔 한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和順邑)에 가면, 차천(車泉)이라는 샘물이 있다. 항상 맑고 시원한 물맛을 지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신다고 한다. 고려 중엽 이 마을에 배(裵)씨 성을 가진 호장이 살았다. 나이 40을 넘어 딸을 낳아서 금지옥엽으로 키우는데, 어느 해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호장은 감옥에 갇히고 만다.

아버지를 옥바라지 하면서 매일 샘물에서 물을 길어 죽을 쒀 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드리곤 하던 배씨 효녀는 어느 날 샘물에 떠있는 맛있게 생긴 오이를 먹고는 태기가 있어서 점점 배가 불러가서 아버지인 호장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열 달 후에 옥동자를 분만하게 됐다. 부모는 딸을 다그쳐서 남자를 만난 사실을 추궁했지만, 딸은 결단코 그런 일이 없고, 단지 샘물에 떠있던 오이를 먹었을 뿐이라고 한다.

결국 아기를 읍에서 떨어진 마을의 정자나무 아래 버리고 왔으나, 방에서 울고 있는 배씨 처녀가 안쓰러워 다시 아기를 버린 곳에 찾아가니 백학 한 마리가 아기를 품고 있는 기이한 광경을 보곤,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늘이 점지한 신비한 아기라는 것을 알고 키우게 된다.

아이를 밖에서 주워 온 것처럼 동네사람들에게 알리고는 배씨 처녀가 키우도록 하고, 준수하고 명민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탁발승(托鉢僧)이 쌀을 구하러 들러서 배씨 가족에게 "아이가 15세가 되기 전에 죽을 운명이 있으니 스님을 만들면 수명장수하고, 나라에 명성을 날리는 큰스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이를 절로 보내는데, 이 아이가 바로 송광사의 2대조사 진각국사 혜심(眞覺國師 慧諶) 스님이다.

신라 말기 풍수의 대가인 선각국사(先覺國師) 도선(道詵: 827~898, 전남 영암 출생) 스님도 비슷한 탄생설화를 지닌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굴산산문 개조 범일(梵日) 국사도 굴산(堀山)의 한 양가 처녀가 석천(石泉)의 물을 먹고 잉태해 14개월 만에 옥동자를 낳았는데 그가 곧 범일이라는 것이 강릉의 사료인 〈임영지(臨瀛誌)〉에 있다. 현재도 그 석천이 학산 굴산사지(堀山寺址)에 있다.

진각국사 혜심 스님이 생전에 새해를 맞이해 지었던, 정단(正旦)이라는 시(詩)로 2012년 임진년(壬辰年)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新年佛法爲君宣(신년불법위군선) 새해에 부처님 진리말씀을 그대들 위해 널리 펴리니
大地風流氣浩然(대지풍류기호연) 대지의 바람과 이 호연지기로써
宿障舊殃湯沃雪(숙장구앙탕옥설) 과거의 업장과 오랜 재앙을 모두 눈처럼 녹이고,
神光遍照日昇天(신광편조일승천) 신령한 빛 널리 비춰 해처럼 하늘에 오르기를.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불교명상음악 대중화 · 세계화 발원"

인터뷰

신효철 명상음반전문회사 콘텐츠코리아 대표

'명상'은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행 중 하나다. 명상은 외부에 집착하는 의식을 안으로 돌려 마음을 정화시킨다. 또 심리적 안정을 이루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휴식을 주어 몸의 건강을 돌보게 할 수 있기에 일반인들의 명상에 대한 관심은 크다.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초보자에게 명상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몸도 마음도 쉴 새 없이 요동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고요히 정신을 집중하기가 단 1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손쉽게 명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명상음반 전문회사 콘텐츠코리아의 신효철 대표(54 · 사진)는 "명상음악을 통해 쉽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며 명상음악을 권한다.

신 대표는 콘텐츠코리아를 통해 전 세계에서 발표되는 명상음반을 발굴해 국내에 소개하고 있다.

콘텐츠코리아가 지금까지 발매한 앨범은 200여 장. 이 가운데 60여 장이 명상음반들이다.

학창시절부터 올드팝과 월드 뮤직을 좋아한 신 대표는 클래식, 켈틱 음악, 이탈리아 칸초네, 그리스 음악, 뉴에이지 음악 등을 들으며 음악들을 명상과 연결시키면 어떨까하고 생각했다.

"파헬벨의 캐논은 멜로디가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반복명상 수련법을 연구하는 독일의 예방의학자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리듬의 음악이 명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효철 대표는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월드 뮤직, 켈틱, 인디언 피리, 티베트 음악 등을 비롯한 뉴에이지적인 명상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현대인들이 보다 쉽게 명상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는 명상 음악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죠."

2006년 콘텐츠코리아를 설립한 신효철 대표는 재즈, 뉴에이지, 월드 뮤직 발매부터 시작했다. 2008년부터 콘텐츠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명상음악을 본격적으로 발매했다.

신 대표가 라이선스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발매한 앨범들은 데바 프레말(독일), 나왕케촉(티베트), 크레이그 프루먼(영국), 사츠 데브(인도), 메리 영블러드(미국) 등으로 전 세계 명상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독일의 데바 프레말은 달라이 라마, 에크하르트 톨레 등 세계 명사들이 극찬한 뮤지션이다. 그의 음악은 만트라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 높은 예술성과 감각적인 그루브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츠 데브는 인도 전통악기 반수리로 인도 명상음악인 라가를 들려주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준



명상 초보자에게 명상 음악 효과 뛰어나
독경 위주 불교음반 시장 폭 넓히고 싶어

다. 그래미상을 2번 수상한 북미 인디언 피리연주자인 메리 영블러드는 영성적이고 예술적인 경지의 음악을 들려준다.

신효철 대표는 세계에서 각광받는 훌륭한 앨범들이 국내 불교음반시장이 협소한 까닭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호소했다.

"불교음반시장은 구매층이 다양하지 않아 음반을 내도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나 스님들이 보시용으로 구매하는 것이 전부니까 명상음반의 대중화는 아직 멀다고 봐야죠."

사정이 이렇지만 신효철 대표는 명상음반 만큼은 꾸준히 발매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의 명상음악가들을 발굴해 해외 명상음반업계에 소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독경 위주의 불교음반시장의 폭을 넓혀 불자 · 비불자, 연령 구분 없이 모두 불교 · 명상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정신 수양에 좋은 것이면 무엇이든 발매하고 싶네요.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실력 있는 명상음악가들을 발굴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채널을 통해 불교명상음악을 전 세계에 배포하고 싶습니다."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피리와 공명으로 명상하는 이색 음반출시

나왕 케촉, 켄 데이비스 명상음반

대나무 피리와 진언(만트라)을 접목하고 파동과 소리공명을 이용하는 등 독창적 시도로 탄생한 이색 명상음반이 발매됐다.

콘텐츠코리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티베트 대나무 피리 연주자 나왕 케촉의 '티베트 명상음악', 그리고 사운드테라피스트인 켄 데이비스의 '크리스탈 울림 주발 각성 명상음악'을 국내에 발매했다.

나왕 케촉의 20년의 여정을 담은
'티베트 명상음악(Tibetan Meditation Music)'

그래미상 지명자이자 승려 출신인 나왕 케촉이 자신의 음악여정 20년을 정리하는 앨범이다.

11곡이 담긴 이번 앨범에서 나왕 케촉은 명상적인 티베트 대나무 피리와 영적인 진언의 평온하고 장엄



나왕 케촉의 티베트 명상음악(좌)과 크리스탈 울림 주발 각성 명상음악(우)

한 소리를 고양하기 위해 리듬보다는 보컬, 티베트 명상주발과 종, 풍경소리 느낌의 드릴부, 가야금 소리와 유사한 우드, 마림바, 첼로와 바이올린이 내는 미묘한 하모니와 음색을 조화롭게 사용했다.

나왕 케촉은 "지금까지 발매한 앨범 중 가장 마음이 편안하게 하면서도 긴장을 풀어주는 앨범"이라며 "음악을 듣는 이가 스스로 자신 내면의 정적(靜寂)을 경험할 수 있도록 티베트 불교의 영적인 진언들을 다양한 악기로 연주했다"고 설명했다.

신비한 파동과 공명을 이용한 명상음악
'크리스탈 울림 주발 각성 명상음악'

크리스탈 울림 주발은 크리스탈(수정)을 소재로 과학적으로 소리를 조율해 만든 새로운 개념의 악기이다. 크리스탈 울림 주발에서 발생하는 공명음의 독특한 주파수는 두뇌의 알파(α)파를 증장시킨다.

사운드 테라피스트인 켄 데이비스는 계곡의 자연소리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아 앰비언트(Ambient) 사운드와 크리스탈 울림 주발의 하모니를 연주했다. 이 앨범은 우리 몸과 마음, 정신을 조화롭게 해 힐링센터 등에서 명상수련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켄 데이비스는 "멜로디 · 리듬이 근간이 되는 뮤직테라피와 환경음 · 자연음이 근간이 되는 사운드 테라피의 음악이면서 동시에 크리스탈 주발이라는 소리 도구의 특성을 도입했다"며 "다양한 크리스탈 주발의 음향들 중 치유력을 가진 특별한 주파수의 음역을 부드럽게 전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9권 출간!
홍화선사, 관계선사, 설봉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법성게 불자 건강카드 12
파동에너지발산용 칩 내장



만고의 진리인 법성게에 '파동에너지발산용 칩'을 장착하여 뇌파균형에너지가 작용되어 몸에 지니기만 하면 신체가 바르게 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차 건강해지며 남녀노소, 체질, 모든 사람에 부작용 없이 도움되는 획기적 기능카드입니다.

'법성게 불자 건강카드'는 몸에 지니고 12걸음을 걷는 순간, 바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 법성게공덕 + 건강기능 + 전자파유해성중화기능 + 수맥파유해중화기능
◈ 사용법 : 카드비닐을 개봉해야 에너지가 발산되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봉후 카드 하단에 개봉날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파동에너지발산용 칩'은 남녀공용으로 지갑,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해도 뇌기능의 핵심인 뇌파의 균형작용활성화로 인체의 좌우 균형을 잡아 소화기, 비뇨기, 순환기, 호흡기 등의 생체기능을 향상하여 불편했던 건강이 점차 개선됩니다.



(개발자 : 파동에너지발산용 칩 연구개발원 원장 김종석)
• 국내 실용신안등록 2건
• 미국 의료기기등록 (제370432010호)

방문하시는 신도분들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50장이상 구입 시 사찰명과 스님 법명 인쇄하여 드립니다.

총판 : 한국불교신도총연맹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화 : 010-3334-5121. 010-8833-1619. 070-8116-5121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한지 그림 매력에 빠져보아요

손끝과 종이의 자연스러움
조수정 한지갤러리 무료강좌


한지작품 '민들레'


작품 '옥락조'


조수정 회장

"한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지로 그림을 그린다?"

처음 의아하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한지 그림 갤러리를 방문해 그림을 보고 나면 입을 다물지 못한다. 섬세한 손놀림과 한지 고유의 자연스러움이 어우러진 미학이 찾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전통 한지에 화학물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천연염료만 색을 낸다. 이를 손으로 찢어 붙인 그림이 바로 한지 그림이다.

단순한 옛 종이로 평가 받기 일쑤인 한지, 한지는 닥나무 껍질을 가공해 손으로 만든 종이를 일컫는다.

한지는 우리 고유 전통 종이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서양 종이와는 다르게 은은하면서 푸근한 기운을 풍길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질긴 특성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이나 의생활에 주로 사용됐다.

이런 한지 속 우리 겨레의 삶과 슬기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이가 있다. 불자 조수정 수정한지 그림연구회 회장이다.

조 회장은 1985년 서울 동방플라자에서 한지그림 문화교실을 열고 한지공예를 시작했다.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당시 KBS 등 주요 언론 매체에 소개되며 국민들에게 한지의 세계를 알렸다. 28년간 조 원장에게서 한지그림을 전수받은 이들이 수만 명에 이르고 공식 사범만 500명에 달할 정도다.

최근 조 회장은 서울 대치동에 '한지그림갤러리'를 새로이 개관했다. 무료로 운영하는 갤러리에서는 천연염색을 비롯해 한지와 관련된 공예기법이 전수된다.

또 한지그림갤러리에는 다양한 한지 상품들도 눈길을 끈다. 한지로 만든 도자기 찻잔 접시 다관 등을 비롯해 넥타이 머플러 핸드폰줄 등도 전통한지와 돼지가죽을 이용해 전통기법이 선보인다.

조 회장이 지켜온 전통기법은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표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남녀노소 모두가 자신의 감각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창작 작품을 실생활용품에 활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새해를 맞아 이 곳에서는 한지그림 강좌를 연다. 부채만들기, 식탁매트 만들기를 비롯해 직접 한지 그림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목·금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30분, 오후 2시~4시 한지그림 강좌를 개설한다. 강좌가 없는 날에는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해 예약후 한지그림 갤러리를 방문하면 한지공예를 체험할 수 있다.

조수정 회장은 "불교용품을 비롯 한지를 이용한 새로운 생활예술을 통해 한국 전통을 알리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02)501-1505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자로 잊혀진 역사를 읽다

국립경주博 이차돈 순교비 등 '고대의 문자를 읽다' 展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2월 12일까지 특별전 '고대의 문자를 읽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했던 '문자, 그 이후' 특별전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전시이다.

전시는 고대의 문자를 살펴보면서 역사자료로서의 의미와 그 맥락, 해석 등을 생각해보는 시간 등 4부로 구성됐다.

제1부 '한자의 수용'에서는 중국의 나라들과 갈등을 겪거나 교류하면서 한자를 접하기 시작하던 모습을 소개한다. 고조선에서 받아들인 중국의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와 명문 청동기를 볼 수 있다.

제2부 '통치의 기록'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이 문자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했던 사실들을 살펴본다.


경주 황룡사 목탑 찰주본기, 통일신라, 세로 22.5㎝

제3부 '불교의 기록'에서는 불교 유입과 동반해 문자가 더욱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된다. 불교의 미술품 중에는 명문 기록이 남겨진 경우가 많아 관련된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데 큰 도움을 준다. 황룡사 구층목탑을 만든 경위와 탑을 수리한 기록들을 새긴 경주 황룡사 목탑 찰주본기가 그러한 예이며, 장흥 보림사 석탑지, 이차돈 순교비 탁본 등의 유물들을 볼 수 있다.

제4부 '생활의 기록'은 문자가 폭 넓게 활용되면서 생활과 관련된 기록이 많이 남겨졌음을 살펴보는 자리다. 일반적인 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종이 보다 나무를 깎아 만든 목간을 더 많이 사용했는데 이 목간에는 각종 요리재료들과 장류, 젓갈, 약재 등이 쓰여져 고대인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054)740-750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화택(火宅)



힘든 세상이다. 집을 나선 아이들이 학교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세상. 태풍을 견디지 못한 낙과처럼 읽을 수 없는 유서들이 뒹구는 세상. 문 밖에 무엇이 있기에 밤보다 낮이 더 무섭고, 저녁이 되어도 두 다리 보다 마음이 더 고단할까. 힘든 세상. 나는 나여서 너는 너여서. 속세는 속세대로. 산중은 산중대로. 생각은 만 가지.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불타는 집은 여전하다. 아니 점점 더 뜨겁다. 금오선사 법문집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 중에서 가져다 쓴다. "괴롭고 괴롭다. 고해(苦海) 중에 빠진 몸이여! 화택 중에 타는 몸이여! 괴롭고 뜨겁구나. 천하의 인류가 끝내는 어디로 가는가. 세상만사를 살펴봐도 모두 허망하고 괴로울 뿐이다. 백천 가지 고통 중에도 유독 생사의 괴로움이 제일 크구나." 산중의 까치집에도 아침이 밝는다. 어미 까치는 벌써 나갔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남악태우 선사의 '비온 뒤 언덕에 올라 감회를 읊음[雨後登皐咏懷]'

눈 앞 경계 모두 허망함을 알아버렸네

雨霽長空露太陽 (우제장공로태양) 비개인 높다란 하늘 태양 드러나고
碧天虛豁正蒼蒼 (벽천허활정창창) 탁 트인 파란하늘 정말로 아득하구나.
淫氛洗盡江山靜 (음분세진강산정) 칙칙한 기운 다 씻기니 강산이 깨끗하고
景氣淸纖世界彰 (경기청량세계창) 햇살 맑으니 세계가 선명하네.
今日始知前境妄 (금일시지전경망) 금일에야 비로소 알겠네. 앞의 경계 허망함을
昔時空被外塵傷 (석시공피외진상) 옛날 헛되이 바깥모양에 손상 입었네.
游眸四海無纖靄 (유모사해무섬애) 눈길 사해에 두니 작은 구름도 없는데
萬象皆吾一器量 (만상개오일기량) 온갖 양태가 다 나의 한 기량이로다.

조선 남악태우(南岳泰宇; ?~1732) 스님이 비가 개인 후에 포행하며 지은 시이다. 이제 막 비 그치고 드러나는 태양과 아득한 푸른 하늘, 비로 인해 칙칙하던 기운이 씻어져 온 산은 깨끗하고 햇살은 맑고 선명하기만 하다. 이러한 풍광은 제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은 스님의 마음거울에 비친 모습이다.

스님은 지난날 바깥대상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제 눈 앞 경계가 모두 허망해 실답지 않음을 알아버리니 눈길이 가는 모든 곳에 실낱같은 걸림도 없다. 모두 내 마음에 달려 있을 뿐이다. 실체 없음을 철견(徹見)한 스님의 기량을 드러내 보인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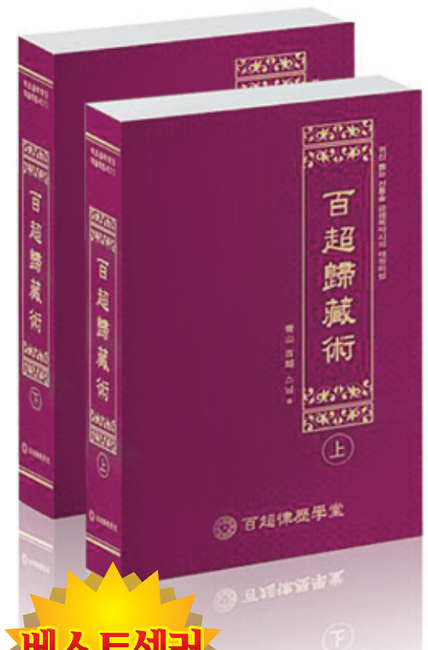
어느 한 청신녀가 어른스님의 뒤에 후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존경심과 환희심이 우러난다 했다. 어른스님께서는 "뒤에 후광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아마도 보살님이 그러한 눈으로 보아서 그럴 것"이라 말씀했다. 이 시에서 강조한 '대상은 내 마음의 투영된 모습일 뿐'임을 보여준 예이다.

새해가 또 시작됐다. 불안(佛眼)으로 보자면 해[年]이 있으랴마는 우리들이 새해를 설정해 놓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더 나은 나의 마음도량을 가꾸기 위한 바람이기도 할 것이다.



새해에는 나의 마음거울을 바로 보아 모든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래본다.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 · 조계종 교수아사리)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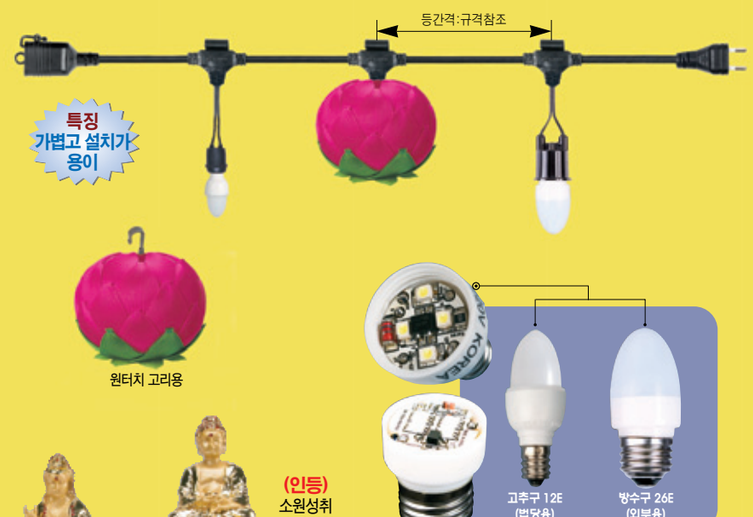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41)943-6882,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불제재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다라니 수행은 긍정의 자기계발 수단

법상 스님 "기도하면 길 열려"



다라니 수행
법상 스님 지음
비움과 소통 펴냄
1만5000원



한국 불자들이 아침 · 저녁으로 외우는 〈천수경〉 그 가운데 불자들이 가장 널리 외우는 〈천수경〉의 핵심 진언이 '신묘장구대다라니' 이다. 뜻 모를 문자를 읽고 외우며, 단지 그냥 그렇게 해야하는 줄로만 알았던 다라니수행에 관한 지침서가 나왔다.

법상 스님(일산 덕양선원 · 사진)은 최근 저서 〈다라니수행〉을 통해 〈천수경〉 원본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을 처음으로 해설했다. 또, '광명의 깃발이자 신통의 보물 창고' 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한 집중수행이 참된 행복을 불러오는 자기 계발서이자 긍정의 힘 사용설명서로 책을 편집해 펴냈다.

책은 다라니수행법 뿐만 아니라, 보리암 보문사 낙산사 향일암 등 국내 4대 관음성지의 관세음보살상 사진과 故 만봉 스님의 관세음보살도 등 관세음보살도상을 컬러화보로 곁들여 읽는 이로 하여금 신심을 더하도록 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천수대비주 대비주 천수다라니 대다라니 등으로 불린다. 이 진언은 무량억겁전 천광왕정주여래가 처음 수행을 시작한 초지(初地)의 관세음보살과 일체 중생을 위해 설했다.

관세음보살은 천광왕정주여래로부터 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한 번 듣고 초지에서 제8지로 수행의 경지가 상승했다. 제8지는 부동지(不動地: 대승보살의 십지 중 여덟째, 무상의 지혜가 끊임없이 일어나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계위), 불퇴전지이다.

저자는 "관세음보살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한 번 듣고 이른 경지는 흔들림이 없는 경지이다. 청정한, 물들지 않는, 나고 죽음에 아무 관련이 없는 여여한 경지이다"라고 설명한다.

관세음보살이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초지에서 8지로 껑충 뛰어올랐기에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속초상지다라니(速超上地陀羅尼)' 라고도 한다.

저자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수지독송하게 되면, 보살 십지과위(十地果位)의 여러 단계를 차례로 거치지 않고, 즉시 본래의 마음자리에 들 수 있다, 빨리 오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불자들 대부분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해석하지 않고 뜻도 모른 채, 설사 뜻을 안다고 해도 뜻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뜻을 해석하지 않고 오직 독송함으로써 좋은 마음이 나오기 이전의, 좋은 글이 나오기 이전의 우리 생명의 본래자리에 닿는, 근원에 바로 닿도록 하는 수행이기도 하다. 뜻을 알지 못해도 오직 일심 독송함으로써 지혜와 자비의 광명에 바로 연결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다라니를 집중하며 암송해 잡념이 사라진 상태가 돼야한다고 강조한다. 즉, 다라니와 나의 구분 없이 신묘장구대다라니만 뚜렷하게 남겨진 상태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모든 잡념을 다 버리고 오직 주인자리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올인' 하셔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몸과 온 세포에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스미도록 모든 정성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올인' 하면 무량삼매 이뤄지고 지혜·자비생겨

저자는 이때를 무량삼매(無量三昧: 한량없는 삼매)가 이뤄지는 때라고 말한다. 또, 이것이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빛이 되고 지혜덩어리가 되고 자비덩어리가 된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 경지를 책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다라니수행을 불자들의 구경득지를 위해서.

"다라니수행을 계속 하다보면 모든 마음이 사라져서 텅 비어버리고, 몸에 대한 느낌도 사라지고, 안이고 밖이고 다 맑고 밝아져서 오직 신묘장구대다라니만 뚜렷하게 됩니다. 그럴 때, 더 지극하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본성입니다. 본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책에는 부록으로 효성 · 수월 · 용성 · 상월 · 광덕 · 숭산 · 통광 스님 등 한국 선지식들의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과 깨달음 영험담 수행법을 첨부했다.

저자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는 위대한 창조력이 있다"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송하면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져 말이 밝게 바뀌고, 행위가 자비행으로 변화하며,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성취가 이어진다. 삶이 뜻대로 열려가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서재탐방 | 은정희 前 서울교대 교수

"괴도 루팡이 원효저술 번역의 씨앗 됐죠"

계층 간 대립과 갈등 · 분열이 고조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 과 '화합' 이다. 불교에서는 이 같은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원효 스님과 화쟁사상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한다.

은정희(74) 前 서울교대 교수는 평생 원효 사상 연구에 몰두해온 학자다. 그는 원효 스님의 주요 저술인 〈대승기신론소 · 별기(大乘起信論疏 · 別記)〉〈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이장의(二障義)〉를 완역한 인물이다.

원효 스님의 저술은 당시의 철학분야를 넘나드는 자유로움과 웅대한 스케일, 그리고 함축적인 서술로 인해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은 교수의 업적은 더욱 빛을 발한다.

은정희 교수가 수많은 불교사상가들 중에 유독 원효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그의 집을 찾았다.

은정희 교수는 "서재를 치우지 않아서 지저분한데…" 라며 2층으로 안내했다. 거실에는 경전을 강독하는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주위에는 한문 번역을 위한 한어사전들과 〈국역일체경(國譯一體經)〉등 전집류들이 꽂혀있었다.

은정희 교수는 2층에 있는 방 2개를 모두 서재로 쓰고 있었다. 그 중 한쪽 방문을 열어 서재를 보여줬다. 방 전체에는 도서관을 연상케 하듯 무수히 많은 책들이 진열돼있었다.

"만권은 훨씬 넘을 거예요. 유학, 성리학, 장자, 노자를 비롯해 불교관련 서적들이 주를 이루죠. 〈팔만대장경〉〈남전대장경〉〈신수대장경〉 그리고 일본의 인도 · 불교철학자인 우이하쿠주 전집 등 굉장히 많죠. 책이란 책은 거의 다 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독서광이었던 은정희 교수에게 원효학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 문제에 처음 눈뜨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괴도 루팡〉을 읽으면서 시작됐다.

"고성(古城)의 방들을 수색하던 탐정 조수가 '저기에 아름다운 왕비와 위엄 있는 왕이 앉아있었겠지' 라고 말하는 대목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책상보다 내가 더 먼저 없어지겠구나' 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두어 달 동안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했어요."

은정희 교수는 정답을 찾지 못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고 결론을 지었다.

고등학교 시절, 은 교수는 신학대학을 나온 선생님의 영향으로 독일 역사가 · 문학철학자인 오스발트 슈펭글러의 〈서구의 몰락〉〈인간과 기술〉과 영국 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등을 읽으면서 문명 비평가, 사상가, 철학도, 역사학도 등의 꿈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부친의 뜻에 따라 은 교수는 고려대 법대에 진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한 뒤 취직이 되지 않아 아버지와 오빠, 세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2년 반 동안 했다.

그러다가 1960년 조계사 일요법회에서 이기영 선생의 〈금강삼매경론〉 강의를 들으면서 원효 사상을 전공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다. 어릴 적부터 생사문제를 고민해 온 은 교수에게 이기영 선생의 강의는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그로부터 8년 후, 은 교수는 고려대 철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원효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태동고전연구소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조규철 선생 등에게 한문을 배워 원효 저술을 강독했다. 그때 동료 학자들과 모여 발표하고 토론한 강독은 원효의 저술을 번역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



은정희 교수의 자택은 개인 도서관을 연상케한다. 만권이 넘는 그의 서재는 독서광인 은 교수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이기영박사 '금강삼매경론' 강의에 매료 생사문제 투철하게 고민하다 원효학 택해

원효 저술을 완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은정희 교수가 유년 시절 다독(多讀)을 경험한 것과 무심코 읽은 〈괴도 루팡〉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정희 교수는 독서광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광수, 김동인 작가들의 소설을 즐겨 읽었다.

"어린 시절 원효 스님의 일생을 생생하게 살려낸 이광수의 장편소설인 〈원효대사〉를 감명 깊게 읽었어요. 원효 스님과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죠. 김동인의 〈운현궁의 봄〉은 조선 말기, 왕권을 복원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한 흥선대원군의 이야기인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한 시대를 통찰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인고의 세월을 잘 그려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쇼 라즈니쉬가 위대한 인물 스무 명을 만나면서 현대인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는 〈위대한 만남〉은 은 교수에게 인생의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

현재 은정희 교수는 매일 학자와 제자들과 자택에 모여 〈열반경종요(涅槃經宗要)〉를 강독 · 역주하고 있다.

은 교수는 "40여 년 동안 한국의 불교사상가들을 섭렵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번역서나 역주서가 너무 부족했다는 사실"이라며 "그래서 원문 이해에 필요한 한문 · 유식 · 논리학 · 구사 · 중관 등의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불교사상가들에 대한 보다 빠른, 보다 많은 역주서가 나올 수 있도록 후학 양성을 포함한 종단 내지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당부도 전했다.

원효에 푹 빠져 사는 미혼인 은정희 교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원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결혼할 거냐"고. 은 교수는 대답한다.

"결혼? 글쎄요. 제가 할 일은 공부와 깨닫는 일입니다. 앞으로 사는 날 까지 제대로 원효의 주석을 철저히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8~1/24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3	인생을 바꾸는 하루 명상	보경	조계종출판사
4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5	엄마수업	법륜	휴
6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명진	말글빛냄
7	마음수업	이광정	휴
8	법정 나를 물들이다	변택주	불광출판사
9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10	원각경이가해	황정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대 구 연락처
대구 (지장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053)632-0078
010-9243-0113 범성스님 합장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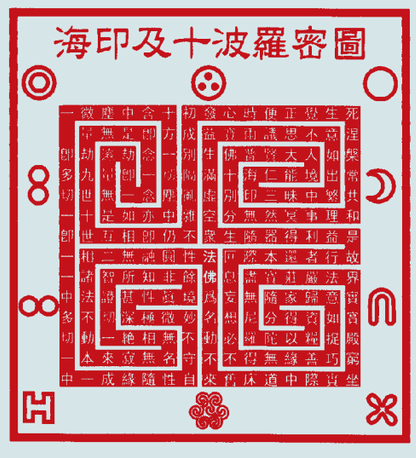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특허등록(30-0607637)

法性圖 所持者 成就一切萬法 消滅一切諸障碍
법성도 소지자는 일체 만법이 성취하고 일체 마장 소멸한다.

법성도는 心지요체 정법입니다.
혹 方便으로 사용하고있는 符籍보다는
천만배 이상 靈驗과 隨乘한 공덕이 있습니다.
회화나무 꽃으로 수제품 딱종이에 염색한
槐黃紙에 鏡面朱砂로만 특수 제작하여
불자님들께 護身(휴대)용으로
염가 普及합니다.

호신용 액자용 부처님 점안 복장용
윤달 예수제용 등 주문제작합니다
槐黃紙 원지 판매합니다.



법 성 원
전 화 : 051-532-1113, 010-8258-9963
홈페이지 : www.bswon.com
은행계좌 : 농협 837026-56-062884(이상경)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에서도 구입가능

현대 한국불교를 빛낸 115명을 만나다

활안 스님 본지 연재물 엮어 펴내



내가만난선지식
활안 한정섭 지음
불교통신교육원 펴냄
1만 5000원

"선지식은 나의 스승이요, 눈이요, 나루요, 지혜이다." 〈화엄경〉 말씀이다. 경전에서 선지식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선지식을 의지하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가며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무지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활안 스님이 본지에 연재됐던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을 정리한 저서 〈내가 만난 선지식〉을 펴냈다.

저자는 조계종전국신도회 법사1호로 활동해 온 포교전문가로 불교계에서는 한정섭 법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생활의 불교화 · 세계의 불국토'라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저자는 교육 · 복지 · 해외활동 등 다양한 포교활동을 펼쳐 왔다.

저자가 만난 선지식들은 다양하다. 국내외 스님뿐만 아니라 원력이 높았던 재가자도 포함돼 있다.

▷송광사 추강 스님 ▷쌍계사 효봉 스님 ▷오대산 탄허 스님 ▷상원사 희섭 스님 ▷금오산호랑이 금오 스님▷前 동국대 이사장 기산 스님 ▷前 동국대 총장 백성욱 박사 ▷참사람의 주인옹 서옹 스님 ▷법륜사 대륜 스님 ▷원효종 종정 법흥 스님 ▷용화사 율사 묵담 스님 ▷숭산 스님의 법은사 고봉 스님 ▷칠보사 석주 스님 ▷신통도인 탄공 스님 ▷뇌허 김동화 박사 ▷천태종 상월 조사 ▷일붕 서경보 스님 ▷불입종 종정 홍선 스님 ▷통도사 조실 경봉 스님 ▷인도불교의 개척자 암베르카르 ▷티베트 달라이 라마 ▷중국 거사불교의 대표자 조박초 선생 ▷미얀마 밍군 스님 ▷캄보디아 텝봉 스님 등. (이상 책의 115명 가운데 발췌)

책은 저자가 직접 만난 선지식을 회고하는 것에 문헌과 구전으로 전하던 선지식들의 면모를 글로 풀어낸 것이다. 저자가 직접 만났거나 글 · 말로 대신 만났거나를 따지지 않고 저자는 선지식들과의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옛이야기 전하듯 구수하게 전달한다.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한 폭의 그림들처럼.

저자는 "불교에 들어온 지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분도 있고, 또 기억이 잘되지 않는 분도 있다. 대강 찾아 글을 쓰다보니 그분들의 인격에 손상이나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한 달에 네 번씩 1년 56회 정도로 끝내려고 했던 글이다"라며 "여기저기서 '왜 우리 스님은 안나오냐'는 통에 2년 가까이 연재하게 됐다. 그러다보니 2년에 가깝게 연재하며 100분이 넘는 분들에 관해 쓰게 됐다"고 말한다.

저자 활안 스님은 1965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저자는 포교활동을 하던 중 불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교를 공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다수의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저자가 설립한 교육기관은 서울 청량리동 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불교통신대학, 나란다삼장불학원(강원교육), 불교예술대학 등이다.

저자는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하루 40여 회의 강의를 소화해 내며 불교교육의 생활화 · 다양화에 진력했다. 국내 포교뿐 아니라 저자는 태국 · 몽골 등 해외포교에도 힘썼다.



저자의 포교를 향한 원력은 책의 출간 이유에서도 오롯이 증명된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에서 "현대불교신문의 요청으로 망설이다가 50년 동안 내가 만났던 선지식들을 연재키로 해 2년 동안 신문을 메워왔다"며 "삼각산 문수원 천일기도의 회향일에 맞춰 동참불자들에게 무엇으로 회향할까 고민하다 책으로 엮어 펴내게 됐다"고 적었다. **조동섭 기자**

생산도 소비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윤성식 고려대 교수 연기자본주의 제안



불교자본주의
윤성식 지음
고려대학교 출판부 펴냄
1만 6000원

현대 시장자본주의의 심각한 문제는 인간을 존중하는 윤리의 실종이다. 재벌기업들은 시장과 정부의 우선순위를 교란시키고 막대한 자본으로 언론보도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심지어 정치권력마저 사들이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저서 〈불교자본주의〉에서 시장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불교자본주의를 제안한다.

얼핏 보기에도 불교와 자본주의는 병립되기 어려운 단어들이다. 무소유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불교와 무한경쟁 · 이윤 극대화를 기치로 하는 자본주의를 한 단어로 묶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발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시장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은 불교자본주의이며, 이는 곧 연기자본주의이다"라고 말한다.

불교자본주의는 물질적 부의 추구와 더불어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물질적인 부를 추구할 때에도 조건이 따른다. 특히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는 안된다. 또한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부추겨서도 안된다.

저자는 "궁긍적으로 불교자본주의 하에서의 생산행위는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행위여야한다"고 강조한다. 즉, 기업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기본 정신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저자는 생산자인 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불교적 가르침을 따를 것을 제안한다. 분수에 맞는 중도적 소비행위와 기능적합적 소비행위를 하자는 등 소비의 중도적 도덕률을 따르자는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분수에 맞는 소비는 자기를 남과 차별화하고 과시하려는 소비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능적합적 소비행위는 아무리 부자라도, 그래서 분수에 맞는다고 해도 기능 이상의 물건을 소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예를 들어 수천억을 보유한 재력가라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핸드폰을 구입하는 것은 기능적합적 소비행위에 어긋나는 사치이다"라고 설명한다.

불교자본주의의 경제관계는 동등한 협력관계를 지향한다. 모든 거래는 남에게 이익을 취하면 동등하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협력관계란 경쟁업체의 존재 인정과 시장에서의 공존을 의미한다"며 그 종존은 소비자의 올바른 소비선택을 돕기 위한 공존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기업은 자비의 경제를 실천해야 하고, 자리이타적 소비절제와 근면을 통해 축적된 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환원해야 한다. 이것이 초과이익의 사회적 공유이며 정의실현이다"라고 설명한다.

강자독식의 세계에서 공존의 무아적 세계로 가치전환을 요구하는 저자의 제안은 이상주의적 외침에 가깝다.

저자는 "책을 통해 불교자본주의 환경 조성을 위한 동참자가 늘어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다.

한편, 저자 윤성식 교수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학 석 · 박사, 美 오하이오주립대 · 일리노이대 · 버클리대 등에서 수학했다. 美 공인회계사, 美 텍사스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어머니가 곧 부처님이다

안성 도피안사 지원 스님 부모은중경 부록으로 담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송암지원 편저
종이거울 펴냄
1만 5000원

스님들은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출가한다. 세속과의 인연을 철저하게 끊으면 끊을수록 출가생활에 충실하다고도 한다. 그런 속에서 아버지는 '거사님'이 되고, 어머니는 '보살님'이 돼 버린다.

법회 · 저술 활동 등을 통해 유달리 효도를 강조해 온 송암 스님(안성 도피안사 주지)이 최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때〉를 펴냈다.

저자는 "자신을 낳아 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출가한 자식에게 귀의하는 뜻으로 큰절을 받기도 한다. 희안한 일들이 여태껏 이뤄져 왔다"고 말한다. 저자는 "도가 깊어지고 인생이 깊어지면서 은혜를 알게 된다. 그 때가 되면 자연스레 가장 큰 은혜인 부모를 다시 찾는다"며 "그제서야 거사님 · 보살님이 다시 아버지 · 어머니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부모은중경도 가운데 생자망우은(해산한 뒤에 근심을 놓으신 은혜) 장

책은 아버지-거사님-아버지, 어머니-보살님-어머니를 한바퀴 돌아야 했던 저자가 그 회귀의 과정을 기록을 뒤져 정리한 것이다.

부처님과 국내외 고승 18명 어머니 이야기로 만나는 불교의 효사상

"어머니 대한 마음은 참 구도의 시작"

책은 부처님의 두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한다. 부처님마저도 어머니라는 존재 앞에서는 자식이라는 사실에 예외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어 구라라집 등 인도 2명, 밀라레빠 등 티베트 2명, 육조혜능 등 중국 5명, 진묵 · 일타 스님 등 한국 18명 고승들의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 고승 부분에는 옛스님들과 별도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등 독자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스님들이 회고하는 어머니 이야기를 넣었다.

이와 함께 책에는 저자가 쓴 '불이법문을 들려주신 어머니' 제하의 요양원으로 보내는 편지가 수록돼 있다. 특히 현대인을 위해 간추린 판각 부모은중경도를 통해 불교에서의 효사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불자들의 효심 고취를 도모했다.

저자는 "설령 부처님이라거나 뛰어난 고승이라고 해도 어머니 앞에서는 한갓 아들 · 딸일 뿐이다. 출가자들도 아들로서 딸로서 어머니에 대한 참회의 마음과 사모의 마음이 있어야 인간의 반열에 든다"고 강조한다.

이어 저자는 "어머니에 대한 참다운 마음이 열리는 그 지점을 구도의 출발지로 삼고, 그 마음으로 마침내 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을 통해 어머니와 자식 간에 서로 갖는 마음은 결국 자비심의 발로이고, 그 자비심은 종내 일체중생을 향하기 때문이며, 자식과 어미니의 관계는 삶의 원천이라는 메시지를 절실히 느껴볼 수 있다.

저자는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때〉는 도가 깊어지고 인생이 깊어짐을 뜻한다. 본래의 인간, 그 자리로 돌아옴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말한다. "'어머니'는 자식의 근본이고 고향이다. 현대인들은 더욱 그런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동경해한다. 삶이 고달플수록 그렇다. 하지만 정작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자식은 어머니를 모르고, 남편은 평생 함께 살아도 아내를 모른다. 남정네는 여인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잉태해 낳고 키운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그리고 묻는다.

"여인네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듯 남정네도 목숨 걸고 누군가를 위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또, 여인네는 해와 같고 달과 같은 자식을 얻기 위해 남정네를 진정으로 우러러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1215-중-9677호

알츠하이머 치매!

아직도 방치 하십니까?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알츠하이머성치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적 화두 치매...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리는데 저희 한의원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명지한의원
한의사 원장스님 흥화(권대일)

예약 문의 052)261-7502~3
울산 남구 야음2동 459-44
(야음시장 맞은편)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 40년 노하우, 김철회 원장 직접 지도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회장 -한국설법연수원회장

교육일정

◆ 기 간 : 매주 목요일 (2개월 과정)
◆ 종 합 반 : 10인 이내 - 선착순 접수
◆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 직접 상담 결정
◆ 개강일자 : 2012년 2월 16일 (목) 오후 7시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진도식 교육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고구려 불교와 백제 불교의 지형도

구법승 · 전법승 있어 불교 발달



충남 부여군 대조사. 한국사상 최초로 인도서 불교를 배우고 돌아온 겸익(謙益)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1. 고구려 불교의 지형

고구려인들은 소박한 업설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점차 무상 무아 고의 가르침을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사유체계와 인식방법으로 체화해 인간 이해와 세계 인식의 지평을 확산시켜 나갔다. 고구려 불교는 공인 전후부터 왕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크게 발전했다. 수도였던 환인(桓仁)의 오녀산성과 집안(集安)의 국내성의 불교 지형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수도인 집안에는 성문사와 이불란사를 필두로 적지 않은 절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국양왕은 자신의 재위 말년(391)에 "불법을 높이 받들어 믿고 복을 구하라[崇信佛法求福]"고 교지를 내렸다. 이것은 당시 고구려인들은 불교를 복을 주는 가르침으로 이해했고 절을 '복을 닦고 죄를 멸하는 곳[修福滅罪之處]'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또 광개토대왕이 명을 내려 평양에 아홉 개의 절을 세우게 했다는 기록을 통해 수도인 환도(丸都, 國內城)에는 더 많은 절을 세웠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문자명왕은 79년 동안 재위했던 장수왕의 평양 천도에 이어 왕위에 올라 금강사를 세웠다고 한다.

고구려, 구복(求福)으로 불교 이해
삼론학·열반학 중심교학 삼아

일본 정법사(頂法寺) 연기에 의하면 일본의 성덕태자가 받들어 맞이하도록 한 광명사 관음상에 관한 기록에는 덕윤(德胤) 선사가 머물러 있었던 고구려의 절이름인 광명사의 유래를 볼 수 있다. 이 광명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일본)국으로 불상을 모시고 갔다는 점에서 볼 때 수도 평양에 있었던 절로 추정된다. 보장왕 9년(650) 여름 6월에 보덕(普德)이 "나라에서 도교만 받들고 불교를 믿지 않으므로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라고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보덕은 남쪽 완산의 고대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이름을 알 수 있는 고구려 사찰은 초문사 이불란사 금강사 광명사 반룡사 등이다. 대표적인 학승들로는 요동 출신으로서 양나라에서 활동한 승랑과 열반학의 대가였던 보덕, 중국에서 지론과 계율을 전해온 의연을 꼽을 수 있다. 이 시기 고구려 불교는 종래 수도 집안을 무대로 뻗어갔던 삼론학 계통과 집안과 평양 외곽의 열반학 계통 및 평양 중심의 지론학 계통으로 분기하고 있었다.

증손상좌인 길장의 여러 저술에 인용된 승랑의 삼론체계는 정관무득(正觀無得) 사상으로 요약된다. 그는 중국불학사에서 불학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중국불학연구의 초석을 놓았다. 승랑은 유소득(有自性) 유무의 성실학이 지닌 한계를 지적해 소승 교리임을 밝혀냈고 무소득(無自性) 유무의 삼론학이 지닌 본의를 발휘해 대승 교리를 새롭게 천명했다. 보덕 이전에 활동했던 의연(義淵)이 지론종 남도파 대표주자인 혜광(慧光)의 제자였던 법상(法上)에게 불법(佛法)의 시말(始末)을 문의(576)해 오면서 지론(地論) 사상을 일부분이나마 소개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당시 고구려에 지론 사상이 널려 퍼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덕은 열반교의 평등사상과 방등교의 불이사상을 부동심으로 표현해 당시의 현실 속에서 구체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보덕이 〈열반경〉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도교에 대한 공격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성의 뿌리를 끊어버린 일천제조차도 언젠가 성불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드넓은 이해를 보여주려는 데에 있었다고 추측된다. 그것은 열반교의 평등사상이 방등교의 불이사상으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고구려의 삼론학은 승랑과 승전 이래 법랑을 이은 길장의 문하에서 공부했던 혜관(慧灌, 慧觀)과 촉(蜀)땅에 들어가 강설했던 인(印)법사 및 혜지(慧持; 575~642)에게 삼론을 가르친 실(實)법사 등을 중심으로 매우 융성했다. 반면 고구려의 천태학은 진(陳, 557~589)나라와 수(隋, 581~618)나라의 교체기에 천태지자(538~597)에게서 천태 선법(禪法)을 닦은(596) 파야(波若; 562~613)가 돌아오지 못해 제대로 연찬되지 못했다. 때문에 고구려의 중심 교학은 중기의 삼론학과 후기의 열반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백제불교의 지형

겸익은 한국불교사에서 인도로 유학을 떠나 백제로 돌아온 최초의 구법승임에 틀림없다. 그는 배달다 삼장 등과 함께 아비담장과 오부 율문을 가져와 함께 번역하고 강론했다. 그의 아비담장에 대한 이해와 오부 율문에 대한 인식은 자세히 알 수 없다. 또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도 온전히 알 수는 없다. 다만 그는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인도로 유학을 떠났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살림살이와 사고방식을 마음껏 펼쳤다. 특히 그는 오부 율문을 가져와 번역하고 강론함으로써 중국보다 약 1세기 앞서 백제에서 오부 율문 모두를 연구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율맥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를 따르는 문생들에 의해 형성된 학맥은 공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 백제의 계율학과 삼론학 및 성실학과 법화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 최초의 삼장법사 겸익
백제, 인도·중국 불교 융합

또 겸익은 인도의 아비담장을 수용하면서도 백제의 대승교학적 토대와 충돌하지 않고 상호 투과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그의 율학사상은 설일체유부의 〈십송율〉을 수용하면서도 법장부의 〈사분율〉 등 율문들과도 융활하는 역동성을 잃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불교의 중도사상은 존재와 비존재 및 연속과 불연속 등의 이항에 대한 치우침 없는 균형감각으로 나타난다. 유수한 번역가이자 사상가였던 겸익 역시 그러한 역동적 지혜 위에서 살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겸익의 살림살이와 사고방식을 통해 그를 한국사상사 최초의 삼장법사이자 백제 율학의 비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위덕왕대(554~598)에 현광은 중국 진(陳)나라의 남악 형산(衡山)에 머무는 (567~577) 혜사(慧思; 515~577)를 찾아가 문하에 들었다. 평소 혜사는 용수의 〈대지도론〉에 의거해 〈반야경〉과 〈법화경〉의 일치를 주장해 왔었다. 남악에 들어온 뒤 혜사는 안락행(安樂行) 법문으로 마지막 회향을 하고 있었다. 그의 문하에서 안락행의(安樂行儀)를 닦아 법화삼매를 증득한 현광은 스승에게 인가를 청해 〈법화경〉의 안락행문을 은밀히 전수받았다. '안락행문'을 전수받은 이후 그는 자신의 독자적 관점을 입론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하여 현광은 북제(北齊) 혜문(慧文)의 제자였던 남악 혜사의 문하에서 실천적 행법을 심화시켜 법화학의 체계를 정립했고, 함께 수학한 천태지의(537~598)는 이론적 구조를 논구해 천태학의 체계를 구축했다. 당시 혜사는 현광에게 "그대가 증득한 것이 진실해 허망하지 아니하니, 그것을 잘 보호해 법으로 해금 증장하게 하며, 본국으로 돌아가 선교방편을 펴라"는 부촉을 했다.

또 그가 중국에 있을 때는 혜민(慧旻)이 그 법을 받아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17년 동안 머물던 현광은 중국을 떠나 고향인 웅주의 옹산으로 돌아와 범찰(사원)을 짓고 교화에 힘썼다. 당시 옹산의 현광 아래에서 법화(삼매)당에 올라 수기를 받은 이가 한 명, 화광(火光) 삼매에 든 이가 한 명, 수광(水光) 삼매에 든 이가 두 명이었다고 전한다. 여기서 기별을 받은 한 명은 법화삼매의 증득자 또는 안락행법문을 받은 제자로서 현광의 법을 계승해 법을 설한 이로 짐작된다. 여기서 화광삼매에 든 한 명은 법화삼매 유상행의 '보문품' 독송을 통한 수행에서 자비(慈悲)에 의해 번뇌(煩惱)를 멸하고 안락(安樂)을 얻게 된 사람으로 이해된다. 또 수광삼매에 든 두 명은 관세음보살의 '칭명'으로 삼난(三難: 果報水, 惡業水, 煩惱水)을 면하면서 보살의 본원(本願)으로 별관(別觀)과 원관(圓觀)을 닦을 때 자비가 감응한 이들로 인식된다. 이들은 각기 현광의 법화삼매 수행법을 백제에 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불교의 구법과 전법

고구려인들은 불교를 받아들인 뒤 앎의 질과 삶의 질을 크게 제고시켰다. 그들은 중국과 인도를 향해 구법하고 다시 백제와 신라 및 왜국에 전법을 했다. 고구려 불교는 승랑 인법사 실법사 관륵 관혜로 대표되는 삼론학과 보덕 등으로 대표되는 열반학 그리고 파야 등으로 대표되는 천태학이 주축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중국불교 정착기라 할 수 있는 위진 남북조시대의 대표적인 학통을 온축시키고 육화시켜 이웃 왜국(일본)에까지 전해주었다. 이들 고구려 전법승들에 의해 일본 고대불교는 그 사상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혜량(惠亮)은 제24대 양원왕7년(551) 경 신라로 가서 최초의 국통이 돼 신라불교의 전래 초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석파야(釋波耶)는 중국 천태산 지자(智者) 대사에게 수학해 천태교관을 받았다. 실(實)법사는 수나라의 촉땅에 들어가 삼론을 강의했고, 인(印)법사 역시 수나라에서 삼론을 크게 강의했다. 지황(智晃)은 설일체유부 사상에 뛰어났으며, 현유(玄遊)는

일본 고대불교 사상적 기반은
고구려 승려의 전법행 덕분

인도 구법의 역정을 떠난 중국인 승철(僧哲)을 따라가 사자국(師子國, 스리랑카)의 승려가 됐다.

고구려 사문들은 일본으로도 전교를 떠났다. 혜변(惠便)은 일본의 백제계 대신이었던 소아마자(蘇我馬子)와의 인연으로 일본에 절을 짓고 전교하면서 선신(善信)니, 선장(善藏)니, 혜선(惠善)니의 세 여승을 배출했다. 혜자(惠慈)는 일본 성덕(聖德)태자의 스승이 돼 불법을 가르치고 정교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 영양왕 때에는 승륭(僧隆)과 운총(雲聰), 담징(曇徵)과 법정(法定) 등이 전교를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 특히 담징은 불학과 오경(五經) 그리고 종이와 먹 및 맷돌 등을 만드는 기술과 그림그리기를 가르쳐 주어 일본 고대 문화에 크게 이바지 했다. 고구려 불교 사상은 시대에 따라 변주됐으나 불교가 완전히 정착됐던 5세기 이후에는 삼론학과 열반학과 천태학이 주축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불교의 대표적인 승려들은 인도로 구법했던 겸익을 비롯해서 담욱, 혜인, 발정, 혜현, 현광, 관륵 등이다. 특히 겸익(謙益)은 제26대 성왕 4년(526)에는 인도로 불법을 구하러 떠난 뒤 오부율문과 아비담장의 원전을 가지고 귀국하면서 인도승 배달다(倍達多) 삼장과 함께 왔다. 그러자 성왕은 나라 안의 학덕이 높은 고승 28명으로 해금 겸익을 도와 율부 72권과 소승논장인 비담의 번역을 완성하도록 했다. 이에 담욱(曇旭)과 혜인(惠仁)이 율부에 대한 주석을 달아 율소 36권을 저술했다. 성왕은 번역된 비담과 신율의 서문을 지었고 새로 번역된 불전을 태요전(臺耀殿)에 받들어 간직했다. 성왕 19년(541)에는 남조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열반경〉 등 경전의 주석서(經義)와 공장(工匠) 및 화사(畵師) 등을 청했다. 같은 왕 23년(545)에는 장육(丈六)불상을 조성해 천하의 모든 중생이 다같이 해탈하기를 기원했다.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한 해는 〈원흥사가람연기(元興寺伽藍緣起)〉와 〈상궁법왕제설(上宮法王帝說)〉 기록에 근거한 백제 성왕 16년(538)인 흠명(欽明) 무오년과 성왕 30년인 흠명 13년(552) 두 가지 주장으로 집약된다. 최근의 일본학계의 앞의 설을 정설로 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여러 전거를 통해 정합성을 따져보면 제17대 아신왕 때 일본에 불경이 전해지면서 문자도 함께 사용하게 됐던 것으로 추측된다. 성왕 32년(554)에 담혜(曇慧) 등 9명의 승려를 왜국에 보내어 도심(道深) 등 7명의 승려와 교대를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성왕 32년 이전에 이미 백제의 승려들이 왜국에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덕왕 24년(577)에는 경과 론, 율사, 선사, 비구니, 주금사(呪禁師), 불공(佛工), 사장(寺匠) 등을 일본에 보냈다. 31년(584)에는 왜인이 불상과 미륵상 두 구를 가져갔다. 위덕왕 35년(588)에는 불사리와 승려, 사공(寺工, 太良末太文賈古子), 와장(瓦匠), 화공(畵工, 白如) 등을 왜국에 보냈다. 왜국에서는 대신인 소아마자(蘇我馬子)가 백제승을 청해 수계의 법을 물었으며, 다시 선신니(善信尼) 등이 불법을 배우러 백제로 왔다. 이들은 3년간 머물면서 계율을 공부하고 비구니가 돼 왜국으로 돌아갔다. 또 혜총(惠總)과 영근(令斤)과 혜식(惠寔) 등 사문으로 해금 왜국에 불사리를 전하게 했고, 영조(聆照), 영위(令威), 혜중(惠衆), 혜숙(惠宿), 도엄(道嚴), 영개(令開) 등 승려를 보냈다. 위덕왕 42년(595)에 왜국으로 건너간 혜총은 고구려의 혜자(惠慈)와 함께 성덕태자(聖德太子)를 일깨워 일본 삼보의 대들보가 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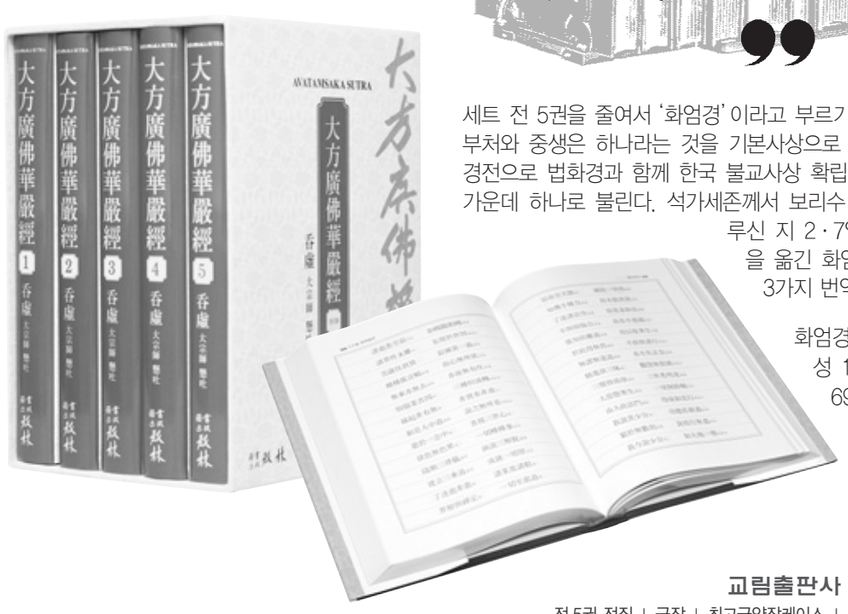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1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교육시간 : 초 · 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개강일시 : 2012년 3월 8일(목)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나의 결점을 지적하고 잘못을 가르쳐 주는 현명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따라라.
그는 나에게 보물이 감춰진 곳을 일러 주는 사람이니, 그와 같은 사람을 따르게 되면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각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행자(비구니) 구합니다.
1. 신체조건에 관계없음
2. 학력 관계없음
3. 나이 관계없음
4. 불법을 구하고 수행정진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011-858-0306

달마상 황금용주도 만능부적
심안으로 그린 액운소멸 만사형통
달마상과 황금용주도 만능부적을
인연있는 분께 드립니다
시각장애 1급 소승을
시봉할 분 기다립니다
달마 010-9003-7783

불교(범음,범패)교육대학
범음,범패,작법무
단기간 속성(실무위주),행사 출장
퇴마(5일완성), 사주(5일완성),
작명(3일완성) 전수
풍수상담, 교육 출장교육
부산 미타사
010-4611-3738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당나라 때부터 황실에서
비밀리에
사용하여 온 비법을
책으로 출판하였다.
010-4735-3232
범 송

웰강. 황토. 상황. 氣 토굴. 쑥 뜸방 훈증침대
누워서 허리 뜸 / 배에는 단전 뜸
앉아서 좌훈 뜸 / 편안히 무릎 뜸
잃어버린 건강 / 사고 후유증
편안히 꼭 건강 찾아 장수하세요
훈증침대 특허번호 제10-2011-011722호
가맹점 모집
011-573-4438

문하생 모집(청학동)

역학, 풍수에
관심있는 분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남녀 초보 환영)
02)422-5804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창원)
055)253-1808
010-6575-1719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 도심포교당)
02)338-2158

50대 비구승입니다.
천일기도를 발원하여
맑은 기도도량,
인연처를 찾습니다
010-5420-8240

미국 LA에서 부전
하실 스님 모십니다.
사무실 직원
모십니다
▷ 대전 신광사
010-5792-3000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전통불교의식무료27생모집
선착순
비구스님 5명 , 비구니스님 5명
출가행자 3명 모집
· 스님달마 저렴하게 보시합니다
· 임진년 윤달 묘 탈봉 회향 문의
화엄선원
055)323-3569
010-2553-8827

2012년 임진년의
직업운, 사업운, 재물운, 진학및 성적운,
이성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적중률
90%가 넘는 효타비결서(신수비결)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해결하세요.

효타비결서(신수비결: 정가 1만원)
전국유명 서점 도서출판 청연

삼혼칠백기도
• 삼혼칠백은 귀신이 아니며 모든 유정무정의 흥망성쇠는 삼혼칠백의 작용에서 비롯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대원사)
051-891-1051

극락사 사찰
운영하실 분
구합니다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전북 김제 극락사 납골공원
010-4427-2256

한글 팔만대장경
시주하실 분이나
파실분
덕산 스님 합장
011-9228-674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후반~65세미만
(서귀포시 서귀동 정방사)
▷ 한라산 관음기도도량
010-5219-7021

수 강 생 모 집
역학은 5~10년을 해도 쉽게 되지 않으니
이제 효타비결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세요.
효타비결은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게 해 드리고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1. 개인 지도반(1개월 완성)
2. 초급반(6개월 완성)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010-7121-9406

무형 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 (바라. 작법)

(사)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보유자 스님 직강, 범음 범패,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운심게, 삼귀의)
010-2563-5550(개인지도)
사찰행사 : 49재, 산신, 수륙대재
(사주, 명리학, 영가 찾는법 1개월 속성)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종도 가입안내
본 종단에서는 종도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부산 동구 범일동 1454-17 영축사
총무스님 010-2563-5550

귀 신 학 교
귀신을 스님들과 같은 강원교육으로 왕생극락을 시킵니다.
어떠한 천도재 보다 훌륭한 천도의 방법입니다.
1년 교육과정이며 매월 초하루 보름 천도재를 지냅니다.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전화 055)391-3014(원장실) 3004.3024(종무소) 3016(팩스)

등록가입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센터 설립운영하실 분
설립운영하고 계신 분
등록 가입 받습니다
한국불교문화원 연합회
010-6838-8040
법 광

불자님 무료상담 안내
매월 초하루, 보름 및 각 재일에
불자님 사주무료 상담합니다.
시간 : 오후 2시 ~ 7시
1호선 종로5가역 5번출구 20m 전방
공생약국 3층 김현산역리원
010-9113-8545 (예약문의)

빙의·귀신 퇴마법 전수
스님이 배우실분 특별우대 (100만원)
* 신병, 무병, 업병으로 인한 정신질환 우울증.
* 구병시식, 영가천도, 49재 영가장에 고통에 시달리는 분.
* 거듭실패로 되는 일이 없는 분, 불면증, 악몽, 이명, 가위눌림.
* 영가장애로 인한 고통 30년 빙의퇴치.
(www.jijangsw.com)
스님 되실분 (나이불문)
절에서 평생사실 분 / 장기요양
사찰등록 (토굴, 포교당, 작은암자도 환영, 분담금 없음)

30년 빙의치료 대가
(사)세계불교지정선원종 본찰 부처골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전화 054)383-8553 / 011-9585-4908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6(화) 저녁반, 3/8(목), 3/9(금) 오전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2월 3일(목) 14:00
개 강 : 2월 9일 (목)
•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하나?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 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수가 있다.
•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히는 가정
•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속성반 : 대상 – 법당, 포교원, 철학관 운영자
명리, 육효 초보반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 011-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우리은행)옆

천부경 6의 비밀–운명과학으로 풀어내는 〈新학문〉
신비의 예지법 강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시개강)
스님, 종교인 특별반 운영
(10주 완성)
* 무한리필교육
– 완벽상담시까지

○운명, 운세, 인연법을 동시에 해결, 기존상담 모든 분야
○평생운, 해운(단기운), 년운(일년신수), 월운 까지
○택일 – 결혼, 이사, 행사, 제왕절개 수술일자, 묘이장
○궁합 – 운세궁합, 인연궁합, 운명궁합도 함께 풀이
○진로상담 – 공부, 학업, 전공, 대학, 직장, 취업상담법
○장사 & 사업 – 장소, 인연, 업종, 개업시기, 장사운
○체질 & 건강 – 5기체질론에 의한 발병원인, 식이요법까지
○개운상담법 –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비의 개운법
○개운기도법 – 개운의 비법, 개운행사법, 특수수련법 등

〈 특수 교육강좌 〉
◈천부경 성명학 & 작명법(10주)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3주)
◈천부경 운세감정법(10주)
◈천부경 숫자풀이법 인연법(10주)
◈천부경 진로상담법 (장사/사업)

타로카드 강좌
〈 DVD 발매 〉
– 30만원 (2장/set) (타로카드 포함)
– 천부경 운명과학회 하나은행 〈629-910035-12505〉
– 각교육원, 카페신청

▣ 서울 • 부산교육원 (010)-9171-3001
▣ 대 전 교 육 원 (010)-6476-1021
▣ 대 구 교 육 원 (010)-6251-5776
천부경 6의 비밀 – ttp://cafe.daum.net/cheonbu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www.kyksb.co.kr
승복·전통복식 31년
김윤경승복·우리 옷
● 31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고급 모직 장삼 195,000원 한정판매
-고급면(신제품) 적삼 15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18평
- 요사 : 43평
- 부지 : 400평
- 가액 : 4억

- 위치 : 경기
- 법당 : 15평
- 요사 : 37평
- 부지 : 350평
- 가액 : 4억 3천

- 위치 : 부산
- 법당 : 30(목조)
- 요사 : 70평
- 부지 : 150평
- 가액 : 6억 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40평,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7억

토굴(부산 지하철 10분)

- 대지: 150평(국유지 70평 포함)
- 법당 (용왕당 물 철철) 17평,요사채, 방3칸
- 뒷산 공원 접, 주택 밀집지역
- 정남향, 사찰역사 38년
- 총가액 : 2억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미국이민 관계로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 ▣ 평수 2000여평
- ▣ 법당, 삼성각, 석불조성(지장, 석가모니, 산신)
- ▣ 마당. 미륵부처님입상(12자) 5층탑
- ▣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 사당 (25년모심)
- ▣ 요사채 방4개, 욕실 및 화장실 2개
- ▣ 야외뷔페식당겸. 주차장 완비
- ▣ 현재 실버타운 허가신청 중
- ▣ 23년된 일본법당도 인연이 되시는 분께 같이 드리고져 합니다
- ▣ 양도가액 : 7억

연락처 011-252-7281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좌향)
- 가액 8억

010-9335-848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명동산 3-1번지
- 평수 : 4천평 (대웅전, 산신각, 용왕당, 요사체 : 방 4칸)
- 대중공양 거실 큼, 좋고,물좋은 곳. 마당까지 주차 100대 가능 (여름 피서객많음)
- 가격: 상담후 가격절충

010- 3737-7372

사 찰 안 내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8번지
- 4층건물중 2층
- 평수 :32평 시설완벽
- 법당 :장엄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방2칸 시설비 : 2,0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 됨

010-2565- 72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전답 : 827평
- 법당, 요사채 약 50평
- 산신각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평당 40만원

010-8034-8309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 대웅전 목재3포(31평)
- 종각, 산신각, 요사채등
- 부지 약 1,000평, 임야 약 3,000평
- 교통양호 (국도변)
- 가액: 11억

011-257-4985
052)238-9001

토굴(임법당)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 대지 147평
- 건물 2동 외 부속동
- 삼존불 외 시설집기일체
- 가액 : 5천만원(절충불가)

010-9545-94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907번지
- 대지 190평
- 법당 28평, 요사채 24평
- 가액: 2억 1천만원

010-2707-131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약 50여평
- 법당 2층건물, 요사1채
- 양도가액: 1억 4천만원
- 현재 운영중. 시내에 있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양도

019-305-9138
051)466-0450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상구 마을 버스 종점에서 약 120m 도보
- 30년된 도심 산속의 작은기도도량 (국유지)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가액: 8천 5백만원(조절가능)

010-5015-8511

사찰(별장)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 2층건물 1층 요사채 , 2층 법당
- 대지 150평
- 건평 1층 32평, 2층 30평
- 가액: 4억 2천만원
- 산세 수려함

010-9058-5353

서울근교사찰

- 서울30분 남양주시 오남 신도시
- 호수공원옆 남향 약수 풍부 도심속 정원
- 토지 500평, 법당 30평, 요사채 70평
- 별채 20평 (가건물)거대산신암벽
- 사회복지시설 공사중
- 양도 1억 (비구니스님환영)

010-6600-1377

임 법 당 안 내

-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 인근
- 건물 : 약 2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후 상담 결정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010-8229-611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3층 53평 전체
- 법당, 아미타불, 관음소불 50
-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해우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4323-0087

농가주택(급)안내

경북 자연이 보존된 살기좋은 아름다운 영양

- 농가2동 대지 200평 군불방
- 계곡도로 접
- 남향 산밑 외딴집 다용도
- 가액 6500만 주인직

010-8899-8899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자인면
- 대지 126평, 원룸포교원
- 전체건물 4동(70여평), •리모델링 잘 되어있음
- 황토기와표집(약16평)
- 법당옆 친견실도 있음, 조경이 잘되있고
- 노비구, 비구니스님 노후대책이 보장됨
- 가액: 1억 6천만원(답사후 조절가능)

010-5317-7736
017-502-940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 대지 196평
- 주자창, 텃밭 175평, 법당 15평
- 야외 지장보살입상, 요사채방5, 심야보일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769-7029

포교원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불자님께

- 전주 시내 중심
- 원룸 빌라 고급음식점 밀집지역
- 1층 25평 내 - 법당, 방1, 부엌, 욕실, 도시가스, 살림가능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350만원
- 절학하시는 분 환영

063)246-848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자인면
- 대지 126평, 원룸포교원
- 전체건물 4동(70여평), •리모델링 잘 되어있음
- 황토기와표집(약16평)
- 법당옆 친견실도 있음, 조경이 잘되있고
- 노비구, 비구니스님 노후대책이 보장됨
- 가액: 1억 6천만원(답사후 조절가능)

010-5317-7736
017-502-940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금정구 청료동 (범어사 역 지하철 7번출구)
- 7층 건물 : 3층 : 지하주차장
- 총평수 83평, 법당 23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 지장, 삼존불
- 월성, 신중, 영가단
- 방2개, 주방, 거실, 실내 화장실
- 보증금 5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없음

010-9376-5633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동구 구봉산 사잘
- 내용: 전망 좋은 도심 산자락
- 80년된 청정기도 도량
- 대지 50평, 국유.사유지 50평
- 1층 요사채 50평 (방4, 공양간1, 관음전)
- 2층 법당 35평 • 옥탑, 목탑1, 해수관음입상
- 공원이 조성되어 주변 환경이 좋으며, 공영주차장 100여대 완비되어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8660-581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충남천안
- 부지 : 5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4억5천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안내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3동 494-40호
- 용호시장 우리은행 뒤
- 평수 28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시설: 삼존불, 소불 지장보살 108불, 관세음보살 108불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2914-3534

납골공원 및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면적 2만평, 법당까지 도로포장
- 극락전 50평, 법당 45평, 요사채 50평 2동, 용궁100평
- 종각30평-산신각 10평(목조단청), 연못, 폭포수
- 상황버섯 재배, 표고버섯 재배, 장뇌산삼 10년근 약 100만주
- 사회복지 법인, 입불지장전 도량 약 300평, 농장 2천평. 백년송 소나무 경치좋음
- 가액: 55억, 꼭 하실분만 연락

011-1703-2770

편 안 한 토 굴

- 위치: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 대지 200평, 방3, 거실1,실내화장실,건평 32평,
- 법당11평, 삼존불 정남향, 마당잔듸, 주차 8대가능
- 가액: 4천 9백만원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 4층건물중 2층, 45평
- 삼존불, 방1, 차실, 공양간 넉넉, 화장실2,다용도실, 몸만 오세요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832-5074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 법구경 -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5.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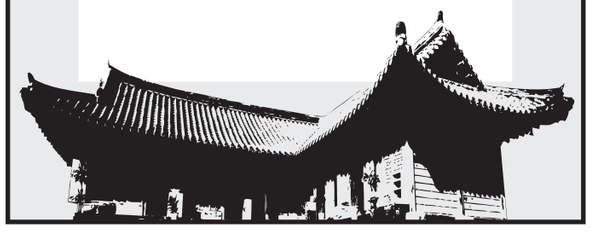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도솔천사
- 법 명 : 진법(김성찬)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279-3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지장사
- 법 명 : 초원(오용득)
- 주 소 :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만곡리 523-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명상 8주 프로그램

‘생각공장’의 망상 인정하면 사라져요

잭 콘필드의 명상 레슨 ④ – 생각 바라보기

명상을할수록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욕망 불안 의심 두려움 회피가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존중하면서 명상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계획과 기억, 환상 속으로 몰고 가는 움직임, 즉 ‘생각 공장’도 있습니다. 명상은 계획 · 기억 · 생각공장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망상은 계획처럼 간단한 말로 그 생각을 인정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호흡을 지켜보면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자꾸 되풀이해 생각합니다.

바보성자로 널리 알려진 뮬라 라스루딘(Mullah Nasrudin)이 어느 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원이 신원확인을 위해 “당신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라고 묻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예, 이게 바로 접니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명상 중에 당신의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은 과거를 되새김합니다. 마음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상합니다.

그러한 상상이 요점은 아닙니다. 상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이유로 인해 마음이 자신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일 때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지켜보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뜻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자주 또는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그 알아차림의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5초이든 5분이든.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당신이 계속 생각에 빠져있을 것인지 현재로 돌아올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 되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은 깨어나 현재를 자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망상이 되풀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명상을 시작하는 순간 녹음기가 돌듯 계속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풀이 되는 생각을 ‘계획’이나 ‘기억’이라고 불러봅니다.

되풀이되며 떠오르는 것은 수용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해야 하는 상실감이나, 수용해야 하는 사랑, 또는 창의적인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착안하면 당신은 ‘창의성 분출’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보다 깊은 수준의 반추나 깨달음, 혹은 표현되거나 이해받고 싶었지만 숨겨져 있던 마음이 솟아납니다. 잠깐 동안 이러한 통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찰은 마음이 사로잡히기 쉬우므로 그리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깊은 통찰을 비롯한 모든 것을 그저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명상 시간이 아닐 때 생각하십시오. 명상 중 통찰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통찰에 집중하기 보다는 당신이 명상 중임을 기억하고 명상을 계속해야 합니다. 명상을 마치고 나면 이런 통찰에 대해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어떠한 것들과 연관돼 생겨납니다. 가려움을 느끼거나 빗소리를 듣거나 무릎이 아픈 것은 모두 몸으로 직접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그냥 가려움과 소리와 통증입니다.

하지만 통증을 느끼자마자 당신은 “통증이 얼마나 오래 갈까?”라고 생각합니다. 빗소리를 듣고 “내일도 비가 올까?”라고 생각합니다. 가려움을 느끼고 “여기에 모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가렵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 감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따라옵니다.

명상을 마치고 나서 명상 중 떠올랐던 생각을 다시 기억해 내려 해도 바로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아주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갑자기 생각이 “야, 여기는 정말 고요하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명상은 우리 내면의 흐름에 귀 기울일 첫 기회가 됩니다.

잠시 후 당신은 자신만의 사고 유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생각하며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림과 말을 모두 사용합니다.

당신은 호흡이나 몸의 느낌, 소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면의 이미지와 그림, 낯선 단어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명상을 계속하면 당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법의 본질과 그 마음에 말을 건넬 방법이 있음을 통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생각에 빠져있는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보다 넓은 지혜와 이해심으로 그 생각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그에 응답하십시오.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에서 발췌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마음은 과거 되새기고 미래 상상
현재로 돌아오기 끊임없이 연습
복잡한 생각 밀려 들면 호흡 집중
통찰보다는 ‘마음 비우기’가 중요



명상유도문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호흡을 명상의 중심으로 삼고 호흡의 시작과 중간, 끝에 집중합니다.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살펴봅니다. 호흡은 짧거나 길거나 혹은 고요할 것입니다. 몸에서 어떤 강한 감각이 느껴지거나 소리가 들리거나 강렬한 기분이 들면 잠시 호흡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에 집중하면서 이름을 붙입니다.

이번에는 생각도 살펴봅니다. 호흡을 지켜보는 동안 어떤 생각이 강하게 떠올라 그 안에 빠져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장면이나 말일 수도 있고, 기억의 단편이나 계획의 일부 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대개 생각은 그것을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햇살에 안개가 걷히듯 생각이 사라집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심각하거나 강렬한 생각이라도 고요하게 지켜보면서 사라질 때까지 ‘생각, 생각, 생각’ ‘기억, 기억, 기억’이라고 계속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 생각이 사라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속합니다.

매우 복잡한 생각이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들 때는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때로 강렬한 감각이나 기분, 생각이 떠오를 때는 이름을 붙여 부르면서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다가 그 것이 사라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에 귀 기울여 집중합니다. 이 순간의 호흡을 느낍니다. 강렬한 감각이나 기분, 생각에는 이름을 붙이고 지켜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머무르며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부드럽고 주의 깊게 집중합니다.

부산경남 실전위주
범음범패 학인 모집

일 년 과 정

1학기
1) 조석 예불, 타종, 상단불공
2) 사물 다루는 법

2학기
1) 각종 재공편 의식 49재, 시다림, 다비식
2) 천수바라, 오공양나비춤, 작법, 태평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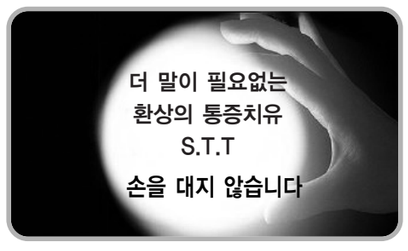
◑ 강 사 진 : 도성(영담), 성암, 철암
◑ 교 육 : 매주 월요일 오후1시부터 5시 까지 (단, 초하루, 15일, 18일이 월요일인 경우 다음날로 교육)
◑ 찾아 오는 길 : 김해시 지내동 504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영 봉 정 사
◑ 개 강 : 2012년 3월 5일(월) 입강
◑ 문의전화 : 011-852-8595
055)322-8595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특 강 안 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 의 : 매월 첫주 시작 4회 완성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한방(韓方)치료로
간 질 환
백반증(백납)
건 선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26-중-4825호

'현우경' 이야기 (5)

지혜로운 며느리

32명 아들 전생의 업 때문에 죽임 당해

옛날 슈라바스티 왕국에 리기미라는 부자가 살았다. 리기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아들만 장가를 보내지 못했다. 그는 막내아들의 혼처를 구하기 위해 친구인 바라문에게 부탁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죽기 전에 막내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꼭 보고 싶소. 자네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으니, 착하고 지혜로운 며느리감을 소개시켜 주었으면 좋겠소."

바라문은 특차시리국에 머무르다 우연히 길을 지나는 비사리라는 여인을 발견했다. 비사리는 외모가 단정하고 지혜로운 여자였다. 바라문은 비사리의 아버지를 찾아가 리기미의 막내아들과 혼사를 치룰 것을 요청했다. 비사리의 아버지는 고민 끝에 혼사를 허락했고, 결국 둘은 혼사를 치루게 됐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슈라바스티와 특차시리국 왕국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 전쟁 직전까지 이르렀다. 특차시리국의 왕은 슈라바스티 왕국에 지혜로운 자가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말 두 마리를 보내, 어미와 새끼를 구분해 보라고 요구했다.

슈라바스티 왕국의 왕은 신하들을 불러 어미와 새끼 말을 분간해 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리기미는 집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며느리인 비사리에게 전했다. 비사리가 말했다.

"말들의 머리를 나란히 두고 풀을 먹여 보십시오. 어미 말은 새끼에게 풀을 줄 것입니다."

리기미는 왕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왕은 리기미가 말한대로 시험했더니 어미와 새끼를 구분할 수 있었다. 특차시리국의 왕은 이번에는 뱀 두 마리를 보내 수컷과 암컷을 구분해 보라고 시켰다. 리기미는 집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비사리에게 전했다.



삽화 · 강병호

"고운 천을 펴고 뱀 두 마리를 그 위에 놓으면 부스대는 쪽이 수컷입니다."

리기미는 왕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전했다. 왕은 리기미의 조언대로 행해 뱀의 암컷과 수컷을 가려낼 수 있었다. 특차시리국 왕은 이후에도 몇 번이나 시험을 냈지만 비사리의 지혜로움 덕에 위기를 계속 모면했다. 결국 특차시리국의 왕은 슈라바스티국의 왕에게 슈라바스티국은 지혜로운 자를 가진 현명한 나라라며, 앞으로 호의와 의리를 베풀 것을 약속했다. 슈라바트티국의 왕은 이 소식에 기뻐하며 리기미에게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어려운 문제들을 다 맞출 수 있었나?"

"그것은 제가 푼 것이 아니라, 제 며느리가 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비사리에게 큰 상을 내렸다. 이후 비사리는 임신을 했는데 32개의 알을 낳았다. 그 알에서는 사내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건강하고 용맹스러웠다. 슈라바스티의 모든 사람들은 비사리의 아들들을 공경했다. 하지만 막내아들만은 그러질 못했다. 막내아들은 철이 없고 항상 남을 괴롭히길 좋아했다.

어느 날 막내아들이 개울가를 지나다 한 남자와 만나게 됐다. 둘은 서로 길을 비켜주지 않으려 버티다가, 결국 힘이 센 비사리의 아들이 남자를 개울에 빠트리고 말았다. 남자는 온 몸에 상처가 났다. 남자는 집에 돌아가 이 사실을 그의 아버지에게 알렸다.

"어차피 너의 힘으론 비사리의 아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 다른 작전을 세우자꾸나."

결국 남자의 아버지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채찍 속에 칼을 숨겨 넣고 32명의 비사리 아들들에게 선물했다. 그리곤 남자의 아버지는 왕을 찾아가 비사리의 아들들이 왕을 죽이기 위해 채찍에 칼을 숨겨 두고 매일 지니고 다닌다고 고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즉시 32명의 아들을 불러 몸을 살폈다.

슈라바스티국은 왕을 친견할 때 칼을 지녀서는 안 되는 법이 있었다. 이 법을 어긴 죄로 아들들은 모두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때에 비사리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집에 초청해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쳐 32개의 항아리를 비사리 앞에 내놓았다. 아들들의 시신이 담긴 항아리를 발견한 비사리는 자식의 죽음에 억울해하며, 왕을 찾아가 복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님이 비사리에게 말했다.

"지금 너의 32명의 아들들은 과거에 소를 훔쳐 서로 나눠 먹었다. 그 소가 지금의 왕이며, 소도둑들이 너의 아들들이었다. 때문에 왕이 까닭 없이 형벌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사람은 항상 좋은 일을 실천해야 하고, 나쁜 행동은 삼가야 하는 것이다."

비사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왕과 화해했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 꿈이 이루어 집니다! ★
보현사신협과 함께하면
- 사찰대출 전문 불교은행 -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대행 스님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물론 부처님의 시간과 공간은 시간도 공간도 없이 찰나찰나 나투는 생활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시간도 만들어 놓고, 공간도 만들어 놓고, 날짜도 만들어 놓고 해우년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왔는데, 올해는 더 한층 내 마음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다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한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하든 자기 주처를 믿고, 자기 불성을 믿고 그 자리에 놔야 한다는 겁니다. 즉, 주처라는 자체가 주장자도 되고 불성도 되고 주인공도 되고 자부처도 됩니다. 이름이야 그 중에서 뭐라고 부르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주인공이라고 부른 것은 지금 세속에서도 주인공이라고 하면 알게 돼 있고, 또 주인공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또 주인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장자를 세워서 항상 수레가 구르듯이 그렇게 천차만별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퀴는 모두 중심에 꿰여서, 그 중심을 꿴 심봉이 바로 바퀴를 굴리는 거죠. 거기서 힘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심봉을 끼고 바퀴가 이탈이 되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모두 이 심봉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긴데 육조 스님이 '내가 불성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했다고 했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다 불성이 있는 것입니다. 불성인 주장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장자를 믿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장자를 통해서만이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직결이 돼 있고, 또 이 세상만사, 천차만별의 생명들은 다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모르지만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다르지만 생활이 같고 생명도 같죠. 모두 차원에 따라서 다르기야 하지만 어찌 생명과 생활이 다르겠습니까.

그런고로 우리가 '정월이 되면 촛불재를 한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랑신이 들린 해가 있다.'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구랑신이 내릴 때에 집을 지으면 악행이 벌어진다 이런 소리 말입니다. 또는 삼재 액난이 들면 그해는 상당히 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일체 모든 게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까닭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스럽습니다. 악행이라는 그 자체가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생활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누구 말마따나 지수화풍으로 벌어지는 일들, 또 사람이 살아가다 혹사를 당하는 일들, 이 모두를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각각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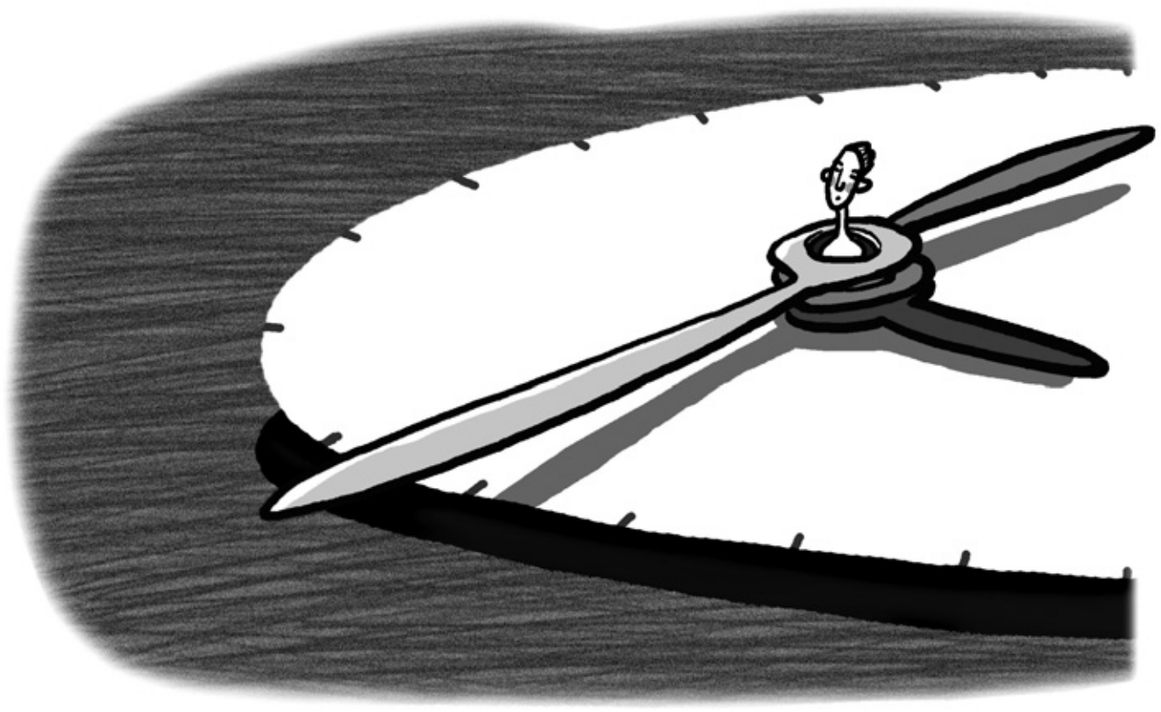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마음에 직결되는 직결처가 자기 주인공의 주장자니까 삼재가 벌어졌든 구랑신이 내렸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통신이 되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성이 됩니다, 통신이 돼서. 그러니까 그런 거 벌어질 일도 없고…. 그래서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구랑신도 없고 삼재도 없다. 고(苦)도 없고 집착(執着)도 없다. 멸도(滅道)만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교, 불교할 것 없이 못났든 잘났든 '나'는 빼놓고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 모든 사람들을 잘되게 해 주시오. 우리 가정을 잘되게 해 주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가톨릭교도 그렇고, '주여! 우리가 잘되게 해 주소서.'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못났든 잘났든 '자기'는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언제?

그래서 부처님과 더불어 사대 성인들이, 역대 조사들이 다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네 나무는 네 뿌리를 알고, 둘이 아닌 줄을 알고 찰나찰나 이렇게 생활을 하는 데에 찰나찰나 없어지는 줄 알아야, 공해서 없어지는 줄 알아야 둘 아니게 여여하게 들이고 낼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마음공부가 얼마나 간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자체가 광대하고 무변해서 전부 통신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어도 다 통신이 됩니다. 꽃들도 다 통신이 됩니다. 하다못해 길을 걷다가 만나는 나무나 돌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듣지 못했으니까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들리지 않아도 뜻으로는 같이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잘못될 것 같으면 옆에 돌 하나가 서 있어도 그 돌이 스스로 제대로 가게 합니다. 왜? 그 마음하고 통하니까 그 마음이 스스로 바로 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깥으로 한다면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여기 통신처의 근처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통신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를, 내 가정을 위해서 거기에 모든 거를 다 일임하고 관(觀)한다면 모두 저절로 일체 한마음이 다 통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세계를 위해서, 우리 불자 전부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저절로 통합니다, 저절로. 이게 공덕이며 공심(共心)입니다.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체(共體) · 공용(共用) · 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간단하게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이 주처에다가, 당신 주인공인 주장자에다 모든 것을 다 일임해라. 일임하고 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나 몸에나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오는 것을 대처해 막아 나가는 것을 '굴린다'고 합니다.

역대 조사들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고 다들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일심으로, 일심으로 그 구멍에다가…, 털구멍이라고 했습니다. 구멍도 없고, 구멍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털구멍이라 그랬습니다, 말을 하려니까. 털구멍 가운데서만이 큰 회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견해가 이렇고 저렇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하는 이런 견도(見道)도 수행을 해서, 수도(修道)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학도(無學道)에 도달해야만 열반계(涅槃界)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름이지만 우리는 이름을 따라서 안에다 모든 걸 귀합을 시키는 겁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운전하게 해.' 하고, 내렸으면 '참 무사하게 해서 감사해.' 하고 일심으로써, 언제나 자기를 리드해 나가고 사회를 자기로 인해서 리드해 나가는 그 주동자를 항상 주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주시를 안 해도 주시한 게 되죠. 그놈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가고 오게 해서 내가 움죽거리니까 주동자는 자기 주장자가 주동이 돼서 있죠. 그러니까 자기 주동자가 바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 선장이거든. 왜 선장이라고 하느냐.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며) 심봉이 끼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움죽거리지 않는 심봉이 그 힘을 배출해서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니까요. 자기 몸이 수레바퀴라고 한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수레바퀴와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북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레바퀴 돌아가듯 한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하도 말을 해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입으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체 조사들과 일체제불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 돼서 내 입을 그냥 통하는 겁니다. 모습을 보고서 이러니저러니 하지 마세요.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가 앉을 새가 어디 있으며, 병고가 붙을 새가 어디 있으며, 삼재가 붙을 새가 어디 있으며, 구랑신이 붙을 새가 어디 있으며, 이 세상만사 모든 것이 붙을 새가 어디 있

☞ 30면으로 계속

참선자, 수행자, 수험생, 학업자

소원성취의 옷



침향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에서 항균효과가 가장 뛰어나 공기정화에 탁월합니다.

사람의 체온에 해당하는 36°도 이상의 열을 받을 때부터 그 기운을 발하기 시작하며 위를 따뜻하게 하고 몸 속에 나쁜 기를 내려주고 기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사기(邪氣)를 몰아내어 머리를 맑게 해주어 한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부처님의 향으로 최고의 수행과 참선을 할 수 있는 중생제도로 탁월한 하늘이 내려준 천연향이며 향기를 내는 신비한 물질이다.

삼각법(삼각기법)을 통하여 참선과 수행자의 중심이 되어 기가 가장많이 모여지며 심신이 안정되어 소구하는 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산스크리스트어)는 일체의 소망을 성취케하고 복을 받게 하며 무적이며 일체중생이 윤회하는 삼유(三有)의 길을 청정케 하는 것이다.

색중에서 적색(빨강)과 흑색을 교합하여 흑색은 깨우침, 팔정도(정견, 정어, 정념, 정업, 정명, 정사유, 정정진, 정정)의 의미로 적색은 항상 쉬지 않고 수행하라는 정진을 상징합니다. 글자 하나 하나마다 금박과 침향이 무한한 기운으로 변하여 부처님의 자비로 일체 중생을 성취케하는 깨달음의 옷입니다.

모든 보시금은 대불전 불사에 쓰여집니다.

불자라면 가족 모두가 깨달음의 옷으로 소원성취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빨강색 (액운, 액살 소멸), 노랑색 (부를 상징)

졸업선물, 각종 선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당가격 : 23,000원 1SET : 45,000원

단체주문 환영

상표등록 40-2011-0049176 / 디자인등록 30-2011-0038559

가격 : 31,000원

단체주문 환영

우 능 사 031)898-5698 / 010-2589-7280

우체국 104604-01-005265 [예금주 : 우능사]

무엇을 하든 자기 주처을 믿고 그 자리에 놔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습니까. 고가 붙을 새가 어딨고.

내가 줄창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발 자국을 떼어 놓을 때에,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는데 무슨 고가 붙습니까. 떼어 놓으면 없어지는데 거기에 고가 있습니까? 팔자 운명이 있습니까? 구랑신이 붙어 있습니까? 삼재 액난이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그게 붙어지는 거지 붙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도 소중하다' 하는 것은, 그 생명들의 의식들도 내 몸과 더불어 같이 한 개체로서 움죽거리게 돼야 상대를 알고 세상을 알게 되니까 봐도 본 사이가 없어요. 이걸 보면 다른 걸 보게 되죠. 이걸 들으면 다른 걸 듣게 되죠.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가게 되죠. 차를 타면 내리게 되죠. 또 딴 차 타게 되죠. 이 사람 만나면 딴 사람 만나게 되죠. 한 개체가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들어야 하는 거니까, 이거 갖다 넣고 저거 갖다 넣고, 이거 갖다 하고 저거 갖다 하고, 이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수레바퀴 돌아가듯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래. 본래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를, 이유가 많고 사단이 많으니까 오히려 불교는 어려워서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마음공부는 팔정도(八正道)도 집어먹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고집멸도(苦集滅道)' 하지만 고가 붙을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집착도 없죠. 그럼 멸도죠, 뭐. 간편합니다. 그렇게 간편한 거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기복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칠성 부처님, 산신, 지신, 뭐 그냥 닥치는 대로 찾는 거죠.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찾는 거예요.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빼놓고, 자기 뿌리와 싹을 다 빼놓고 타의의 형상을 믿고 이름을 믿고 타인을 믿는다면, 자기까지도 자기 고깃덩어리만 믿는다면 그거는 도깨비 장난과 같으니라. 너 먼저 알아야 세상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남을 리드할 수도 있고, 정신계에 원동력을 불어 넣어 줄 수도 있고, 물리가 터지게 할 수도 있고…. 왜냐? 영혼의 근본은 항상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손색이 없거든. 영혼의 근본은 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찰나찰나 들고 나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근본, 그 자리가 바로 다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처예요. 그래서 좋은 데로 가지 못한 조상들이 있으면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여기다 맡겨라. 맡기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 주인공으로부터 일체제불의 마음이 통해서 그 마음자리에서 보살로 화해서 응해 준다. 그래서 응신(應身)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좋은 데로 못 간다면 자동적으로 지장보살로 응신이 돼서 응해 주신다.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 놨으면 입력된 대로 다, 여기서 꺼내 쓸 생각이 있으면 그냥 꺼내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완벽하게 자기를 리드하면서 자기 보디가드도 되는 참보배가 자기한테 항상 주둔하고 있다는 거를 믿어야죠. 저 나무들을 보세요. 이파리 하나, 가지 하나도 손색이 없이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있어요. 뿌리를 잘라 낸다면, 동강 낸다면 그 나무 싹은 다 죽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그리고 기복적인 말을 들어도 자기 마음이 움죽거리는지 움죽거리지 않는지 그것부터 봐야 돼요. 내 마음 주장자가 발동을 해서 움죽거리느냐, 안 움죽거리느냐 그거를 봐야 돼요. 그것이 완벽하다면 앉아도 서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바로 좌선이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몸뚱이를 틀고 앉았다고만 해서 좌선이 아니에요.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요지부동, 주인공이 움죽거리지 않는다는 거, 자기 주장자가 움죽거리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면 참선이 되죠.

어디에도 굴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여러분을 깨우쳐 주는 게 아니란 얘깁니다. 여러분이 자손들을 낳아도 부모가 그 자손들을 잘살게 해 주는 게 아니란 얘깁니다. 결국은 그 자손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허황되게, 촛불재를 하면서도 바깥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다면 그 재앙을 못 면할 겁니다. 그건 절대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그대로 부처입니다. 생각을 안 하면 부처고 생각을 하고 관했다 하면 법신(法身), 즉 문수가 되는 거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해서 보현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묘하고 광대무변한 이 도리를, 이 진리가 아니었으면, 생활이 아니었으면, 선지식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마는 그 듣고 아는 것도 올바로 알아야겠죠. 이 세상에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으뜸입니다. 자기부터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지 자기가 없고 무슨 세상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 거고 좋은 일도 있는 거지,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는 어떤 것에도 절대 움죽거리지 않으시겠죠. 옛날에 그렇디다. 여우가 아홉 마리가 나와서 꼬드겨도 움죽거리지도 않고 있었다구요. 허허허…. 그래서 석존께서는 오직 일심으로 자기 주장자만 공부한 거죠. 수억겁을 거쳐 내려오면서 진화가 돼서 형성된 자기를, 자기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수없이 살아나온 자기를 현재의 자기가 찾은 거죠, 서로 통신이 되고 상통이 돼서.

그전에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요 말 한마디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공부라고 할 건 없지만, 어디를 가니까 묘지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날은 어둡고 밤이슬은 차갑고 그러니까 제가 묘지는 데 가서 잘 잤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자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과거 나가 현재 나더러 하는 소립니다. "저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비의 묘지고 하나는 자식의 묘지니라. 그런데 아비의 묘지가 자식한테로 가면 자식과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아비한테로 오면 아비로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연고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처럼 그렇게 퍼뜩 생각하지를 못했죠. 통했으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통하면서도 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승은 거기에 있는 거지, 딴 데 스승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뜻이 뭔고 하는데 아무리 앉았어도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날 밤 지나고, 그 이튿날 낮이 가고, 그날 밤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또 훤하게 밝아요. 그랬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 꼼짝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비호같이 무슨 생각이 들어서 '아하, 그렇지.' 그러고 웃었더니요, "어이, 너 알아냈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한테로 비교해서 얘기할게요. 이 영혼의 근본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근본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면 지금 여러분의 주장자가 하나가 돼 줘요. 아들로 하나가 돼 버리죠, 아들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을 끊어트려서 어떡하느냐.' 하시는데 그런 염려 하지 말라 이 소립니다. 그냥 아들로 하나가 돼 버리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 없이 이렇게, 만약에 관을 한다거나 이런다면 아비로 하나가 돼 버려요. 자(子)가 됐다가 부(父)가 됐다가 찰나찰나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한테 "여보!" 하면 남편 행동을 하게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의 행동을 하게 되듯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아, 둘이 아닌 까닭에 그건 얼마든지, 백천만 개가 따로따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치로구나.' 하고…. 그래서 엉덩이를 떼었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자로서 법신이 되는 것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화해서, 즉 말하자면 화신이라고도 하지만 보현신이 되죠. 길을 가다 엎어져서 다리가 아프면 벌써 내 손부터 가죠. 엎드러졌으면 누가 일으켜 주죠? 이게 보현신이거든요. 남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불어 같이 모두를 위해서 이게 보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현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못났든 잘났든 '나'를 믿으세요. 아주 자기가 못나고 형편없다 하더라도 그건 형편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올 권리가 있어서 나왔고, 나왔으니 또 살 권리가 있고, 살고 있으니 '자기가 자기를 리드하고 간다'는 그 도리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내 불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여여한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삼재니 뭐니 하는 그런 데 귀를 기울이거나 젖어들지 말고, 흔들림이 없이 그냥 꿋꿋하게 자신을 완벽하게 밀고 나가는,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가는 패기와 신념을 가지십시오. 또 우리가 그런 신념에 의해서 바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못났다고 해서 '나는 부처가 될 수 없어.' 이러는 사람은 이 마음공부를 못 하고 항상 생사윤회 바퀴에 끄달려서 세세생생을 그 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리드하는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냥 꿋꿋하게 자신을 완벽하게 밀고 나가는,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가는 패기와 신념을 가지십시오.

질문자1(남): 스님,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스님께 말씀드리게 된 걸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사십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자식까지 낳고 세 끼 밥을 같이 먹고 빨래를 해 주는 집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마음이 돼서 이 마음공부를 같이 했으면 참 좋겠는데, 스님께서는 늘 실천하고 관하라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스님께 길을 좀 여쭙고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스님: 부인이 안 따라오는 분도 있고 남편이 안 따라오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걸 강제로 하면 부러지고, 또 너무 누굴누굴하게 하면 누굴누굴하게 돼서 안 되고, 그러니까 강도가 맞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전자보다 아주 달라져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안 따라오더라도 부인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자비가 흐르고 베풀고, 전자보다 달라졌다 이럴 때 처음에는 얼마 동안이고 모르다가 '아, 내 아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거기가 어딘가 한번 가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달라졌을 때 여자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많이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도 자기가 세웠던 그 자존심, 자기가 세운 자존심이 그렇게 허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조금, 귀퉁이 요만큼만 지금 없어졌지 전체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저 전체에서 눈 하나 없어진 것처럼 녹았거든요, 조금 밖에. 그거는 '남편이 그럭하니까 나도 생각을 해야 할 텐데….' 그냥 이 정도죠.

그러니까 그저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따로 보지 마세요, 언제나. 따로 보지 마시고 항상 '내 마음이 이러니까 네 마음도 둘 아닌데 이렇게 되겠지.' 하고 믿어요. 믿고 거리감을 두지 마세요. 저건 나를 안 따라온다는 거리감요. 여여하게 그냥,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이런 거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이거든요. 그걸 다 놓으세요, 그냥. 다 그냥 그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 스스로 돼요.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7년 2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국제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불자 세상보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생의 지혜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의 정서가 고스란히 배여 있는 전통시장이 위태롭다. 전통시장은 최근 대형마트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그리고 백화점 등 대기업에 밀려 점차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홈쇼핑과 방문판매까지 가세해 전통시장의 설자리가 더욱 좁혀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로만 보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통시장의 위기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서민경제와 직결된 전통시장을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 측면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영세상인과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분배의 차원에서 재조명할 필요는 충분하다.

정부는 그동안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왔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전통시장 1km안에 접근금지, 그리고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0~8시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보호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형마트나 SSM과 취급품목을 구분해야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마트나 SSM은 전통시장이 1차 상품을 위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기업의 전 품목 판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구분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역으로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이 1차 상품의 구입을 위해 전통시장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함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 문제는 대기업에 대해 강제적인 판매품목 규제 보다는 도덕적 차원에서 대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앞선다.

전통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부족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이미 많은 전통시장들이 일본 등 선진국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시설면에서 과거보다 월등하게 개선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시장이 대형매장의 시설과 서비스를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개선 및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1차 상품에 대한 확실한 우위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전통시장을 찾게 하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전통시장은 문화적 유산으로 보존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전통시장은 특화시켜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나라의 전통시장은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고 있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의한 전통시장의 위기는 대기업 2-3세들이 소상공인들의 밥그릇인 빵집과 커피숍에 까지 진출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요즈음 사회적 기업의 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여느 때 보다도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경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업의 최종적 목표가 이윤의 극대화 추구라 할지라도 도덕적 경영을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시장이 살아야 서민 경제의 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영세상인의 몫까지 앗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 역시 전통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과 보호만으로는 정책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단순한 지원은 전통시장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연명케 하는 것과 다름없다. 마치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치듯 전통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존립할 수 있는 중장기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엄동설한의 봄 소식



정도 스님
통도사
양산전법회관 주지

2012년인 올해는 '흑룡의 해'라고 한다. 새해 새날을 맞아 모두들 커다란 희망 하나씩은 가슴에 품고 있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지만 모든 사람들이 조금의 불만족보다는 커다란 만족을, 작은 불화합보다 대승적이고 원융무애한 화합을, 불행보다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살맛나는 한 해이기를 바란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해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고 한다. 선(善) 속에 악(惡)이 있다. 악 속에 선이 있기도 하다. 시비 구분은 신기루와 같이 부질 없는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탓에 극락도 지옥도 본인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웃 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극락을 만들어서 극락 속에서 편히 사는 이가 있다. 반면에 있지도 않은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 내어서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경우가 있다.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은 전생으로부터 시작됐거나, 혹은 현생의 과거로부터 내가 만들어온 인연의 결과이다. 그 작은 인연의 씨앗들이 필연이 되어 지금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게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열심히 기도해도 그렇지 않은가?" 라든지,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는가?"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사람들 중에는 직장이나 가정, 사회에서 비판거리만 찾아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 물론 더 나은 방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비판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선의의 비판보다는 대안 없이 발목만 잡는 비판, 즉 비난이 많다. 공심(公心) 없이 감정에 휩쓸려 쓸데없는 비판만 늘어놓는 사람은 언제나 불만족이요, 불화합이요, 불건강이고, 불행하다.

그런가하면 우리 주변에는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고 사는 이를 만날 수 있다. 이 사람을 살펴보면 대개는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며, 근검절약과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어느 누구와 똑같은 여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스스로 주변을 극락으로 바꾸어 사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 편안함과 행복감을 주위에 나눠주는 보살과 같은 사람이다.

돌이켜 보자. 그리고 살펴보자.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년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각오를 하다보면 지나간 삶은 어차피 되돌릴 수 없음에 후회하고, 챗바퀴 돌 듯 하는 후회를 어떻게 해야 그칠 수 있을지를 또 다시 고민하게 된다.

매서웠던 추위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당장 삭풍이 몸을 에이지만 머지않아 봄을 알리는 신호가 곧 올 태세다. 새로움을 알리는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조만간 인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 만해도 새로운 기운이 나는 듯하다. 엄동설한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소식에 자연의 생명력이 대단함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머지않아 찾아올 싱그러운 봄을 기다리며 '언제나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떠올려 본다.

새봄을 기다리며 새해를 맞이하며 가졌던 "올 한해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또 한번 되뇌여 본다.

순자(荀子)는 '막신일호(莫神一好)'라고 말했다. 사람이 어느 한 가지를 사무치게 좋아하면 이보다 더 신나는 것은 없다는 말이다. 요즘 너나 나나 특별한 것이 없으면 거의 다 비슷한 것이 많다. 웬만큼 해서는 남들보다 특별히 나을 것이 없다는 얘기도 된다. 그만큼 각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남들만큼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다. 하물며 남들만도 못한 노력을 들여서야. 성공하려면 본인의 숨은 기량 한가지를 잘 발견해서 미치도록 몰입해야 한다. 즉 한가지만큼은 남들보다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스케이트 세계인에 감동을 주는 김연아 선수나 축구공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박지성 선수, 발레리나 강수진, IT계의 거장 故 스티브 잡스처럼.

새 봄을 맞아 새해 작심삼일처럼 흐지부지됐던 각오를 되새겨보자. 자신과 맞는 한가지 수행법을 찾아 그 수행에 올인하는 한해가 되면 어떨까? 참다운 수행의 맛을 느끼는 한해가 되자. 수행의 참맛을 아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어보자. 모든 길이 하나로 통하듯 모든 수행법이 하나로 일치됨을 스스로 깨닫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社說

'연등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1월 27일 연등회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앞으로 지정 예고가 공시되는 30일 동안 특별한 결격 사유나 이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연등회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가 된다. 조계종의 숙원과도 같았던 이번 일의 성사에 당장 조계종 총무원은 환영 논평을 냈다.

조계종은 대변인 정만 스님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연등회 문화재 지정 예고는 세계에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조계종은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왔다. 2007년 중요무명문화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크고 작은 지적들에 발목이 잡혀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조계종은 그간의 어려움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이번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그치지 않고 세계문화유산 지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문화재 관련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88올림픽 때 사용하던 굴렁쇠도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모든 일은 시절인연이 좌우한다고 했다.

그러나 세상에 요행은 없다. 조계종의 연등회 지정을 위한 노력, 문화재위원을 비롯해 국회 정각회원 등 사회각계 각층의 불자들의 노력 등이 있었기에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다. 불교계의 이번 연등회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불교계의 노력과 사회의 전통문화 인식 향상이 줄탁동시(?啄同時)해 이뤄낸 쾌거이다.

조계종의 계획처럼 이번 연등회가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인정받을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돈봉투' 파문 자정 계기되길

범어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돈봉투가 돌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계종이 발칵 뒤집혔다.

범어사는 주지 선거 한참 전인 지난해 8월에도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모 스님이 수백만원의 기도비를 말사를 찾아다니며 올렸다고 해 과열선거의 우려가 있던 곳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총무원장스님도 1월 16일 후보스님들을 불러 각서를 받았다. 호법부도 담화문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건은 교계 한 인터넷 언론이 돈봉투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KBS와 한국일보 등이 크게 보도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여야 할 것 없는 금전수수 의혹으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격노케 하기에 충분했다. 인터넷에서는 조계종과 불교계를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줄이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등 승가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정을 촉구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관련자 참회와 선거법 개정 등을 제안하며 성명서 발표까지 채택나고 나섰다. 회의에서 언급된 범어사의 사고사찰 지정은 과열된 범어사 분위기를 국부적으로 진화시킬 방안일런지는 모른다. 하지만 지금 조계종에 필요한 것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뼈를 깎아내는 각고의 노력이다. 그래야 불교가 산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토종참옻으로 헐은 위, 지친 간 다스린다!!



대한민국 신지식인대상과 산림청신지식인에 선정된
옻안타는 토종참옻 국내최초 개발자 池龍禹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피부 질환, 아토피
療咳嗽(료해수) : 가래, 기침병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九服恒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 골을 채워줌, 골다공증 치료.

어혈을 파하면 저절로

消瘀血痺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어혈을 풀어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削年深堅結之積(삭년심견결지적) : 몸안에 오래묵은 병덩어리를 없애줌.
破日久凝結之瘀血(파일구응지어혈) : 오래묵은 어혈, 응혈을 파하여 피를 맑게함.

50대 전후에 많이 생긴다하여 이름붙여진 오십견은 어깨가 굳고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힘든 질환이다. 통증은 낮에도 나타나지만 주로 밤에 특히 잠을 청할 때 나타난다.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증거이다. 오십견 통증은 양상이 대부분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데 이것 역시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어깨 힘줄에 쌓이고 굳어진 어혈을 파하여 어깨 주위의 힘줄을 부드럽게 하면된다.

관절의 염증을 삭히는 토종참옻

風寒濕痺(풍한습비) : 뼈가 저리고 수시고 쓰림.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리골속을 채워줌.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다. 한방에서는 관절내 어혈이 쌓여 염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는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하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혈액순환장애의 원인

혈액순환장애의 원인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1)과잉 영양섭취로 혈액내에 지방과 탄수화물의 과다로 인해 혈액이 탁해진 상태 2) 혈관이 나빠져 막혀있거나 좁아진 상태 3) 몸이 허약해 심장기능이 떨어져 심장박동이 약한 상태 등 여러가지 원인이 나, 병균이 몸안에 들어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모든 병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생리통 효과없다면 100% 환불!

女子症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한달에 1번 그날이 오면 진통제 5~6정 복용하던 분들도 최소 1~2정이면 지나가고, 월경때 피가 잘 나오지 않고 배꼽노리가 차면서 몹시 아픈것과 몸푼뒤에 혈기가 고르지 않아 배에 징가가 생긴것을 풀어준다.

옻가네 참옻대보를 이용한 옻닭요리

우리의 전통식품인 옻닭은 모든 세대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옻닭이 몸에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옻오름 현상을 두려워하여 기피하고 있습니다. 참옻의 원조 옻가네참옻진액은 FDA(미국)에서도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이 타지 않는 참옻진액입니다.

※옻닭은 이런분께 특히 좋습니다.
몸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나, 시장이나, 건설현장,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감기몸살 없는 건강한 겨울을 약속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옻닭)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사례공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있는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근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을 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케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은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 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 드렸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드셔보신것을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준 양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준것을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감도 갈수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 되어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1) 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 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 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 복부비만의 가장 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사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규정준수 /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15th Anniversary 옻가네15주년기념

고급형 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5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토종참옻환은 온 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환을 옻가네 15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상담전화 :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